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고경

2569(2025). 12. 제152호



성철사상연구원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성철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굳이 ‘뱀의 발[蛇足]’을 붙이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반야지혜로 공성空性を 깨달아 ‘존재의 참 모습[實相]’을 확실하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해당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방편에 해당되고 자기 이외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利他입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실패하기 쉽고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로우나 무미건조해 자기와 타인을 그다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윤회와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리와 이타를 실천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고경』의 목표입니다. 古鏡

古鏡

고경古鏡이라는 말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본지本智]’를 뜻합니다. 『벽암록』 제28칙 「송 평창頌評唱」에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爾等諸人，各有一面古鏡，森羅萬象，長短方圓，一一於中顯現。爾若去長短處會，卒摸索不著[여러분 각자는 하나의 옛 거울을 가지고 있다. 삼라만상의 길고 짧고 모나고 둥근 것이 모두 거울 속에 비친다. 그대들이 만약 (거울에 비친 영상을) 찾아가 길고 짧은 곳을 알려 하면 결국 (그 거울을) 찾을 수 없다].」 『사가어록·동산록』 「갑면·시중」(선원고경총서 제14권 『조동록』, p.83)과 『설봉록』 하권(선원고경총서 제19권, p.134-137)에도 ‘고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처님께 밥값 했다’는 성철스님 법문의 진수

성철스님은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을 출간하시고 “부처님께 밥값 했다.”고 자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 두 책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선의 바른길’을 밝힌 역작임을 스스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선종의 정맥과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을 설파한 성철스님의 육성법문을 만나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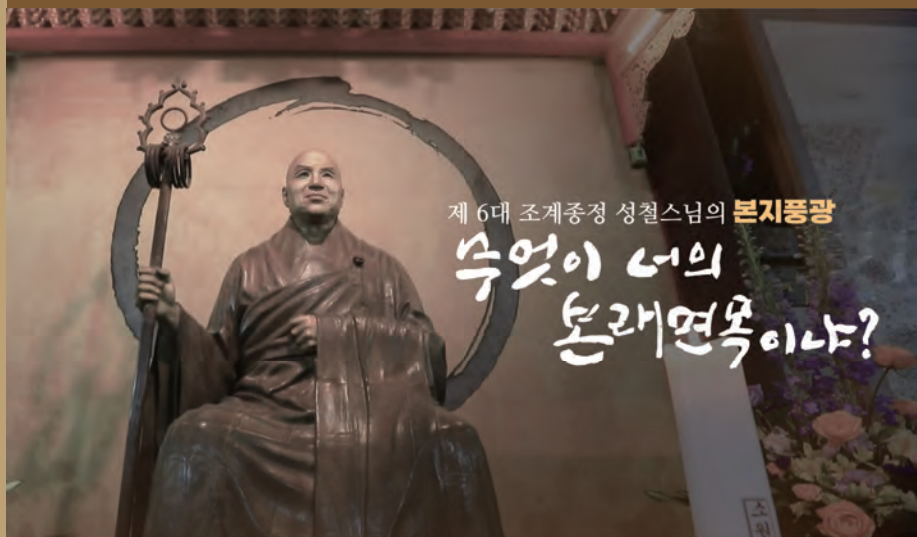


본지풍광 강설 시청

백련불교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7O9otfnKzhWQhMIT9dzdUBij6rz5Xs2b>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연결됩니다.



첫방송

10월 15일(수) 14:00

본방송

매주 수요일 14:00

재방송

본방주 금요일 20:30 / 본방주 토요일 22:30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02 - 3270 - 3300 BTN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방송포교후원으로 제작됩니다

BTN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례

古鏡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고경

월간 『고경』

제152호

2025년 12월 발행

2013년 5월 창간

- 004 목탁소리_원택스님
원력과 공생이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
- 012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12_성철스님
동안상찰 선사 『십현담』 강설⑧
회기迴機
- 020 세계불교를 만들어 낸 불교의 바닷길 12_주강현
힌두교에서 불교국가로 전환한 크메르
- 031 현대문학 속의 불교 11_김춘식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 041 바위에 새긴 미소 12_양현모
순천 선암사 마애불
- 042 세계불교는 지금 35·태국_조현
이운 대신 공덕을 나누는 태국의 아속공동체
- 052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12_오강남
종교의 심층을 통섭한 참 스승 류영모
- 059 작고 아름다운 불교의례 15·당번 ①_구미래
번뇌를 부수고 악귀를 조복시키는 깃발
- 073 설산 저편 티베트 불교 36_김규현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 나트
- 086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24_허남걸
현대사회에서 불교윤리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해 본 시간들
- 095 원철스님의 디카詩 46_원철
선달
- 096 불교로 읽는 서유기 24_강경구
손오공의 자아 왕국과 삼장의 황금보탑

발행인 겸 편집인 원택스님 | 발행처 성철사상연구원 · 장경각

편집자문위원 원해 · 원행 · 원타 · 원영 · 원소 · 원천 · 원당스님 | 편집장 서재영

주소 (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오피스텔 1232호

편집부 02-2198-5375 | 이메일 whitelotus100@daum.net

편집 · 제작 선언 02-733-0127 | 인쇄 한영인쇄

- 106 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24_ 이종수
조선 초 국경을 넘은 승려들
- 116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 34_ 박성희
기후미식의 원형 사찰음식
- 124 화엄 속 세상, 세상 속 화엄 6·화장세계품_ 보일스님
향수해 위에 핀 연꽃 속 우주
- 133 거연심우소요 62·태안사 ②_ 정종섭
물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능파각
- 148 붓다·원효·혜능·성철에게 묻고 듣다 24_ 박태원
‘마음 돈오’를 열어주는 두 문 ②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 158 한국선 이야기 24_ 김방룡
태고보우에 의한 임제종의 범맥 계승 ②
- 167 중국선 이야기 57·법안종 ④_ 김진무
법안문익의 오도송과 계승
- 175 일본선 이야기 24_ 원영상
일본 황벽종의 조사 은원융기
- 185 백련마당_ 편집부
성철 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법회 봉행
- 190 후원 명단
- 192 후원 신청서

2013년 4월 11일 신고, 신고번호 종로 라00406

『고경』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전제 및 무단복사를 금합니다.

『고경』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력과 공생이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

—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다녀와서



원택스님_ 발행인 겸 편집인

오랜만에 서울사무실에 오니 책상 위에 푸르메재단에서 온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10월 29일 오후 4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하니 참석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아 들면서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 1층’이라는 단어에 눈이 쏘였습니다.

“아니 백양로에 언제 이런 지하 건물이 들어섰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엄스님에게 전화하여 “연세대 백양로에 지하시설이 생겼다는데, 그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검색해 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1963년에 연세대 정외과에 입학하여 1967년 2월에 졸업한 모교인만큼 관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일엄스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1. 1997년 5월 3일, 연세대 인문관에서 열린 춘계학술회의 모습.



사진 2. 춘계학술회의를 마치고 정심사 신도들과 함께한 사진. 출가하고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다.

추억의 백양로, 30년 전에는 지상으로 걸어서 이번엔 지하로

소남이 1972년 정월 보름에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처음 모교를 방문한 것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성철 종정 예하의 탄신 86주년을 기념하여 '선불교와 해체론시대의 서구철학'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가 1997년 5월 3일 연세대 인문관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가 주관하였는데, 당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진 3.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27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이룬 기적과 미래에 대해 기쁨을 나누었다. 사진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문제들을 선불교적 시각에서 정리, 분석해 보고자 하는 획기적이고 참신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세대 철학과에 재직중이며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연학실장이었던 신규탁 교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나 스님이 되어 백양로를 걸어 인문관을 찾아가는데, 백양목을 벗삼아 걷던 ‘추억의 등하곶길’은 어디로 가고 차량 통행으로 매우 복잡했던 기억입니다

일엄스님이 보내온 자료를 간단히 요약하면, “백양로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캠퍼스의 상징과도 같은 길인데,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밀려나는 꼴이 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백양로 지하화 사업이 완공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소납은 28년 만에 푸르메재단 창립 초대 이사로서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두 번째로 모교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졸업 후 30여 년 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백양로를 걸어서 갔고, 이번엔 상좌가 운전하는 차로 지상이 아닌 백양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르메재단과의 인연과 미안함

백양로 지하화 사업에 놀라고 주위를 신기하게 둘러보면서 지하 1층 행사장에 도착하니, 8인석 테이블이 총 30여 개가 놓여 있고 2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초청 자리에 앉아 자료를 뒤적여 보니, 소납은



사진 4.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필자. 사진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2004년 푸르메재단 발기대회에 참석하여 2005년 푸르메재단 창립 이사로 참여하여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직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세운 이력도 없이 세월만 보낸 게 아닌가 싶어 부끄럽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진은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이중에는 신부님과 목사님도 계신데 스님은 저 하나 뿐이어서 불교인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 차례 이사직을 반려하려 했으나 푸르메재단의 상임대표인 백경학 이사는 “스님 이름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라고 손사래를 쳐서 한 걸음 물러선 게 오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푸르메재단 설립과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그 연역을 짧게나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푸르메재단의 백경화 상임대표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CBS와 동아일보 기사를 지냈습니다. 1998년 6월, 2년간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통일전문기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마치고 귀국 한 달을 앞두고 백 대표(당시 35세)는 아내,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영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글래스고를 지나는 국도에서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기 위해 도로 옆에 차를 세웠는데, 아내가 잠시 자동차 뒤쪽으로 갔을 때 벤



사진 5.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 황혜경 씨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푸르메재단 임직원들.
사진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츠 승용차가 와서 사정없이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백 대표가 잃었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들이 차 밑에 깔린 자신을 빼내고 있었고, 아내는 두 차 사이에 낀 채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아내에게 기어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 안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 정신없이 기자의 본능으로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 사진들이 8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아내 황혜경 씨가 배상금을 받는 데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100일 동안 혼수상태였고 대수술도 세 번이나 받았는데, 첫 수술에서 다리를 잘라냈고, 두 번째 수술 전에는 영국 의사가 마음의 준비까지 단단히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수상태에서 세 번째 수술을 받은 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아내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며 깨어난 것입니다. 이후 독일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귀국해서 장애인 재활병원을 찾아보니 국내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독일과 영국에서 체험한 국내와는 다른 환경, 의료진의 태도, 의사가 아닌 환자 중심의 병원생활을 생각하며 국내에 장애인 재활병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2006년 부부는 8년 만에 받은 피해보상금과 백 대표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세운 회사의 지분을 합해 재단 설립 기금으로 출연하여 창립부터 2년여가 지나 요건이 갖추어져 푸르메재단을 출범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사고였지만 오히려 그 불행이 재단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백 대표는 나중에 이 사고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우물을 파보라는 '신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소납은 '신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며 관세음보살

의 무한한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을 찬탄하는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원력과 공생의 아름다움

푸르메라는 ‘푸른 산’이 우뚝 솟게 단초를 놓은 황혜경 여사는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 뮌헨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한국 신부님과 교민들이 와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제 딸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다리는 곧 자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의 친구도 ‘맞아요, 아줌마 다리는 곧 다시 자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과분한 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처럼, 2005년에 창립한 푸르메재단은 2012년 서울 종로에 푸르메 센터를, 2016년 서울 마포에 푸르메재단 벡슨어린이재활병원을, 2022년에는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차례로 건립하여 국내 장애인 의료, 복지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는 총 5만 1135명, 총 기부액은 1,124억원에 달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재활의료 지역사회복지, 자립, 장애가족 지원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오며, 20년간 총 815만 449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를 마치고도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립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푸르메소셜

팜은 이상훈, 장춘수 부부가 1만 1800㎡의 토지를 기부하고, SK하이닉스,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장애인 고용단, 에너지기술원 등에서 힘을 보탬, 많은 시민의 기부로 2020년 10월 착공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만큼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이 소셜팜의 특장점입니다. 소납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밝은 모습에서 방울방울 열리는 희망을 보고 기분이 절로 좋아진 기억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고 했던가요. 어리석어 보일 만큼 눈물겨운 한 부부의 원력과 노력은 결국 산을 옮기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백대표는 늘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은 시민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협심으로 이루어 낸 것이지요.”라고 하며 손을 모읍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해인사 큰스님 사리탑전에서는, 성철 종정 예하의 열반 32주기를 맞이하여 500여 명의 불자들이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며 3천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전하기 힘든 3천배이지만 ‘지심귀명례’ 선창에 맞춰 대중과 더불어 하다 보면 어느새 삼천배를 이루어냅니다.

그 힘을 원동력 삼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우리보다 좀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는 불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을사년 목탁소리를 마무리합니다. 

동안상찰 선사『십현담』강설⑧

회기迴機



성철스님_ 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6·7대 종정

회기라! 기틀을 돌린다고 해도 괜찮고, 돌려준다고 해도 괜찮고, 경계에서 한 바퀴 빙 도는 셈이야.

열반성리상유위涅槃城裏尙猶危

공부하는 근본 목적은 해탈解脫에 있습니다. 대열반大涅槃을 증득한다는 이것이 근본이거든? 그렇지만 선가禪家에서 볼 때는 열반성리涅槃城裏도 상유위尙猶危라, 열반성리涅槃城裏도 오히려 위태로운 곳입니다. 안정처安定處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열반이 좋다고 열반을 취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입지옥入地獄,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딴 데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에 있어서 영원한 안식처가 못 된다 이것입니다. 열반성리涅槃城裏를 부숴 버린 것입니다.



사진 1. 성철스님(해인사 대적광전).

매크상봉물정기陌路相逢勿定期

매크상봉陌路相逢이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열반성涅槃城을 증득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매크상봉은 어떠하냐 말입니다. 매크상봉陌路相逢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툅 만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확철대오廓徹大悟한 것을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래地如來地에 들어가 버리는 그것은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몰록이지만, 물정기勿定期라 했습니다. 그것도 마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권괘구의운시불權挂垢衣云是佛

그러면 부처라는 것은 과연 어떤 물건이나? 결국 우리가 견성見性해서 성불成佛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권괘구의운시불權挂垢衣云是佛이라 했습니다. 권權이란 것은 방편 즉, 거짓이라는 말이거든? 방편으로, 다 떨어진 때 묻은 옷을 툅 걸어 놓고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집에서 모시는 부처라는 것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다 꿈에서 꿈 장난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세운다고 세워 놓은 것이 부처는 아닙니다. 중생과 다름없고 오히려 축생만도 못하기도 합니다.

각장진어부명수卻裝珍御復名誰

각장진어卻裝珍御, 도리어 좋은 보배를 갖고 장엄을 해 놓고, 부명수復名誰, 그건 누구라 해야 되겠느냐? 각장진어를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괘구의權挂垢衣한 그것을 부처라 하지만 부처가 못 되

는 것이고, 각장진어(御裝珍御) 즉 좋은 옷을 입혀 장엄해 놓는다면 그건 또 누구라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각장진어를 부숴 버리는 소리지 추앙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모르고, 입도 뿔 수 없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아주 최후에 거기 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목인야반천화거(木人夜半穿靴去)

나무로 만든 장승이 밤중에 신을 신고 떠~억 가거든? 목인이 어찌 가는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석녀가 출가하고 목인이 장가간다고 말입니다. 「증도가(證道歌)」 강설할 때 목인방가(木人放歌) 석녀기무(石女起舞), 나무 장승이 노래 부르고 석녀가 춤을 춘다는 그런 얘기 했거든? 목인야반천화거(木人夜半穿靴去), 나무로 만든 사람이 밤중에 신을 신고 달아난다는 말입니다.

석녀천명대모귀(石女天明戴帽歸)

석녀(石女), 돌로 깎아 만든 여자는 하늘이 밝아오는 새벽에 대모귀(戴帽歸), 모자를 쓰고 떡 돌아옵니다. 하나는 신을 신고 달아나고, 하나는 모자를 쓰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

억천만겁에 언제든지 밝아 있는 달이, 푸른 못에 저 하늘의 달이 환하



사진 2. 남장사 석장승.



사진 3. 물속의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 사진: AI 생성 이미지.

게 비쳐 안 있나 말입니다.

재삼노룩시응지再三撈漚始應知

재삼노룩再三撈漚, 두 번 세 번 건져보고 걸러본다는 것입니다. 룩漚은 거를 룩 자인데, 달을 희롱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 세 번 건져보고 나니 시응지始應知라, 비로소 알겠더라. 그런데, 어떻게 알겠더라 하는 건 깨쳐보아야 알지, 피상적으로 말로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노룩撈漚은 달을 희롱하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 공중의 달을 원숭이가 암만 거머쥐려고 해도 거머쥔 수 있는가? 또, 물에 비친 달을 거머쥔 수 있나? 그런데, 일부 『벽암록』 해설에 거머쥔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거머쥔 수 없다고만 단정하면 영원히 근본적으로 틀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천태天台, 청량淸涼 화엄華嚴하고 나서 「증도가」할 때, ‘경리鏡裏에 간형견불난看形見不難이나 수중착월水中捉月 쟁염득爭拈得,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긴 한데, 또 그 자리만도 아닙니다. 그만 그래 놓고, 대강 말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나중에 실지 깨친 뒤에 하는 소리인데, 깨치지 않고 눈먼 봉사가 암만 들여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양선소汾陽善昭(947~1024) 같은 분은 우리 임제 정맥의 유명한 큰스님인데, 나중에 크게 깨쳤거든? 그래 네가 무엇을 깨쳤나 이랬더니 이 게송을 말했습니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 재삼노룩시응지再三撈漚始應知라. 난 이걸 깨쳤나 이것입니다. 그만큼 저 깊은 곳에서 하는 소리니까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바로 깨쳐야 알 수 있습니다. 卍

힌두교에서 불교국가로 전환한 크메르



주강현_ 해양문명사가

동남아불교사 이해의 첩경은 미얀마와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불교이다. 푸난과 찰파, 그리고 앙코르 세 나라는 시기를 달리할 뿐더러 민족 구성원 자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다. 그런데 세 왕국은 모두 힌두와 불교문명이 매개된 혼재 국가였다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크메르는 남부 메콩강과 캄보디아 남동, 라오스 일부에 걸쳐 있었다. 한국인의 보편적 착시는 국민국가 영역 위주로 사고하고 그들 역사의 계기적 변화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트남 남부,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가 상호 겹치는 대목은 역사적 영역 혼재, 인종적 혼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앙코르와트 관광에 나선다. 그런데 그 유적지는 힌두 문명과 불교문명의 혼재물이다. 앙코르와트도 힌두에서 불교로 전환한 경우이다. 앙코르는 톤레삽 호수 주변의 관련 유적에 전통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성 도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나가라(nagara)에서 유래한다. 나가라는 뱀에서 유래하였고, 이는 물과 연관된다. 앙코르와트 입구의 코브라상도 물을 상징한다.



사진 1. 뱀을 상징하는 나가. 불법의 수호자로 앙코르를 비롯하여 인도와 동남아 곳곳에 세워져 있다.



사진 2. 앙코르와트 사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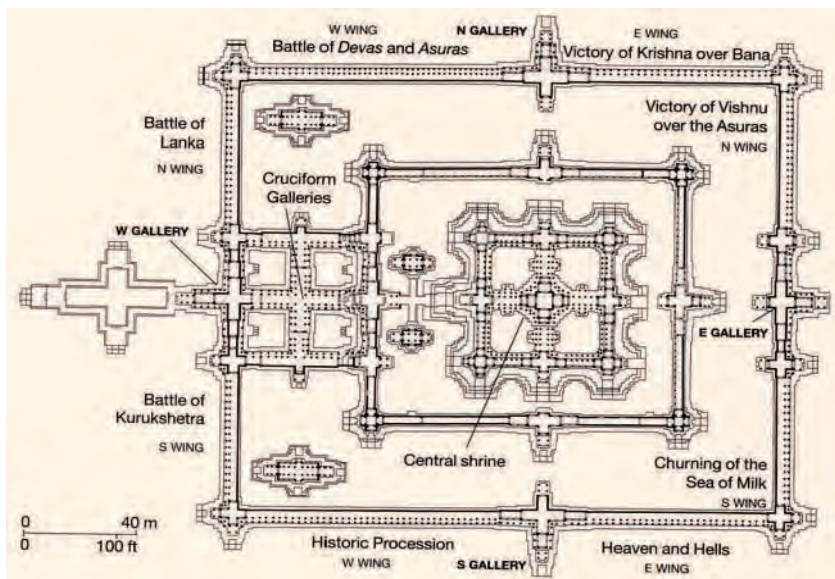


사진 3. 앙코르와트 유적의 도면.

크메르 한자 표기는 진랍眞臘이다. 푸난을 접수한 크메르족 조상적인 콤(Khom)족의 진랍 왕국은 본디 푸난 북쪽, 오늘날의 남부 라오스와 북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다. 진랍은 8세기 초반에 분열한다. 『구당서』에서 당 신룡神龍(705~706) 이후 육진랍과 수진랍으로 둘로 나뉘었다고 설명한다. 진랍의 기본 종교는 힌두교였다. 수진랍은 자바의 해상강국 사일렌드라 왕국에게 복속되는 운명을 겪는다. 그만큼 남방 해상세력의 힘이 강력하게 동남아에 미쳤다.

캄보디아 불교 전래 역시 아쇼카왕의 전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교의 본격화는 먼 후대의 일이다. 아마도 힌두교와 불교가 습합된 상태가 장기 지속되었을 것이다. 수리아와르만 1세(Suryavarman, 재위 1010~1050)는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로 국왕이 불교도임을 선언한다. 브라만교와 불교의 편견 없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대승불교를 숭앙하면서도 테라바다 불교의 확산도 용인하는 방식이었다.

12세기 초에 수리아와르만 2세(재위 1113~1150)가 들어서자 상황이 바뀐다. 왕은 힌두사원 앙코르와트를 완성한다. 힌두교에 의탁한 통치자였다. 앙코르(Angkor)는 산스크리트어로 ‘도읍’이라는 뜻이다. 와트(Wat)는 크메르어로 사원을 뜻하므로 앙코르와트는 ‘사원의 도읍’이라는 뜻이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시바와 비슈누 신에게 봉헌되었다. 앙코르와트 중앙의 다섯 개의 높은 탑은 힌두 신이 살고 있는 메루(Meru)산인데 불교의 수미산이다. 해자처럼 판 도랑은 바다를 상징한다. 바다 위에 메루산이 우뚝 솟은 형국을 뜻한다.

1177년 베트남 해안가의 찰과왕국이 크메르를 공격하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힌두 신의 영력이 떨어져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왕은 불교로 전환한다. 불력에 의탁하여 나라의 운명을 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찰과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불교가 민간 사이에 넓게 저변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불교로의 전환을 결정했을 것이다. 대승 불교가 테라바다 불교와 공존하면서 융성하였고 많은 승려들이 존재했다.

힌두사원에서 불교사원으로 바뀐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주변에 앙코르 톰(Thom)을 세우면서 기존의 힌두사원을 불교사원으로 바꾼다. 시바에 헌정한 부조는 불보살로 바뀐다. 12세기 말 불교 교리가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앙코르는 불교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 앙코르 톰(Angkor Thom)의 중심 사원은 자야와르만 7세에 의해 건립된 바이욘(Bayon) 사원인데 불교가 중심이었다.

바이욘은 크메르제국의 마지막 국가 사찰이었으며, 상좌부 성향이 강한 앙코르에서 대승불교 사찰로 지어졌다. 다만 바이욘은 불교사찰이면



사진 4. 앙코르와트 사원의 불상.

서도 힌두 요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크메르 고유의 토착신도 포함하였다. 캄보디아 사람은 자야와르만 7세를 크메르인을 수호하기 위해 극락정토에 온 보살이라고 믿었다. 왕 스스로 ‘위대한 지고의 불교도’로 자칭하였다. 자야와르만은 자신을 생불이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 썸파의 침략으로 무너진 왕조를 재건설하면서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자야와르만 7세의 의도가 반영된 사원이다.

사원 전면에 216개의 인면을 배치하였다. 이전에는 없는 양식이다. ‘앙코르의 미소로 불리는 이 불상들은 관음보살의 얼굴이자 동시에 왕 자신의 용안



사진 5. 앙코르와트 사원의 부조상.



사진 6. 앙코르 톨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이온 사원. 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가 건설했다.

을 본뜬 것으로 알려진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사방팔방으로 비추어 왕의 통치가 세계에 비치고 백성을 보살핀다는 대승불교 이념을 상징한다. 관세음보살을 통하여 통치자의 자비심과 위력을 과시한 크메르 제국 최후의 기념비적 불교유산이다.

바이온은 본질적으로 불교사원이지만 사원 부조에는 힌두교 모티프가 곳곳에 엿보인다. 건축 양식은 인도 영향을 받아들인 위에 건물 형태나 석조 장식 등에서 앙코르 왕조의 독자 양식을 발현하여 이룩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종교 성향과 인력 동원 능력, 종교적 열정과 국력, 뛰어난 예술 수준과 우주관, 도시의 구획 방식 등을 알려준다.



13세기 중반, 크메르 통치자 자야와르만 8세에 의해 힌두 신앙의 짧은 부활이 이루어졌다. 초기 크메르 제국의 힌두교 중심을 복원하고 앙코르를 힌두 중심으로 되돌렸다. 불교에 헌정되었던 바이온조차도 이 짧은 기간 동안 개종되었으며, 건축 장식에 많은 부처의 얼굴이 제거되었다. 왕의 단독 결정이라기보다는 힌두에 의탁한 브라만 지배세력의 불만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번 포교가 시작된 불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3세기 말까지 불교는 앙코르 도읍이 포기될 때까지 국교로 존재했다. 그리하여 크메르의 오랜 문화유산에는 힌두와 불교의 중첩된 이미지가 겹쳐져서 잠복되어 있다.

중국 사서에 기록된 진랍국의 역사

바이온 부조에 중국 상선이 보인다. 광둥이나 통킹만에서 온 중국 정크의 전형이다. 남중국해에서 인도차이나반도로 중국 상선의 뱃길이 이어졌다는 증거다. 크메르족과 중국의 영향 관계는 오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캄보디아 문제가 한국에서도 크게 부상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캄보디아는 오랜 친연성을 지녀왔다. 바이온 부조의 중국 상선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암시한다.

송대 『제번지』에 의하면, 진랍국은 부처를 근엄하게 신봉하여 매일 여인 2백여 명이 춤을 추며 공양을 드렸다. 그들을 아남(阿南)이라고 부르는데 기녀들이라고 하였다. 조여팔은 불전에서 불교의례를 집행하는 여성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그 나라의 승려와 도사들은 주법(呪法)의 영험함이 심하다. 승려 중에 옷이 누런 자는 아내를 들일 수 있고, 옷이 붉은 사람은 사원에서 거주하며 계율이 정밀하고 엄격하다.”고 하였다. 대처승과 청정승이 별도로 존재했고, 승려와 달리 도사라는 존재가 별도로 존재했다.

13세기 몽골 침략을 받아 크메르는 항복을 하며 원제국에게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했다. 테무르 칸은 주달관(周達觀)(1266~1346)에게 동남아 군사 정보와 정치 상황, 지리, 물산 등을 기록하고 오라는 칙령을 내리며 1285년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제국통치에 들어온 크메르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 정보는 물론이고 나라 전반에 걸친 현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달관은 1년간 머물면서 그곳을 통치하던 인드라와르만 3세 곁에 1297년 7월까지 머물면서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를 남겼다. 진랍제국을 이해하는 기본 사료다. 당시에 진랍의 운명은 기울고 있었다. 주달관




사진 7. '크메르의 미소'로 불리는 바이온 사원의 거대한 얼굴 조각상.

은 시암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평야를 만났다. 『진랍풍토기』에는 이 시기 캄보디아가 정체 상태로 있었다는 상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지도 또 너무 몰락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불교 또한 그러한 상태였다. 암송 문헌이 매우 많다는 것은 다양한 경전이 들어와 있었음을 뜻한다. 아마도 남방 계통의 빠알리어 경전이 들어왔을 것이다.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패엽경(貝葉經)이 통용되었다는 뜻이다.

“나라 중심에는 금탑 1좌가 있고 옆에는 석탑 20여 개가 있으며, 석실 100여 칸이 있다.”고 하였다. 송·원대까지 이어지던 수도 앙코르는 15세기에 이르러 포기된다. 수도의 퇴락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웃 시암의 침략 때문이다.

장기 지속한 앙코르와트의 재발견

앙코르와트는 완전히 정글 속에 묻힌 채 인적이 끊겨버린 여타 크메르 사원들과는 다르게 단 한 번도 완전히 버려진 적은 없었다. 멸망 이후, 앙코르에 있던 많은 전적이 시암의 수도 아유타야로 옮겨졌다. 대항해시대 이래로 유럽인의 발길이 잦았으며, 1863년 프랑스 식민당국에 의해 대대적 ‘재발견’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극동학원이 주도하여 복원과 보존 작업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 **주강현** 해양문명사가. 분과학문의 지적·제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융합적 연구를 해왔다.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학 등에 기반해 바다문명사를 탐구하고 있다. 제주대 석좌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APOCC) 등을 거쳤다. 『마울로 간 미륵』, 『바다를 건너 붓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 등 5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2024 뇌허브교학술상을 수상했다.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김춘식_ 동국대학교 교수



만해 선생이 내 백씨를 보고,
“범부, 중국 고승전高僧傳에서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이니 분신공양焚身供養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다.
내 백씨는 천천히 입을 열며,
“글쎄요. 형님이 못 보셨다면야...”
하고 자기도 기억이 없노라는 것이다.
내가 참견을 했다.
“소신공양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그 대답을 맡았다.
“옛날 수좌수들이 참선을 해도 뜻대로 도통道通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부처님께 재물로 바치는 거라. 성불成佛 할라고 말이다.”

“불 속에 뛰어듭니까?”

“그렇게 하든 공양이 되나?”

“그럼 어떻게?”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앉아야지. 머리 위에 불덩어리 든 향로나 그런 걸 갖다 씌워야지.”

“?...”

나는 더 물을 힘이 나지 않았다. 별장계 단 향로 따위를 머리에 쓴다고 생각하자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곧 고꾸라지지 않고 앉은 자세를 유지해 낼까 ... 나는 아래 턱이 달달달 떨어져서 견딜 수 없었다.¹⁾



사진 1. 김동리의 형이자 소설가인 김범부
(1897~1966).

한국문학사에서 대표적인 불교소설로 꼽히는 「등신불」의 탄생 장면을 김동리는 ‘만해 한용운’과 그의 큰 형 ‘김범부’의 위와 같은 대화에 대한 회고에서 찾는다. 만해의 질문에 대한 김범부의 대답, 그리고 동리의 질문에 대한 당시 도술사 주지였던 최범술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등신불」의 소설화에 관련된 창작 모티프이면서 그 자체로 ‘불교와 문학’이 만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1) 김동리, 「만해 선생과 ‘등신불」, 『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181~182쪽.



사진 2. 1961년 11월 《사상계》 101호에 게재된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

김범부, 만해 한용운, 최범술, 범산 김법린 등이 다술사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1938년 당시의 정황은 일제의 탄압이 극도로 심해져서 불교계, 문학계, 출판, 문화 등이 모두 친일의 강요와 압력에 놓인 시기였다. 일찍이 선학원을 중심으로 김범부, 한용운, 김법린, 최범술 등이 불교의 유신 등을 추진하다가 선학원이 친일 쪽으로 기울면서 경성을 떠나서 해인사의 말사인 다술사에 내려와 집결한 것인데, 이런 정황은 당시 다술사 주지였던 최범술의 글²⁾에 잘 나타난다.

김범부와 항일불교단체 만당^{만당}을 이끌던 한용운, 그리고 승려 최범술의 대화 장소에 김동리가 동석^{동석}을 했고, 그 결과가 약 20여 년 후인 1961년 「등신불」의 발표로 나타난 것이다. 서정주가 '신라의 내부'를 탐색한 결과라고 했던 시집 『신라초』를 출간한 것도 1961년이라는 점에서, 김

2) 최범술, 「청춘은 아름다워라-최범술 43」, 『국제신보』, 1976. 1.26~4.6

범부를 통해 ‘신라’와 ‘삼국유사’를 알게 된 ‘동리와 미당’이 같은 해에 내놓은 작품이 시집 『신라초』와 소설 『등신불』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문학사적인 ‘사건’ 혹은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정주와 김동리의 신라와 불교



사진 3. 소설가 춘원 이광수(1892~1950).

신라의 상상적 복원을 시로 쓴 ‘서정주’, ‘만해와 김범부’의 대화에서 ‘소신공양’과 보살행, 성과 속의 경계 없음을 모티프로 『등신불』을 창작한 김동리는 모두 ‘김범부’를 경유한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불교를 ‘문학’으로 옮겨 놓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작업은, 소설에서는 설화와 옛이야기에 머물던 ‘불교적 서사’를 ‘현재적 문제’로 옮겨 놓았고, 시에서는 ‘설화의 수사와 노래의 정신’을 현대시에 접목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문학사의 시와 소설을 이끌면서 ‘문협정통파’라는 중심의 신화를 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석전 박한영, 송만공, 만해 한용운, 해인사의 백용성 등 불교계 유신 운동을 이끈 혁명적 인사와 선학원 강사로 있던 김범부 등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이 두 사람의 이후 ‘문학세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불교소설은 양건식의 「석사자상」, 「한일월」, 「아의 종교」, 「오!」를 시작으로 하여, 이광수의 「무명無明」, 「육장기鬻莊記」, 「난제오亂啼鳥」, 「꿈」 등의 중·단편과 「사랑」, 「이차돈의 사」, 「원효대사」 등의 장편소설, 한용운의 「박명」 등, 김동인의 「석가여래」, 「논개의 환생」, 「낙왕성추야담落王城秋野談」, 「조신의 꿈」, 「제성대帝星臺」, 현진건의 「무영탑」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광수는 특히 「마의태자」, 「세종대왕」, 「이차돈의 사」, 「원효대사」 등 역사소설류와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한 「꿈」 등의 작품을 발표한다. 이 밖에 그가 쓴 「무명」, 「사랑」, 「육장기」, 「난제오」 등의 작품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통해 당시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불교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광수의 불교소설 개척의 공로에 견주어 본다면, 김동리는 1961년 이후 「등신불」, 「극락조」, 「눈 오는 오후」, 「저승새」, 「미륵랑」, 「호원사기」 등 보살행을 통한 구원, 수행과 인간적 고통의 극복을 위한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 예술혼과 불교적 해탈의 연결, 윤회론을 담은 소설 등 주제와 세계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인간적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탈을 위해 고투하는 ‘종교적 수행과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탐구’로 정리되는데, ‘삶의 구경究竟 탐구’라는 그의 문학에 대한 신념은 이 점에서 ‘불교적 구도’와 상당히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선학원과 김동리, 서정주의 첫 만남

김동리와 미당 서정주의 첫 만남은 ‘선학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첫 만남은 이 두 사람이 이후 한국문학사에서 ‘불교’를 체득하고 그것을 문학정신에 녹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김동리는 형 김범부를 찾아서 상



사진 4. 만공스님과 선학원 유교법회.

경하고, 서정주는 학교를 그만둔 채 경성에서 녕마주이를 하다가 박한영 선사의 부름을 받으면서 불교계와 인연을 맺었고 또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친구가 된다.

또 이 둘의 만남을 연결해 준 사람이 미사 배상기인데, 그는 범부의 제자이면서 석전 박한영에게 미당을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선학원 강사로 있던 김범부, 조선 불교 교정이면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인 박한영이 각각 김동리와 서정주의 후원자였고, 이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면서 두 사람의 후원자인 김범부와 박한영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김범부로부터는 ‘경주’ 즉 서라벌이라는 고대 신라의 특별한 장소성과 화랑정신, 국선도, 『삼국유사』 등의 세계관을 전수받았다면, 석전 박한영과의 인연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한때 출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품는다든가 불교 경전과 교리를 접하고 체득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도 선학원을 오가게 되면서 당시 ‘불교 유신’을 통해 ‘민족 불교’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던 한용운, 백용성, 송만공, 박한영, 김법린, 최범술 등의 불교계 지식인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후 이 두 사람의 문학적 세계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체험이 된다.

미당 서정주는 한용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금강산으로 송만공을 찾아가 만났고, 박한영에게 직접 불교의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반



사진 5. 김법린(1899~1964). 문교부장관과 동국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사진 6. 효당 최범술(1904~1979). 독립운동가로 제헌의원을 지냈다.

면, 김동리는 형 김범부를 통해서 선학원 인맥과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쉽게 갖게 되는데, 서정주에게는 ‘선운사’, 김동리에게는 ‘해인사’와 ‘다솔사’가 각각 지역적인 연고와 불교적 상상력의 바탕이 되는 원체험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니체의 운명애와 영통, 그리고 저승이 이승을 이기는 곳

김동리가 김범부를 통해 한용운을 만나고 다솔사로 낙향한 행보는 1938년 당시로 치면 김동리에게 친일을 면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솔사와 해인사 생활을 통해 ‘신라’라는 상상세계를 구축하고, ‘저승이 이승을 이기는 곳’으로서의 ‘경주의 장소성을, ‘생의 구경 탐구’, ‘제3휴머니즘’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게 해 준다. 형 김범부의 ‘신라’와 ‘삼국유사’는 김동리와 서정주에게 각각 ‘신라’를 자신의 유년기 체험이 시작된 고향, 경주와 고창을 재창조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 결과는 1961년 김동리의 『등신불』을 시작으로 하는 불교소설과 서정주의 『신라초』로 나타난다.

김동리의 문학사상은 무속, 국선도의 선仙 사상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불교적인 해탈을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그의 생각이, ‘죽음’, ‘영혼’, ‘귀신’, ‘운명’ 등 삶이나 인생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또 다른 저편의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제3휴머니즘은 서정주와 마찬가지로 ‘니체’적인 운명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리에게 「등신불」은 이런 운명적 제약에 대한 순응과 체념을 바탕으로 둔 ‘자비’와 ‘보살행’을 다름으로써 전혀



사진 7. 김동리(1913~1995).

부처 같지 않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육신을 그대로 간직한 대상이면서 ‘죽음이 삶을 이기는’ 역설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킨 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주는 ‘신라’를 통해 불교적 가치와 세계관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풍류와, 삶의 속박을 초탈하는 ‘영통’을 시로 구현한다. 반면, 김동리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이기는 정신의 근거로 ‘죽음과 저승’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탐구를 ‘생의 구경 탐구’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승이 이승을 이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삶이 모든 가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삶을 이기는 죽음의 힘, 그 능력을 ‘영통’이라고 한다면, 구도나 해탈의 지향은 ‘운명적인 한계’를 ‘숙명’이 아니라 ‘해탈과 도전’의 조건으로 인식하게 된다.

김동리 소설의 갈등은 이 점에서 삶의 표면을 넘어서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추구로 연결되는데, 이런 특성은 종종 불교적인 구도 행위로 나타나거나 그런 구도를 ‘실존적 기투’나 니체적인 ‘운명애’로 표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古鏡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성철대종사의 법어집

쉬운 말로 만나는 성철스님의 가르침

자기를 바로 봅시다

퇴옹성철 | 15,000원

영원한 자유

퇴옹성철 | 13,0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 6,000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퇴옹성철 | 6,000원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퇴옹성철 | 6,000원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스님 엮음 | 12,000원

이뤄꼬

퇴옹성철 | 6,000원

선과 불교사상의 정수를 밝힌 성철스님의 법어집

백일법문(상 · 중 · 하)

퇴옹성철 | 각 권 15,000원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

퇴옹성철 | 15,000원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본지풍광 설화)

퇴옹성철 | 38,000원

성철스님의 임제록 평석

퇴옹성철 평석, 원택스님 정리 | 25,000원

성철스님의 신심명 · 증도가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원택스님 | 18,000원

성철스님과 나

원택스님 | 9,000원

성철스님의 짧지만 큰 가르침

원택스님 엮음 | 5,000원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

원택스님 책임편집 | 13,000원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 42,000원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 13,000원

성철스님의 책 이야기

서수정 | 15,000원



바위에 새긴 미소 12

양현도 사진작가

순천 선암사 마애불

높이 7m,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고려시대

이윤 대신 공덕을 나누는 태국의 아속공동체



조현_ '나를 찾는 치유 프로그램'(나찾사) 총감독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태국의 방콕엔 화려함의 극치미를 뽐내는 왓포, 왓아룬, 에메렐드 사원 등 400여 개의 불교 사원이 관광객의 시선을 끈다. 태국은 전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신앙하고, 전국에 3만 5천여 개의 사원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다. 태국인들에겐 불교가 종교를 넘어 생활 그 자체여서, 태국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머리를 깎고 짧게는 3주, 길게는 3달 정도씩 출가한다.

동남아 대표적 불교국가 태국

태국불교는 달라이라마의 티베트불교, 마하시, 고엔카 등의 미얀마 불교와 틱낫한의 베트남불교, 스즈키 다이세쓰의 일본 선불교 못지않게 근현대 서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아찬 사오(1860~1942)와 태국불교의 숲 속 수행전통을 부활시킨 아찬 문(1870~1949), 아찬 마하부와 나나삼판



사진 1. 태국 방콕의 화려한 사찰 왓아룬(Wat Arun)의 전경. 사진: agoda.

노(1913~2011), 아잔차(1918~1992) 등 근현대 고승들이 수행 전통을 되살렸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서양인 제자인 아잔 수메도,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아잔 브람 등에 의해 마음챙김을 전세계에 전해왔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 불교국가 태국에서 타종교와 경쟁없는 사실상 독식은 주류 불교의 나태와 부패를 낳았다. 방콕의 황금사원들에 가면 빨래줄에 지폐 수천 장을 만국기처럼 걸어 놓는 모습을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다. 몇 개월 전엔 태국에서 유명 사찰의 주지 등 고위급 승려 9명을 유혹해 은밀한 관계를 맺고 1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해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위라완이란 35세 여성이 붙잡혀 세계적인 가십기사가 됐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정신적인 기둥인 불교와 승려의 타락과 부패는 곧 국가적 재난을 앞당길 수 있다. 이때 태국불교에서 기성종교에 맞



사진 2. 아속공동체의 설립자 포티락(1934~2024) 스님.

서 새로운 바람을 불리일으킨 게 아속공동체다. 아속은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속공동체는 청년시절 태국 연예계 스타로서 누리던 명예와 부를 버리고 출가한 만 30세의 청년 몽콘 락퐁(Mongkhon Rakpong)에 의해 1974년 탄생했다. 범명 포티락(1934~2024) 스님이 무욕과 청빈,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설립한 아속공동체는 태국에 흩어져 있는 9개의 공동체 마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속공동체는 붓다가 말한, 고통 없는 평화를 위한 무욕과 공덕을 삶에서 실천하는 드문 단체다. 주류 불교의 타락을 답습하지 않고 비판하면서 전혀 다른 불교적 삶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에 감명 받은 많은 이들이 신불교운동이라고 할 만한 아속공동체에 합류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청백리로 유명한 잠롱 스리무앙 방콕시장이었다. 군 장성 출신으로 출세 지향적이던 정치인 잠롱 스리무앙 전방콕시장은 포티락 스님과 아속공동체원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 무소유·무욕의 삶을 방콕시장이 되



사진 3. 스님이 기거하는 쿠티.

어서도 실천했다.

시사아속공동체에 가 보니, 20여 만 평의 드넓은 마을에 공동 홀과 공동 식당, 학교 등이 모여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집들과 공장, 학교, 숲, 논밭이 방사선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시사아속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내려다보면 허브 약을 만드는 간이 공장과 그 약을 파는 가게가 나란히 있었다. 또 유치원과 초등, 중고등, 기술학교 등 학교가 3개 있었다. 새벽이면 유치원생까지 빗자루를 들고 나와 거리를 쓸거나, 공용 강당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노동을 강제하지 않지만 모두가 스스로 일손을 거들었다. 공동체 가장자리엔 드럼과 기타, 북 등을 갖춘 야외 음악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자주 그곳에 모여 신기를 발산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원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건 아니었다. 하루 한 끼만 채식을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스님과 시카매트(사복 입은 여성 독신수도자)들이 있었다. 한번은 학생들이 농장에 간 데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따라가 보니, 교장 선생님인 시카매트가 큰 밭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말 없는 실천적 삶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 주는 듯했다. 시카매트는 출가 비구니가 아니었고 유니폼을 입지도 않았는데, 맨발로 다니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부니움(공덕주의)을 추구하는 아속의 경제

공동체 정문 옆엔 시사아속에 속하는 대형 마트가 있다. 시사아속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시사아속 공장에서 만드는 의약품이나 세제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의류나 생필품도 판매했다. 이 대평마트는 싸기로 유명하다. 아속의 경제 철학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이니 너무도 독특하다.

아속공동체는 ‘부니움 네트워크’로도 불린다. 그들의 경제 원리가 ‘부니움(공덕주의)’이다. 아속공동체의 경제 행위는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즉,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원가를 공개하고, 농산물은 원가 이하에 팔거나 거저 주기도 한다. 명절 때는 모든 식품을 1바트에 판매한다. 1바트는 우리 돈으로 30원가량으로, 타이에서도 과자 하나 사먹기 어려운 푼돈이다. 아속은 이윤을 높이려 할수록 부도덕해지고 영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자기의 탐닉을 최소화할수록 ‘영적 이득’이 증가한다고 여긴다.

아속은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실천을 가장 중시한다. 시사아속 입구엔 ‘의·식·주·약’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아속이 생산하는 것 가운데 소비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제품은 없



사진 4. 아속공동체 소속 스님들의 탁발 풍경.

다. 하나같이 삶의 필수품뿐이다. 사람들은 허영을 채우려 소비를 늘리며 생명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지만 아속인은 많이 팔아 많이 남기고 많이 소비하려는 갈망에서 벗어나는 소박한 삶을 몸소 실천한다. 공동체원들은 자신의 생산품들로만 삶을 영위하는 ‘자족경제’를 꾸린다. 그리고 그 혜택을 고을 이웃과 나눈다.

아속공동체 안엔 밖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님들과 시카매트, 이에 동조하는 많은 공동체원이 있다. 그래서 부니움 경제가 실현된다. 이토록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봉사하면서도 공동체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로 아시아 전체가 기우뚱할 때조차 아속은 조금도 장애 없이 발전해 자족 경제의 힘을 보여줬다. 부니움 네트워크는 현재 30개의 공동체와 9개의 학교, 6개의 채식레스토랑, 4개의 유기농비료공장, 3개의 쌀 방앗간, 2개의 허브 의약품 공장, 하나의 병원, 160헥타르의 농장을 갖추고 있다.

시사아속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됐다. 그 아침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로 길을 쓸며 청소하는데, 그 노동의 현장엔 스님들도 누구나 다름없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출가자들은 직접 마당을 쓸고, 돌을 나르고, 건물을 고치는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남방 불교권인 타이에서 통념상 출가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관습에서 벗어나 매사 솔선수범하고 있다.

아속은 스님과 일반인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5개의 마을을 비롯한 아속공동체엔 갈색 승복을 입은 출가 비구와 비구니 100여 명 외에도, 승



사진 5. 탁발 후에 공양하는 모습.



사진 6. 젊은 시절의 포티락.

복을 입지는 않지만 무소유를 실천하며 헌신하는 독신 여성들인 30여명의 시카매트, 또 가족들과 함께 아속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속의 공장에서 일만 하는 노동자들, 밖에서 살지만 아속에 교사로 참여하는 사람들, 아속에서 살지만 직장은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토록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포티락이 태국에서 기성불교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방법은 철저한 계율과 무욕, 무소유적 삶이다. 포티락은 애초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 부친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다. 어머니는 열 살 때 세상을 떴다. 그 아래로 6명의 동생이 있었다. 소년 가장인 그에겐 험진 세파를 홀로 뚫고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최고 연예인의 삶을 버리고 출가한 포티락

그는 온갖 일을 하며 동생들을 돌봤다. 예술가가 되려는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술대학을 마치고 애초 그림을 그렸던 그는 작곡가와 티브이 진행자로 데뷔했는데, 단기간에 타이 최고가 됐다. 그는 방콕에서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며 최고급 차를 굴렸다.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6명의 동생도 그의 돌봄으로 부유한 삶을 누렸다. 그런데 타이 안방에서 스타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그는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되어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부와 명성과 안락이 왕



사진 7. 일하고 있는 아속공동체 사람들.

자 고타마 붓다를 정복할 수 없었듯이 나 또한 정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방송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선언했을 때 모두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는 욕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교 국가인 타이에서 스님도 아닌 젊은 전직 방송 엔터테이너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승복은 중요치 않지만, 사람들에게겐 승복이 중요하다며 출가를 단행했다. 출가 전 어떤 결심을 했든 출가 후엔 승복으로 얻는 대접에 빠져 한 생을 보내고 마는 게 출가자의 일생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는 당연한 행보에서 또 벗어났다. 그는 2년이 되자 명상을 마쳤다고 했다. 공부를 마쳤다는 것이다. 드디어 명상과 진리를 삶에서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승가에서 파문당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빙자해 탐욕을 채우는 타락을 꾸짖었다. 그는 “당근은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했기에 내가 사용할 것은 회초리다.”라고 말하며 그 자신은 “아기들이 잠들게 요람을 흔들어주는 보모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깨어 있기 위해

철저히 하루 1식만 하며 계율에 철저했고, 아속의 다른 스님들 모두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는 “너무도 강한 악의 흐름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콕포스트〉의 한 기자는 “타이에서 구호품을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미신을 이용해 돈을 벌고,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비싼 차를 타고,



사진 8. 포티락 스님과 필자.

보시금을 빼돌리는 승려에게 포티락은 가장 곱끄러운 인물이다. 그는 성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어떤 미신적인 예식도 배제하고 자신에게 철저하며 이웃에게 헌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티락이 어떤 삶을 살든 주류 교단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불교에서 그나마 고요히 마음을 챙기는 승려들은 존중받을 만하다. 포티락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어느 정도 명상을 하면 삶 속에서 명상하며 붓다가 말한 무욕의 평화 세상을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아속이 정말 특이한 것은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실비 외에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속공동체의 규정은 그가 누구라도 일곱 번 방문하기 전엔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속에선 손님들이 기부하는 것보다 함께 노동하며 참여하는 삶을 더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古鏡

○ **조현** 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수행·치유웹진인 휴심정(well.hani.co.kr) 및 유튜브 '조현TV휴심정' 운영자. '나를 찾는 치유 프로그램(나찾사) 총감독. 저서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들을 위한 마을공동체탐사기'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 수행·치유 현장 르포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스 순례기인 『그리스 인생 학교』, 『은둔』, 『하늘이 감춘땅』 등이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선정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에 선정됐다.

종교의 심층을 통섭한 참 스승 류영모



오강남_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는 우리나라가 낳은 특출한 종교 사상가입니다. 다석학회 회장 정양모 신부에 의하면, “인도가 석가를, 중국이 공자를, 그리스가 소크라테스를, 이탈리아가 단테를,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독일이 괴테를, 각각 그 나라의 걸출한 인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한겨레가 그에 버금가는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은 다석 류영모”라고 했습니다.

다석의 삶

영모는 1890년 3월 13일, 서울 숭례문 수각다리 인근에서 아버지 류명근과 어머니 김완전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05년 15세에 개신교에 입문하여 연동교회에 다녔습니다. 1910년부터는 삼일운동의 33인 중 하나가 된 남강 이승훈이 세운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의 초빙을 받아 과학과 수학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오산학교에 미리 와 있던 춘원 이광수를 만나 동료 교사로서 함께 지냈습니다.

류영모의 영향 아래 주기철, 함석헌, 한경직 같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류영모 자신은 오산학교를 떠나면서 자기가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던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지 7년 만의 일입니다.



사진 1.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1890~1981).
사진: 다석학회.

1912년 오산학교에서 나와 일본 도쿄 물리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다니다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버렸습니다. 예수처럼 참나, 알나를 깨닫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데 대학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동굴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진리를 깨친 후 유학을 포기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1921년 류영모는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 봉직하고 있었는데, 일제 당국으로부터 교장 인준을 받지 못해 결국 1년 남짓 머물다가 교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졸업반 학생이었던 11년 연하의 제자 함석헌을 만나 평생 가장 가까운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습니다. 오산을 떠날 때 배웅 나온 함석헌에게 “내가 이번에 오산에 왔던 것은 함석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던가 봐.”라 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류영모는 1928년부터 YMCA 연경반을 지도하기 시작, 1963년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등 그리스도교 경전은 물론 『도덕경』 등 이웃종교의 경전도 강의했습니다.



사진 2. 1930년 오산고보 전경. 사진: 독립기념관.

1937년 겨울 어느 날 《성서조선》 모임에 참석했다가 김교신 등의 간청에 못 이겨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이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류달영의 보고에 의하면, 류영모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씨앗을 넣어주셨다는 뜻이라고 하고, 사람은 제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씨앗을 키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크게 깨친 바가 있어 2월 17일부터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는 일일일식一日一食을 실행하기로 하고 다음 날에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해혼解婚을 선언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맺었으면 혼인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오누이처럼 산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해혼을 실행한 것은 ‘홀로’ 은둔 수행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독자 됨, 홀로 섬, 고독은 종교사를 통해 볼 때 선각자들이 거쳐야 할 운명인 셈입니다.

1943년 음력 설날 류영모는 일식 日蝕을 보려고 서울 북악산에 올라 갔다가 안개가 온 장안을 덮고 있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불끈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솟아오른 태양으로 황금빛이 된 하늘, 안개로 황금 바다를 이룬 땅, 그 사이에서 자유 자재로 유영하다가 허공 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히 천지인 天地人 삼재 三才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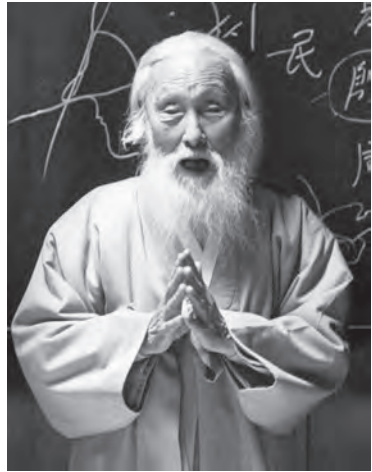


사진 3. 함석헌咸錫憲(1901~1989).

되는 경험이었습시다. 류영모 사상에는 삼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십자가는 사람(1)이 땅(ㅡ)을 뚫고 솟아올라 둥글고 원만한 하늘(·)로 통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풀었습니다.

류영모는 죽기 얼마 전부터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1980년 아내 김효정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석헌이 장례를 주재했는데, 류영모는 아내의 죽음을 알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6개월 후인 1981년 2월 3일, 류영모는 육신의 옷을 벗고 ‘빈탕한데’에 들어갔습니다. 40년간 하루 한 끼씩 먹고 산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산 기간은 90년 10개월 21일, 날수로 3만3천2백 일이었습시다.

그의 가르침

이제 그의 특별한 가르침 몇 가지만을 예로 들면서 그의 가르침이 세계 종교사에서 심층 종교가 갖는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을 재확인하기로 합니다.

첫째, 하느님은 ‘없이 계신 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류영모는 하느님을 두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쑤 혹은 도가에서 말하는 무^無와 마찬가지로 ‘있음’과 ‘없음’의 어느 한쪽만의 범주로 제약할 수 없는 궁극실재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결국 있음과 없음을 함께 아우르는 말로 ‘없이 계심’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진공묘유^{眞空妙有}라는 말의 실감 나는 우리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은 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류영모는 삶을 놀이나 잔치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일 (...)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 활동하는 것을 죄다 놀이로 볼 수 있다.”, “이 지구 위의 잔치에 다녀가는 것은 너, 나 다름 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묶고 묶이는 큰 짐을 크고 넓은 ‘한데’에다 다 싣고 흥가분한 몸으로 놀며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당에는 이 몸까지도 벗어버려야 한다. (...) 다 벗어버리고 흥가분한 몸이 되어 빈탕한데로 날아가야 한다.” 그는 이런 생각을 ‘빈탕한데 맞춰 놀이^{空與配享}’로 요약합니다. 하느님이신 공과 더불어 짝을 지어 놀이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歸天}」의 마지막 구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셋째, 류영모는 ‘가온 찍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ㄱ’은 하늘, ‘ㄴ’은 땅, 그 가운데 찍힌 점 ‘·’은 사람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한 점, 순수한 주체로서의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본연의 일어나는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에서도 벗어나고 여기저기라는 공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로운 존재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eternal now)’에 머무는

때 묻지 않은 참나를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인데, ‘오늘’은 ‘오+날’, ‘오~영원!’입니다.

넷째, ‘죽어서 다시 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거의 모든 심층 종교에서는 우리의 ‘이기적 자아(ego)’, ‘작은 목숨(small life)’, ‘작은 자아(small self)’에서 죽고 큰 ‘목숨(Life)’, 큰 ‘자아(Self)’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류영모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하



사진 4. 다석 류영모.

나가 바로 몸나, 제나에서 죽고 일어나 ‘숫남’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석 류영모는 모든 것이 “하나로 시작해서 종당에는 하나로 돌아간다[歸一].”고 합니다. 심층 종교의 공통분모 격의 가르침입니다.


여섯째, 예수를 ‘믿는 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고치면 ‘예수에 대한 믿음(faith in Jesus)’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던 ‘예수의 믿음(faith of Jesus)’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가진 믿음에 따라 십자가에 달린 것같이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 십자가에 달림이 중요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류영모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승천과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랐으면 우리도 예수처럼 하늘로 솟아올라야 마땅하거늘 땅에 주저앉아 그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운 님 따라 오르는 것이 옳

은 일인데도 오리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생각과 ‘바탈퇴움’의 가르침입니다. 류영모에게 있어서 ‘생각’은 ‘각을 낳는 행위’, ‘깨침을 얻는 행위’, ‘이기적인 제나에서 참나와 하나 되는 숯남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내 속에 불이 붙어 옛날의 내가 타고 새로운 내가 탄생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의 불이 타고 있으면 생명에 해로운 것은 나올 수 없다.”, ‘바탈퇴움’, “나무의 불을 사르듯이 자기의 정신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 바탈이 타지 못하면 정신을 잃고 실성失性한 사람이 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유불도 기독교 회통會通’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석 류영모는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먹는다.”, “예수, 석가는 우리와 똑같다 … 유교, 불교, 예수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오직 정신을 ‘하나’로 고동鼓動시키는 것뿐이다. 이 고동은 우리를 하느님계로 올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라 하는 종교 전통별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표층 종교나 심층 종교냐를 따지고, 심층일 경우 그것이 어느 전통이든 모두 우리를 참 하나와 하나 되게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류영모는 참으로 우리에게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의 가르침으로 발돋움하라고 일러주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 오강남 서울대 종교학 석사, 캐나다 맥매스터대에서 ‘화엄법계연기에 대한 연구’로 Ph.D. 학위 취득. 저서로는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세계종교 둘러보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나를 찾아가는 심우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번뇌를 부수고 악귀를 조복시키는 깃발



구미래_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야외에서 의례를 봉행할 때면, 거대한 괘불과 그 아래 공양물을 갖춘 재단齋壇은 하늘과 산을 배경으로 대자연의 성전聖殿이 된다. 불단 좌우에는 묵직한 번幡과 당幢이 포진하고, 허공을 가로질러 크고 작은 오색의 종이 번이 바람에 나부끼며 장관을 이룬다. 도량을 감싼 번들은 공동체의 소망을 펼쳐나갈 종교 축제의 위용과 환희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요소이다.

의례의 축제성을 고조시키는 요소

번은 불보살의 위덕威德을 나타내고 도량道場을 장엄하는 깃발이다. 의례에 청해 모시는 참배 대상의 명호를 주로 쓰며, 불화나 길상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한다.

『아함경』에 “바라문이 인간에 이기는 법을 깨달았을 때 옥상에 번을 세워 이를 사방에 알렸다.”라는 내용이 있고, 『유마경』에서는 “외적을 물



사진 1. 삼화사 수륙재의 상단 번들.





사진 2. 진관사 수록재의 다양한 번들.

리쳤을 때 승번勝幡을 달았듯이 도량의 마귀를 항복시키는 것도 같은 뜻이니, 불교에서 승번은 항마降魔의 표시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대 인도에서 전쟁의 무훈武勳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던 번을 불교에서 수용해, 법왕인 부처가 모든 번뇌를 부수고 악귀를 조복시킴을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의 번은 도량을 외호하는 결계結界의 의미로 출발하여, 오늘날 의례에서 빠질 수 없는 장엄 용구로 자리 잡았다. 규모 있는 전통 사찰에는 직물로 조성된 번이 소중한 유물로 전승되고 있다. 오방색 비단에 글씨와 갖가지 문양을 수놓고, 유소流蘇라 불리는 매듭과 술을 늘

어뜨려 더없이 화려하다.

번의 형태는 긴 장방형으로, 각 부위의 명칭을 인간의 신체에 대입하여 부른다. 명호를 쓴 몸판을 번신(幡身)이라 하고, 삼각 모양의 위쪽을 번두(幡頭), 길게 늘어뜨린 아래쪽을 번족(幡足), 양쪽의 긴 면을 번수(幡手)라 부른다. 이들 대번(大幡)은 괘불 좌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상단의 위용을 드러내며 장관을 이룬다. 조금 작게 만든 여러 종류의 번은 행렬에 앞장서서 의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일에 쓰고 태우는 종이 번 또한 정성껏 만든다. 근래에는 종이 장엄을 조성하는 스님이 드물어 대량 생산하는 번을 쓰기도 하지만, 큰절에는 여전히 필체 좋은 스님이 번을 비롯해 방(榜)과 소(疏)를 쓰는 경필(經筆) 소임을 맡고 있다. 예전에는 큰 재가 들면 경필 스님과 지화 만드는 스님들을 모시고, 트럭으로 한지를 들여와 대방에 펼쳐놓은 채 몇 달에 걸쳐 차근차근 모든 장엄을 직접 만들었다.



사진 3. 청련사에서 번을 조성하는 스님.

번이 평면의 장방형이라면, 당幢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장식물을 늘어뜨린 깃발로 장대에 매달아 썼다. 그러나 이른 시기부터 번과 당을 혼용하고 ‘당번幢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번의 개념에 당을 포함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대형 의례에서나 당을 볼 수 있고, 대개 불단의 양쪽에 하나씩 두게 된다. 팔각·원형의 입체적인 틀을 만들어 오색으로 단청한 다음, 비단과 장식물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화려한 모습을 지녔다.

사찰 입구에 세우는 당간幢竿은 당을 거는 기둥·장대이다. 그런데 불전 안에 두는 소형 당간을 ‘당’이라 하여, 당간이 당으로 불린다. 이에 당간의 머리인 간두竿頭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용머리 모양이면 용두당龍頭幢, 여의주를 장식하면 여의당如意幢·마니당摩尼幢이라 부른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당간 몸통에 불보살을 새긴 것을 불당佛幢이라 하고, 다라니를 새기면 경당經幢·다라니당이라 하였다.

당과 관련해 수행이 깊어진 스님이 전법傳法 스승을 정해 그 법맥을 이



사진 4. 수락산 흥국사 감로탱의 번幢과 당幢. 사진: 흥국사 소장.

어받는 것을 ‘건당(建幢)’이라 부른다. 건당은 ‘건립법당(建立法幢)’이라 하여 불법의 깃발을 세운다는 뜻을 지녔다. 불법의 일가(一家)를 이루었을 때 사찰 앞 당간에 깃발을 달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장대에 깃발을 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리거나 내세우기 위한 보편적 행위이다. 따라서 불교의 깃발은 불법의 위대함과 환희로움을 드러내는 의미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나부끼는 소망

불교에서 번을 건 초기 기록은 석가모니의 열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기록은 경전과 도상에서 나란히 나타나며, 사리탑을 장엄하는 용도가 주를 이룬다.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벽돌을 모아 탑을 쌓았는데 크기가 모두 1장 5척이 되었다. 금 향아리에 사리를 담아 그 속에 넣고, 장대를 세워 법륜을 표시한 뒤 그 위에 비단을 달았다.

부처님의 입멸 전후를 상세히 다룬 『반니원경(般泥洹經)』에 기록된 내용이다. 높은 전탑을 조성하여 사리를 모신 뒤 장대에 법륜을 나타내고 비단 번을 매달아 부처님을 모신 성소(聖所)임을 드러내었다.

대표적인 도상으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인도 북부의 마투라(Mathura) 출토 부조를 꼽는다. 내용을 보면, 보리수로 둘러싸인 성소를 중심으로 상단·하단의 좌우에 각각 2개의 번이 깃대에 매달려 휘날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번의 비중이 크고 문양이 섬세하여, 번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불탑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5. 마투라 출토 부조에 새겨진 번. 보스턴박물관 소장.



사진 6. 칠라스 유적 바위에 새겨진 번. 사진: 유근자.

그 뒤 불교의 번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고, 5~6세기 무렵이면 끝을 가른 ‘제비 꼬리형 번’이 등장한다. 면적을 둘로 나누면 세찬 바람에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인더스 강변 칠라스 유적의 바위에 새겨 놓은 ‘탑 위의 나부끼는 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으로 건너온 번이 당나라에 이르면, 번신·번두·번미를 갖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불교에서는 4세기 이후 황실과 서민의 구분 없이 발원을 위한 번이 성행하였다. 사원에서 주로 장엄 번을 만들었다면, 신도들은 재난을 막고 복을 빌고자 종이로 공양 번을 만든 것이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번과 당이 걸린 모습이 마치 숲과 같다.”, “공주·귀족이 한 번에 쓰는 번의 양이 많을 때는 2천 개에 달했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유마경』에 “항마의 상징인 번을 세우면 복덕을 얻어 장수하고 극락왕생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약사경』에는 ‘속명번등법續命幡燈法’이라 하여 7층의 등을 밝히고 오색의 신번神幡을 걸어 수명 연장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번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 불화·경전

등을 조성하는 공덕과 다름없이 여겨졌고, 불전에 올린 뒤 태우는 중이 번 또한 등·꽃·향과 같이 소중한 공양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52년에 백제 성왕이 일본으로 불교를 전할 때 불상·경전과 함께 번개幡蓋를 보낸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이후 신라와 고려의 여러 기록에 번을 조성한 내용이 나오나, 소재의 특성상 당시의 유물은 전하지 않는다. 근래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복장물에서 고려 후기의 노리개 오색 번이 발견되었다. 약사불 복장유물인 점으로 보아 앞서 『약사경』에 나오는 속명번등법과 관련된 채번彩幡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갖가지 번을 걸고 의례를 치른 기록이 실록과 감로도 등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사진 7.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복장물에서 나온 노리개 번.

효령대군 이보李補가 성대한 수륙재를 한강에서 칠 일간 개설하였다. ...임금이 향을 내려주고, 삼단三壇을 쌓아 승려 1천여 명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했으며, 길 가는 이에게까지 음식을 대접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나부끼는 번과 일산日傘이 강을 덮고 북소리·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도성의 선비와 아녀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개국 초기인 1432년(세종 14), 배불정책이 강행되는 가운데 불심 깊었던 효령대군에 의해 한강에서 7일간 수륙재를 연 기록이다. ‘변과 일산이 강을 덮을 정도’라 했으니 당시 대형 의례에 얼마나 많은 번을 장엄했는지 알 수 있다. 도성의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마치 잔치 같은 분위기를 입을 수 있어, 위축된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 듯하다.

그로부터 백여 년이 지난 16세기 초, 신하가 중종에게 상소로 올린 내용 가운데 산중 사찰에서 큰 재를 봉행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당개幢蓋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王의 화상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牋幡을 두며, 한곳에 종이 100여 속束을 쌓아 두었다가 법회를 행하는 저녁에 다 태워 버리고는 ‘소번재燒幡齋’라고 부릅니다.



사진 8. 아랫넬 수륙재의 번들.

당과 번을 무수히 걸어놓고 재를 치른 다음, 마지막에 수북한 종이 뭉치를 태우면서 이를 ‘소번재’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종이 뭉치는 번과 지전 등인 듯하다. 지금은 대량의 번을 공양물로 조성하지 않지만, 중국의 공양 번과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보게 한다. 이들 공양 번은 도량에 걸지 않지만, 중생의 마음속에 저마다 깃발처럼 나부끼는 소망을 담고 있을 법하다.

바람에 나부끼는 번, 바람처럼 사라지는 번

번의 종류는 다채롭다. 의례에 거는 번 가운데 불번佛幡은 대번大幡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표적인 불번으로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을 나타내는 삼신불번三神佛幡을 모신다.

또한 동서남북과 중앙의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상징적 표



사진 9. 진관사 수륙재 시련 행렬의 번들.

현으로, 방위불 개념의 오방불번五方佛幡을 모신다. 오방불 개념은 경전과 신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 약사여래, 남방 보승여래寶勝如來, 서방 아미타여래, 북방 부동존여래不動尊如來 등을 모시며, 방위에 따른 청·적·황·백·흑의 오색으로 각 번을 구성한다. 이외에 칠여래번을 모시기도 한다. 삼불·오불·칠불 등으로 묶여 있지만, 존상尊像과 마찬가지로 각각 번을 구성하니 불단의 좌우에 포진한 번들의 위용은 장관을 이루게 마련이다.

인로왕보살번은 대표적인 시련용 번으로,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상징한다. ‘길[路]을 이끈다[導]’라는 뜻을 지녔듯이, 수록재·영산재 등에서 영가를 서방정토로 이끌어주는 역동적 역할을 하는 번이다. 또한 삼보와 사부대중과 일체중생에게 의례를 열게 된 목적과 발원을 널리 알리는 보고번普告幡, 국가의 안녕과 불법의 존속을 기원하는 축상번祝上幡 등이 있다.

이러한 직물 번뿐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 쓰는 번은 더욱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샛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라니를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사방에 걸어두는 향마번降魔幡이 있다. 향마번 그림은 십이지를 나타내는 열두 동물이나 신장상 등을 거는데, 인쇄한 것을 주로 쓰며 직물 번으로 만들어 두기도 한다.

가장 많이 거는 종이 번은 불보살과 신중의 명호를 쓰거나 경전 구절을 쓴 번들이다. 또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번으로 설판재자를 드러내는 시주번施主幡,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산화락번散華落幡 등이 있다.

몇 해 전 통도사 땅설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려하고 여법한 삼신불번을 만났다. 아름답고 섬세하게 오린 가사袈裟를 두르고 단집가



사진 10. 작약산 예수재의 시왕과 권속의 번들.

사진 11. 진관사 수륙재의 향마번들.





사진 12. 땅설법에서 사용한 삼신번.

지 갖춘 모습이었는데, 한지로 만들었기에 법회를 마치면 모두 태워질 것이었다.

땅설법 법주인 다여 스님은 “예전 노스님들은 한 번 사용하더라도 불 번 조성에 지극정성을 다했다. 번신幡身을 둘러싼 사방의 장식을 ‘가사’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명호를 쓰는 부분을 ‘번의 몸’이라 부르니, 사방의 요소를 머리·다리·팔이라는 표현 대신 이를 감싸는 가사로 본 것이다. 더없이 아름답고 여법한 번이 법회를 마치면서 흔적 없이 사라졌으니, 바람이 되어 어디선가 중생을 지켜줄 듯하다. 古鏡

- **구미래**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불교민속 전공).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주요 저서로 『공양간의 수행자들: 사찰 후원의 문화사』,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삼화사 수록재』,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등이 있다.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 나트



김규현_ 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고경』을 읽고 계시는 독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필자는 히말라야의 분수령에 서 있다. 성산聖山 카일라스산을 향해 이미 순례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앞다리는 티베트의 땅을 딛고 있지만, 뒷다리는 아직 네팔 땅을 밟고 있는 처지이다. 어찌 보면 우주적인 거창한 모양새이긴 한데, 그러나 내 영혼은 오히려 카일라스산이 아닌, 머나먼 남인도 땅, 엘로라(Ellora)석굴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헛갈려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튼금없이 웬 인도? 하며 의아해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엘로라석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울림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별려오던 카일라스산을 향해 히말라야 분수령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다.

사진 1. 카일라사 나타의 전경.





카일라스 성산 VS 카일라사 나트

카일라스산과 카일라사 사원은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토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이 화두를 해결하지 않고 ‘카일라스 꼬라’에 오르는 것은 뭔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카일라스 꼬라’를 잠시 미뤄두고 손오공 거사의 동족인 하누만(Hanuman)의 근두운筋斗雲을 불러 타고 엘로라석굴로 날아가는 차선책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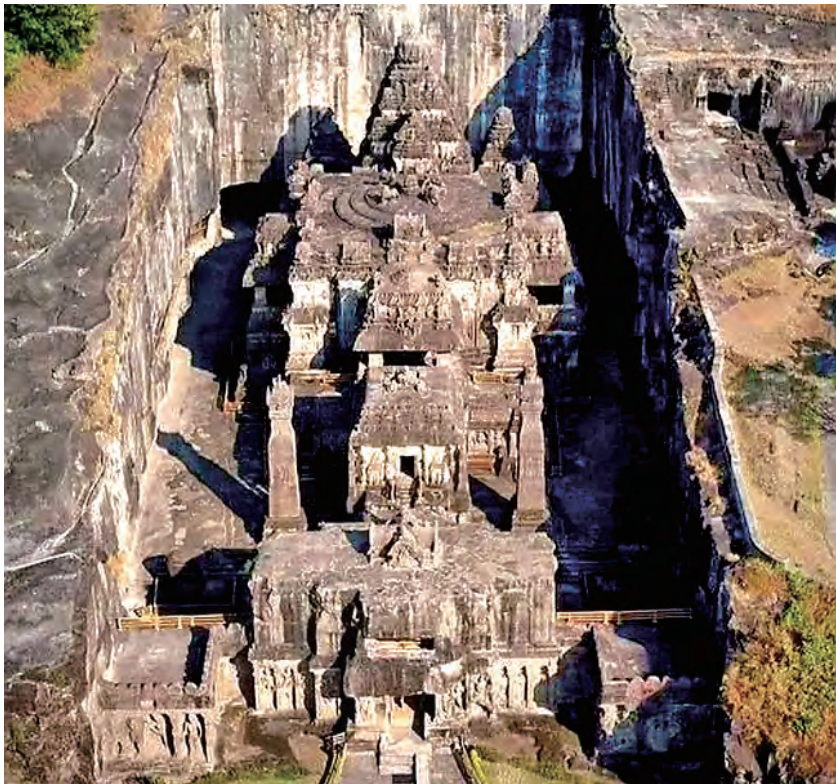


사진 2. 카일라사 나타의 드론 사진.

흔히 카일라사로 알려진 이 석굴사원의 정식명칭은 ‘카일라사-나타(Kailāśa-Nātha)¹⁾인데, 여기서 ‘나타’는 존칭어이기에 별 뜻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성스러운 카일라사’ 사원이란 뜻이다. 이곳은 바로 중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 위치한 엘라푸라(Elapura=Ellora) 석굴군에 속한 사원으로 경사진 현무암 절벽을 따라 2km 이상 뻗어 있는데, 오른쪽으로부터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순서로 총 34개 석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 ‘카일라사-나트(KailasaNath)’는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제16번째 석굴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굴사원으로 높이 32m, 길이 78m의 규모를 자랑한다.

유일무이한 수직 굴착掘鑿 공법

이 석굴을 참배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말은 “불가사의의不可思議!” 그 한마디였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개미의 DNA가 섞여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인간들은 개미처럼 땅을 파들어가서 석굴사원들을 만들었다. 부연하자면 암벽을 옆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바닥과 천장과 기둥 그리고 기타 종교적 구조물을 남겨 놓고 공간을 비워두었다는 말이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카일라사-나트’였다. 거대한 단일 암석을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파 내려가는 수직굴착공법으로 마치 우물을 파 내려가듯이 사원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현대적인 3D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1) 이런 표기는 IAST(International Alphabet of Sanskrit Transliteration)으로 범어에 대한 로마-알파벳 표기법이다. 그리고 ‘Natha’는 ‘군주’를 의미하나, 힌두교의 다양한 경전과 요가 전통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성자들의 이름으로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진 3. 우주와 연결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카일라스산을 표현한 기념 석주 '스탐바(Stambha)'의 위용. 높이 15.5m, 폭 2.4m의 크기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다.



사진 4. 사원 오른쪽 뒤편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시카라(Sikkhara)식 팔각지붕과 사원 전체의 조감도.

이 없었던 중세 시절에 오직 망치와 끌만으로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원 속의 구조물만을 남겨 놓고 쪼아내어 외부로 옮긴 암석 부스러기의 중량은 무려 20만 톤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총 4천 명의 석공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된 구조물이나 부조들을 도상학적(圖像學的²⁾ 특징으로 살펴본 바로는 한 왕조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조가 대를 이어가며 대략 2백년 동안 공사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2) '팔라'와 '칼루키아' 식의 건축 양식이 섞여 있는 걸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굴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탐바’는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기둥

외부세계와 석굴사원의 경계를 구분 짓는 관문인 고뿌람(Gopuram)을 지나면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석굴사원이란 이미지로 인해 참배객들은 우선 놀란다. 어둡침침할 줄 알았던 석굴사원 안쪽으로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드넓은 안마당을 바라보니 바로 왼쪽 눈앞에 거대한 코끼리 조각상이 눈에 들어오고 오른쪽 앞에 거대한 사각 석주四角石柱가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스탐바(Stambha)’였다. 우주와 연결되는 ‘수메루(Sumeru)’산을 상징하는 ‘우주목宇宙木³⁾’으로서의 카일라스산을 상징하는 바로 그 기념 석주



사진 5. 사원 왼쪽 뒤편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사원의 조감도.

3) 비교신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종교학에서 사용한 용어로 우주목宇宙木(cosmic tree)은 하늘, 땅,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의 축(axis mundi)’이자 우주론적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였다. 그러나 내 눈에는 진짜 카일라스산을 닮은 게 아니라, 마치 지붕이 있는 이집트식 오벨리스크(Obelisk)를 닮은 모양이다. 그래도 모든 자료에 서는 그것이 바로 카일라스산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4각형의 돌기둥은 높이 15.5m, 폭 2.4m의 크기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4면에는 시바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부조되어 있다. 나는 감격에 겨워 석주를 시계방향으로 몇 번이나 돌면서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나트 사원’이라는 화두삼매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 드넓은 시계방향으로 화랑을 따라 꼬라를 돌다가 역시 U자형 반대편 공간에 서 있는 오른쪽 스타мба 석주와 코끼리 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왼쪽과 오른쪽 스타мбу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사진 6. 힌두의 서사시 『라마야나』 속의 하누만의 활약상을 표현한 카일라사 외벽의 부조浮彫.

시바신에게 헌정한 카일라사-나트 사원

이 사원 곳곳에는 ‘스탐바’ 기둥처럼 카일라스산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상징물도 있는 반면에 시바교파(Shivism)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가 조각상 또는 부조浮彫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바신상이 모셔진 중앙 사당은 고색창연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2층에 있는데, 그곳에는 성스러운 황소 난디(Nandi Mandapa⁴⁾)를 모신 사당과 그곳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구름다리 같은 석조다리가 놓여 있고 부속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드디어 시바신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옴 나모 시바야.”

시바교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판테온(Pantheon)의 설계는 고대 힌두교의 삼신사상(Trimurthi)에서 쉬비즘(Shivism)이 대두하는 시기에 이 사원의



사진 7. 『라마야나』의 영웅 하누만이 카일라스산을 들고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묘사한 그림.

개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8~9세기부터 시작된 인도 대륙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당시 이 사원을 개창한 라쉬트라꾸따(Rashtrakuta) 왕조의 크리슈나(Krishna I세, 656~773) 라자(Raja)도 당시 유행하는 시바교파에 경도傾倒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원 이름도 ‘카일라사-나트’로 명명되었던 것이고….

⁴⁾ ‘난디’란 시바의 탈것인 황소를 말하는데 난디 사당은 2층에 중앙에 구름다리로 주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카일라스산과 영웅 하누만

힌두교 판테온에서 신들은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캐릭터와 다양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히 시바신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힌두교가 고대 브라만교의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부라만, 비슈누, 시바의 삼신주의(TriMurthi)로 굳어질 때 시바의 역할은 ‘파괴와 소멸’의 몫이었다. 그러나 후에 브라만교의 중요한 신들의 권력을 시바교파가 인수하면서 교세가 커지자 창조와 유지의 몫까지 맡으면서 많은 아이콘과 아바타(Avatha)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중 원숭이신 하누만도 있었다.

처음에는 조연급이었던 하누만은 힌두의 양대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서사시의 주인공 라마 왕자를 도와 시타(Sita) 공주를 구출하는 중요한 배역을 맡아 힌두문화에서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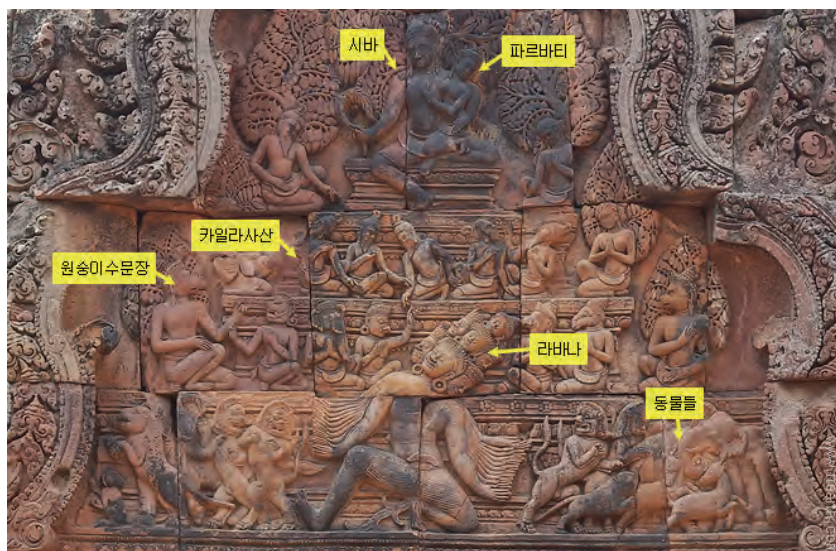


사진 8. 악마왕 라마나가 시바신을 조롱하기 위해 카일라스산을 흔드는 장면이 묘사된 부조.



사진 9. 1층 회랑에서 K-Pop을 좋아한다는 아이들과 함께한 필자.

급으로 데뷔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화두인 ‘카일라스산 VS 카일라사-나트’에 한해서라면 하누만의 역할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그저 랑카전투에서 부상당한 라마왕자의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신비의 약초가 자라는 카일라스산을 통째로 날라 왔다는 대목이나 악마의 왕 라바나가 시바신을 시샘하여 산을 밑둥치에서부터 흔들었다는 대목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정도여서 살짝 섭섭함을 금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설화의 한 토막인 것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만의 이번 남행길에서 우주적인 석주 ‘스탐 바’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하누만의 근두운 값은 건졌으리라….



○ **다정 김규현** 현재 10년째 ‘인생 4주기’ 중의 ‘유행기遊行期’를 보내려고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로 들어가 네팔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틈틈이 히말라야 권역의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있다.

다정 김규현 선생의 30년 티베트 순례기 설산 너머 히말라야의 숨결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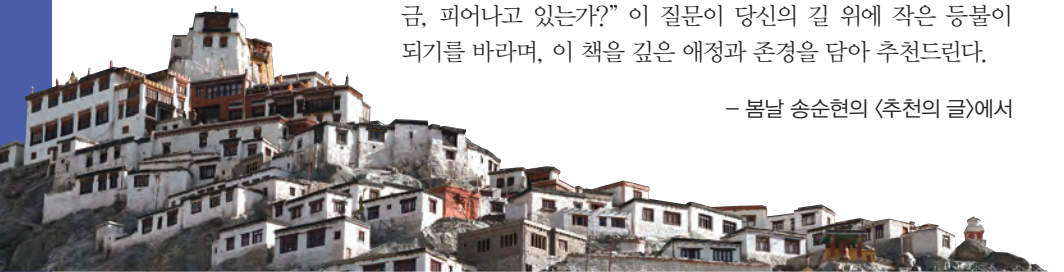
글·사진_ 다정 김규현
변형 국판(올컬러)_ 384쪽
값 27,000원

བཀྲ་ཤིས་བདེ་ལེགས།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으시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물어보시라.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내 안의 연꽃은 지금, 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추천드립니다.

— 봄날 송순현의 <추천의 글>에서



도서출판 **장경각**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수송동, 두산위브파빌런) 1232호, 02-2198-5372

성혈넷

www.sungchol.org

유튜브

www.youtube.com/@songchol(백련불교문화재단)

현대사회에서 불교윤리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해 본 시간들



허남길_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불보살의 가피로 정통 불교 교양지 『고경古鏡』의 필진에 합류한 뒤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란 제하의 연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아쉽게도 작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름대로는 2,500년 역사의 불교가 오늘날의 사회적 쟁점들과도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오래된 미래의 지혜와 자비의 보고寶庫임을 상기시키고자 했으나 의도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평가는 오롯이 독자들의 몫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는 않다.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을 잠시 되돌아본 다음, 불교윤리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한국불교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어봤다.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불교윤리의 관계 소개

처음 다룬 주제는 ‘불교와 자살’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어느 큰스님의 충격적인 자화장自火葬 소식이 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불교

에서는 아름다운 자살도 없고, 위대한 자살도 없다고 단단히 못박았다. ‘동물권리의 시대와 불교의 동물 49재’에서는 반려동물 가족이 1,500만 명이나 되는 시대에 불교가 동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동물관련 제사 의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육식과 불편한 채식 사이에서’는 인간의 밥상에 오르는 고기들의 짧은 삶을 살펴보고, 불교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육식은 점차 줄이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채식은 조금씩 늘려가는 음식문화의 개선을 제의했었다.

‘불교의 성, 인간의 성’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성의식에 걸맞는 불교의 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데에 인식의 공감대를 가졌다. 그런 차원에서 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주제로 삼은 ‘나는 절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템플스테이는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어서 불교와 동성애의 문제도 다뤘다. ‘불교전통과 동성애의 관습’은 불교의 역사에서 동성애가 일방적으로 비난받은 것만은 아니며, 지역이나 전통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과 자비윤리’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교윤리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불교적 인공지능, 즉 자비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염원했다. ‘업과 윤회의 일상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현대인들에게 업과 윤회는 과거반성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풍성한 도덕적 원천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른바 ‘먹방’의 만연시대를 꼬집기도 했다. ‘먹방의 시대-불교적으로 먹고, 윤리적으로 살기’가 그것이다. 불교적으로 가볍게 먹기와 윤리적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주문했다. 불자라면 누구나 수지독송하는 ‘불자오계’와 서양윤리의 가상대화도 시도했다.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누구나 혼란



사진 1. 나는 절로에 참가한 젊은이들. 하동 쌍계사. 사진: 유철주.

스럽지만 그래도 결론은 오계의 일상적 준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양윤리학에서 말하는 공리주의적 입장도 불교의 오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는 와중에 2024년 12월 3일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개인적으로는 45년 만에 겪는 아픈 트라우마의 재발이었다. 비상계엄령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1980년 이른 봄 나는 자원입대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광주와 비극과 아픔을 진해 해군훈련소에서 심각하게 왜곡, 조작된 국방니우스로 들어야 했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책가방을 싸서 귀가하던 내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면서 손가락과 주먹으로 쌍욕을 했던 기억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 것 같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엘리트 공무원들의 선민의식에 대해 3회에 걸쳐 긴 글을 썼던 기억도 아프게 떠오른다. ‘시대착오적인 연고주의와 그 폐해’에서는 아직 탄핵당하기 전인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에게 겁도 없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일부 지역에서 『고경』 편집부로 항의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전해들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조직의 권력사유화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엄청난 역사적 헛발질의 토대가 되었다고 비판했던 것 같다. 이면에는 유교적 공직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족 패거리 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 일반시민들의 높은 교양 수준과 깨인 민주정치의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음모를 막은 일등 공신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뒤이어 ‘공公과 사私의 윤리’ ①, ②에서 한국공직사회가 ‘공(impartial)’과



사진 2.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정갈한 사찰음식. 사진: 박성희.

‘사(partial)’의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유가 윤리의 ‘사私’적 윤리전통이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톺아봤다. 우리나라의 불교전통에서도 문중의식으로 대표되는 사적 윤리문화가 사부대중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동시에 서양철학의 ‘사’적 윤리전통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평범한 인간인 이상 완전한 의미의 ‘공’적 사고와 이에 따른 ‘공’적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적 친분관계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패거리 문화는 퇴행적 도덕의식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거듭 일깨워주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불교의 전개과정에서는 ‘공’과 ‘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무분별적 윤리전통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불교윤리의 기본인식은 12·3 비상계엄령과 같은 권력 오남용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도덕적 무지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역사의식을 피력한 바 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책임은 소속 공동체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아돌프 히틀러의 전쟁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도덕문화와 개인 행위의 관계는 그것의 관련성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개인에게 언제나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다는 사실도 거듭 환기시켰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일반 재가불자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태도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불교와 여성’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불교 경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언급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언급들도 많다. 그런 만큼 불교가 여성을 포함한 인간일반의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와 전쟁의 관계를 살펴본 ‘갈등해결과 전쟁방지를 위한 불교적 해법’은 불교가 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와 불교의 역사에서 전쟁과 폭력이 결코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붓다의 육성 그대로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자는 고통 속에 산다. 고요한 자의 행복한 삶은 승리와 패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SN.I.83; Dhṛp. 201).”는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붓다는 현실적인 조건의 한계와는 별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 평화주의자였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세대가 겪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죽음 방식의 선택 문제도 불교윤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안락사 또는 존엄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불치병 말기 환자들의 인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락사나 존엄사의 문제는 법적 제한과 관계없이 조만간 시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붓다 당시에도 늙고 병든 비구들의 자살이나 안락사가 승가의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이제

한국불교도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 국기穀氣를 끊는 단식 존엄사’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대만의 저명한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종합병원 의사인 비류잉이 자신의 어머니가 선택한 단식 존엄사의 실행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환자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온몸이 숙연해짐을 느꼈다. 이와 함께 자이나교의 단식 존엄사 전통인 살레카나를 되돌아봄으로써 불교적 존엄사의 이론적 배경이 될 가능성을 검토해 봤다.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에 속한 나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유행하는 선명상도 빼놓을 수 없었다. ‘선명상의 시대, 선禪의 윤리를 생각하다’에서 나는 선명상의 상업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선명상에도 선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선명상 본래의 윤리적, 해탈적 지향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요즘 엿지 있는 국내의 청장년층들의 고급 취향이 되고 있는 ‘플로깅(plogging)’도 다뤄봤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행동 속에서 오히려 불교윤리의 현실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플로깅(plogging) 운동에서 불교윤리의 미래를 엿보다’를 통해 나는 심오한 사고를 넘어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불교윤리적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멋진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대승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삼스럽지만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전통불교와 참여불교’에서는 얼마 전에 작고한 동물생태학

자이자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일생이 어쩌면 참여불교의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다. 모든 것이 인드라의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때, 불교의 비폭력 전통은 미래사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불교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인공지능(AI)의 시대, 불교적 휴머니즘이 대안이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 불교윤리의 역할과 기능을 새삼 곱씹어보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불교가 기

사진 3. AI를 통해 사고하고 피지컬 AI의 발달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AI 시대. 사진: AI 생성 이미지.



존의 사회적 쟁점들을 해결할 능력 못지 않게 ‘인공지능 시대의 휴머니즘’으로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불교 철학자인 소랏 형라다롬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인공지능(AI)의 기술적 특성을 ‘자비로운 알고리즘(merciful algorithm)’으로 성격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이른바 ‘기술적 탁월성(technological excellence)’과 ‘윤리적 탁월성(ethical excellence)’을 두루 갖추고 ‘기계의 깨달음(machine enlightenment)’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는 불교적 인공지능 기술은 세상의 평등과 정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선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교의 ‘연민(悲, karuṇā)’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우리의 윤리적 행동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열망한다.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자비로운 것이 되려면 알고리즘 설계자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원력과 실천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소랏 형라다롬이 말하는 자비로운 인공지능은 AI 기술을 둘러싼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인 ‘테크노쇼비니즘(technochauvinism)’과 ‘테크노포비즘(technophobia)’ 사이의 중도를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교윤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고유의 지혜와 자비에 바탕을 둔 휴머니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위대한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불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덧붙이는 것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연재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 古觀

○ **허남걸** 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졸업(문학박사), 영국 더럼대학교 철학과 방문학자 및 동국대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역저서로는 『불교윤리학 입문』, 『자비결과 주의』,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등이 있고, 공리주의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다.



선달

소나무는 12월을 시작하고
돌비석은 한 해를 마감하고

손오공의 자아 왕국과 삼장의 황금보탑



강경구_ 동의대 명예교수

삼장에게 쫓겨난 손오공이 고향인 화과산에 돌아오니 옛 터전은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다. 500년 전 하늘과의 전쟁으로 손오공이 잡혀간 뒤 이랑진군의 부하들이 화과산을 불태우고, 수시로 사냥꾼들이 찾아와 원숭이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남은 부하들을 모은 뒤 사냥꾼들을 모두 물리치고 다시 제천대성으로 복위하여 자아왕국을 재건한다.

폐허가 된 화과산

이 얘기는 폐허가 된 화과산에서 시작해야 한다. 손오공이 천상을 어지럽힌 죄로 부처님의 손바닥(오행산)에 갇혀 500년을 지내다가 삼장을 만나 서천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동안 이랑신과 그 수하의 사냥꾼들이 쳐들어와 화과산을 불태우고 수시로 원숭이 종족을 잡아간다. 그리하여 4만 7천이나 되던 부하들이 혹은 죽고,



사진 1. 마왕으로 복귀한 제천대성 손오공.

사진 2. 여섯도적(6식)과 손오공.



혹은 잡혀가고, 혹은 달아난 결과 1천 명 불과한 인원이 남아 있다가 손오공을 맞이한다. 그것은 손오공의 공에 대한 집착과 관련이 있다.

손오공은 백골요괴가 모습을 바꿔 나타날 때마다 단매에 때려 죽이기를 반복했다. 그 절멸적 공에 대한 집착이 서천행의 주제인 색공선色空禪에 배치되므로 여행단에서 축출된 상황이다. 사실 공에 대한 집착은 오행산을 지난 뒤, 여섯 도적들을 때려죽일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도적의 이름은 눈으로 보고 기뻐함[眼看喜], 귀로 듣고 분노함[耳聽怒], 코로 맡고 애착함[鼻嗅愛], 혀로 맛보고 생각함[舌嘗思], 뜻으로 알아 욕망함[意見慾], 몸은 본래 걱정함[身本憂]이었다.

손오공이 웃음으로 이들을 상대한다. “아! 여섯 도적들이셨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길을 막는구나.” 손오공이

왕으로서의 마음[心王]을 대표한다면 눈의 지각[眼識], 귀·코·혀·몸·뜻의 지각이라는 6식은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손오공의 말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손오공은 이 6식을 때려죽이고 백골요괴를 때려죽임으로써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번뇌를 끊고자 한 것이다. 삼장이 축객령을 내릴 만하다.

한편, 손오공이 원래 거느렸던 4만 7천의 부하들은 부수적인 마음작용, 즉 심소법[心所法]이다. 손오공이 돌아오자 4명의 수령급 원숭이가 남아 있다가 손오공을 맞이한다. 그들의 이름은 마馬, 류流, 붕崩, 파芭로서 과거 손오공을 부추겨 하늘에 맞서도록 한 간신들이었다. 여기에서 마류馬流는 원숭이를 가리키는 광동 사투리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단이 주연한 ‘철마류鐵馬驪’라는 영화의 영문 표현이 ‘아이언 몽키(iron monkey)’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 손오공과 네 부하.

다음으로 붕파崩芭는 끝없이 날뛰는 원숭이의 행동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 끝없이 움직이며 작동하는 마음의 작용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이다.

어쨌거나 화과산의 절멸적 폐허는 손오공의 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것이었다. 손오공은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손오공은 자아를 부추기는 네

장군들(아치我癡, 아견我見, 아애我愛, 아만我慢)을 불러내어 자아 왕국의 재건에 들어간다.

자아 왕국의 재건

손오공은 우선 화과산의 원숭이들을 시켜 불에 탄 돌들을 찾아 쌓아 올리도록 한다. 그런 뒤 사냥꾼들이 쳐들어오자 주문으로 돌맹이들을 날려 그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그리고는 사냥꾼들이 타고 다니던 죽은 말을 가져다 그 가족으로 부하들의 옷을 해 입히고, 그 고기로 식량을 삼고, 창과 칼을 주워 무장을 시킨다. 그런 뒤 사냥꾼들이 남긴 깃발들을 가져다가 하나로 합쳐 제천대성齊天大聖의 깃발을 내건다. 큰 하나(One)를 설정하는 자아 왕국이 재건된 것이다.

이처럼 자아 왕국의 재건은 불에 탄 돌조각들을 모으는 일로 시작된다. 그 돌조각들은 손오공이 서천여행을 하면서 6식을 죽이고 백골요괴를 죽였던 것처럼 의식작용을 절멸시켰던 기억들이고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돌조각들을 모으는 것은 그 절멸의 기억을 자부심의 근거로 삼았다는 뜻이다. 원래 불에 타고 남은 돌조



사진 4. 불에 탄 돌조각과 사냥꾼들.

각들은 과거의 제천대성이 보기에는 패배의 역사이다. 자아의 욕구가 분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손오공이 보자면 승리의 기념물들이다. 이렇게 승리의 기념물들을 모은 승전탑이 세워짐으로써 자아 왕국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손오공은 돌조각들을 날려 사냥꾼들을 몰살시킨다. 승전의 흔적에 자부심을 느껴 자아의 왕국을 세움과 동시에 공성을 관조하는 눈(사냥꾼)이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다.

말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그 고기를 식량으로 삼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마음[心]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뜻[意]을 말에 비유하는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불교의 관용어이기도 하지만 『서유기』적 상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음과 뜻은 번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수행의 동력이기도 하다. 서천여행단의 최초 구성이 손오공[心]과 용마[馬]로 시작되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숭이 부

하들에게 말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그 고기로 식량을 삼게 한다. 마음(원숭이)과 뜻(말)이 한 몸이 되어 번뇌 증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다음으로 손오공은 사냥꾼들의 창과 칼을 빼앗아 원숭이들을 재무장시킨다. 여기에서 사냥꾼은 번뇌라는 맹수를 물리치는 제반 실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은 수행



사진 5. 도교사원의 손오공상.

의 다양한 방편을 가리킨다. 자아의 조복에 쓰이던 방편이 자아를 높이는 무기가 된 상황이다. 실제 수행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있다. 강한 집중[止]과 밝은 관찰[觀]은 자아를 성찰하고 번뇌를 행복시키는 창과 칼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우월함을 뽐내는 무기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손오공이 그랬다. 그는 화과산 수렴동에 자아 왕국을 재건하고 제천대성에 복위한다. 과거에는 자아의 실체성을 근거로 한 아집의 제천대성이었다. 지금은 공소에 집착하여 그것을 자아의 근거로 여기는 법집의 제천대성이다.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자아를 최고로 여기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결과는 동일하다. 공에 집착하는 손오공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팔계와 만나 하나가 되기 전까지 철두철미 요괴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양에 집착하는 팔계나 그에게 동조했던 삼장이 무사할 수는 없다.

황포대왕과의 만남

손오공을 떠나보낸 삼장은 다시 팔계를 보내 음식을 구해오게 한다. 팔계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사오정을 보내 잘 곳을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사오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남쪽 길로 들어섰다가 요괴를 만나게 된다.

손오공이 떠난 후 삼장을 지키고 음식을 구해오는 것은 팔계의 몫이 된다. 음식을 구해오라는 삼장의 당부에 팔계는 호언장담을 한다. “얼음을 비벼 불꽃을 만들고, 눈을 짜서 기름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공양을 구해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팔계는 공양을 찾지 못하고 풀숲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 버린다. 왜 팔계는 공양을 구하러 다니다가 중



사진 6. 잠자는 저팔계.

간에 잠에 빠지는 것인가? 공양물은 도를 이루는 양식이다. 이전에 손오공은 밥 대신 산속에서 익은 복숭아 정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산속의 인연은 복숭아이고 그 인연을 받는 것이 공양이다. 그것은 진리를 맞이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의 이 인연이 진리가 드러난 현장이고, 부처님이 출현한 법당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의 합일은 인연을 수용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팔계는 진리가 아름다운 여인처럼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진리는 유위적 노력을 통해 밖에서 얻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실체이다. 그래서 얼음을 비벼 불을 얻고, 눈을 눌러 기름을 짜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 추구하고 유위적 실천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그 닿지 않는 길을 고집하면서 억지로 추구하므로 금방 피곤할 수밖에 없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풀숲에 들어가 잠이나 한숨 자야겠다.”

삼장의 관념적 중도

팔계가 잠을 자는 동안 삼장은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몸과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사오정을 내보낸다. 팔계도 찾아보고 목을 곳도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삼장은 사오정을 기다리지 않고 짐과 말, 삿갓과 석장은 그 자리에 두고 길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선다. 숲속에서 여러 갈래의 소로길을 만난 삼장은 그중에서 남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는데, 그 끝에서 황금보탑이 세워진 사원을 만나게 된다. 요괴의 사원이다.

왜 삼장이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가? 그것은 팔계의 잠과 관련이 있다. 진리를 밖에서 찾으면 두리번거리게 되므로 산란이 찾아오고, 억지 추구를 하게 되므로 피곤하여 혼침이 찾아온다. 이처럼 혼침과 산란은 밖에서 진리를 찾는 이에게 찾아오는 쌍둥이 자매다. 그것이 삼장의 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이때 삼장이 버려둔 짐과 말, 삿갓과 석장은 수행의 방편이다. 삼장의 서천여행에 있어서 짐과 말과 석장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 짐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별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서천에 도달하게 된다. 방편의 힘이다. 그래서 조석예불만 잘해도 도를 이룰 수 있고, 노는 입에 염불을 해도 아미타불이 현전하는 수가 있다. 삼장은 별도의 공양물, 별도의 숙소, 별도의 진리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인연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수행방편을 방치한 것이다.

한편, 삼장은 숲속에서 여러 소로길을 만나 그중 남쪽으로 난 길을 택한다. 왜 남쪽인가? 삼장은 중도를 중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팔계의 실체 집착(서쪽)도 아니고 손오공의 허무 집착(동쪽)도 아닌 남쪽이라는 중간을 택한 것이다.

황금보탑과 황포요괴

삼장이 황금보탑의 사원에 들어가 보니 황금 도포를 걸친 한 흥악한 요괴가 잠을 자고 있었다. 삼장은 깜짝 놀라 후들거리는 다리를 움직여

문밖으로 돌아나온다. 그러나 요괴가 그것을 알아채고 부하들을 시켜 삼장을 잡아들이게 한다. 황금보탑은 무엇인가? 또 왜 보탑 아래에 황금도포의 요괴가 있는 것인가?

수행의 본격적인 장애는 수행자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삼장에게는 황금보탑이 나타났다. 원래 삼장은 서천행을 시작하면서 탑을 만나면 탑을 참배하겠다는 발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냥 탑도 아니고 황금보탑을 만났다. 순도 높은 부처의 현현이 아닐 수 없다. 황금이 부처

사진 7. 지팡이와 삿갓 차림의 삼장상.



의 금색신에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의 금색신 역시 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생멸하는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금빛에 혹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샅된 길이기 때문이다. 모양으로 여래를 보고, 음성으로 여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샅된 길을 걷는 이라서 여래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 적용되는 지점이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청하여 자기 몸을 요괴의 입속에 넣어주는 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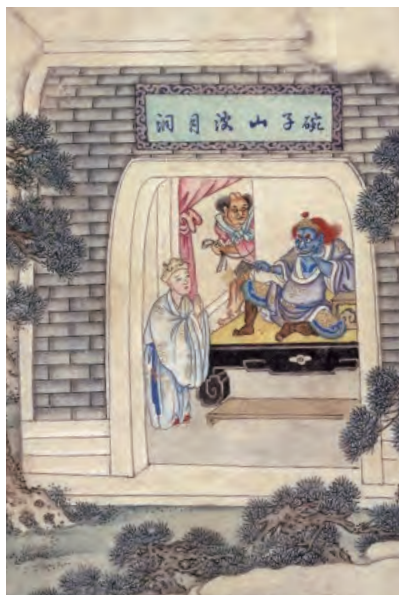



사진 8. 삼장과 황포요괴.

삼장이 만난 요괴는 푸른 얼굴, 흰 송곳니, 풀의 새싹과 같은 구렛나루, 연지색 두발, 앵무새 코, 새벽별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미녀로 변신하여 나타난 백골요괴와 같은 색깔이다. 다만 그 조화가 기형적이다. 이에 비해 백골요괴는 질게 푸른 눈썹, 별 같은 눈, 달 같은 자태, 제비 같은 몸매, 앵무새 같은 목소리를 하고 푸른색 통, 초록색 병을 든 미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똑같은 모양과 색의 향연이지만 한쪽은 아름답고 한쪽은 흉하다. 인연에 따라 그 조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달라진 조합에 의미를 두어 아름다운 것은 좋아하고 추악한 것은 싫어한다면 그것 자체가 번뇌이다. 삼장이 요괴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강경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퇴직 후에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으로 성철선의 연구와 문학의 불교적 해석에 임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간을 참선과 기도에 쓰면서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선 초 국경을 넘은 승려들



이종수_ 국립 순천대 사학과교수

조선이 건국될 무렵, 명나라는 압록강과 경계하고 있던 요동의 도사 都司를 통해 몽골이나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조선과도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명 태조 홍무제는 조선이 압록강 요충지에 군량 1만~10만 석을 축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요동 궁궐 건설을 중지시키고 조선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즈음 조선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온 중국 승려를 첩자라 여기고 참형에 처하였다.

요동의 승려 각오覺悟를 참형에 처하였다. 각오가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서 치려고 한다.” 하였으므로,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하니, 각오가 “요동의 민천호閔千戶가 각자 위군衛軍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조선이 헛점을 노릴까 하여, 나를 보내서 정탐하게 한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조실록』 4년(1395) 5월 18일.

압록강을 건너온 명나라 승려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동북면(함경도)에서 국경을 넘어온 승려가 잡혔다. 역시 첩자라 여기고 붙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

동북면 도순문사都巡問使 박신이 승려 해선海禪을 잡아 서울로 보냈다. 해선이 사방을 유람한다고 핑계대고 몰래 중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경원부 경계에 이르렀는데, 박신이 사람을 보내어 유인하여 잡았던 것이다. … 해선이 말하기를, “… 지난번에 일이 있어 함주에 이르렀다가, 계월戒月이란 승려를 만났는데, 중국 풍토가 매우 좋다고 말하기에, 한 번 보고 싶어 왔소이다.” 하였다.

— 『태종실록』 6년(1406) 5월 23일.



사진 1. 얼어붙은 압록강.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동북면 도순문사는 해선을 붙잡아 서울로 보냈지만, 조정에서는 그의 첩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경상도 합포의 청지기로 유배 보냈다. 그런데 합포에 이른 해선이 “황제가 언젠가 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발각되어 유배지를 내이포로 옮겼다.『태종실록』 6년(1406) 6월 14일] 이런 가운데 상인이나 승려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아뢰었다. “지역 내에 한가한 승려들이 초막을 짓고 원문願文을 써가지고 자주 모입니다. 인삼을 거두어 놓았다가 얼음이 얼 때면, 혹은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자도 있고, 혹은 강 건너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숨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강계·이성·의주·선주 이북의 초막을 모두 헐어서 승려들이 머물 곳을 강력하게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되, 다만 초막은 헐지 말라 하였다.

— 『태종실록』 6년(1406) 4월 18일.

중국과의 사私무역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상인이나 승려의 장사는 불법이었다. 그런데 장사는 금지하면서도 초막을 헐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승려의 장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국가에서 사원경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던 시기에서 국경에서 승려들의 소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상왕 태조와 왕사 무학대사가 살아 있었으므로 가혹한 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 후 1414년에도 요동의 승려 몇 명이 국경을 넘어 의주에 왔다.

평안도 도순문사가 보고하기를, “요동의 승려 희청·창순·희전 등이 의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원래 조선인인데 일찍이 중국인에게 붙잡혀서 끌려 들어갔다가 부모가 죽었으므로 조선에 온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4년(1414) 3월 17일.

조정에서는 평안도의 보고를 받고 이들을 요동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조선인으로서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요동에서 살다가 출가한 후 국경을 넘어온 승려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인으로 판단하고 요동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한편, 조선 승려가 명나라로 갔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중국인을 명나라로 압송하는 관리인 설내(偲耐)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우리나라 승려가 몰래 요동으로 들어가니, 요동에서 붙잡아 결박하고 황제에게 아뢰었는데, 예부 낭중이 조선 승려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 비록 유람왔다고 하지만 반드시 너희 나라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왔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왜인에게 붙잡힌 중국 사람도 모조리 명나라 조정으로 보낸다.’ 하고, 이 승려를 조선으로 보내야 마땅하겠다 하고, 다음날 황제에게 아뢰었는데, 황제가 ‘우선 절에 머물러 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7년(1417) 윤5월 9일.

명나라는 조선의 승려를 돌려보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국가의 불교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승

려들이 늘고 있었다.

공조 참판 신개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아뢰기를, “우리나라 승려 11명이 몰래 중국 북경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명하여 금릉金陵 천주사天住寺로 보냈습니다. 예부 상서 여진이 신에게 우리나라 관제와 작질爵秩, 승려를 관할하는 관원, 승려 도첩의 유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였다.

— 『태종실록』 17년(1417) 7월 4일.

나옹화상의 사리를 들고 명나라로 간 조선 승려들

당시 명나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의 불교 정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 조정에서도 승려들이 명나라로 가서 배불정책을 황제에게 고발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두 임금(태종과 세종)이 수강궁 편전에서 촛불을 켜고 병조 참의 윤회·지신사 원숙을 불러서, 좌우의 근시를 물리치고 승려들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주상이 나에게 승려 30명이 도망하여 중국에 들어간 사건을 보고하였다. … 지금 황제가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 양 무제보다 더 심하여, 《명칭가곡》을 외우는 소리가 천하에 퍼져 있고, 부처와 하늘 꽃을 그린 그림을 상서롭게 여기는 풍습이 파다하게 퍼져 쓸리듯이 그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사寺社의 전민을 혁파하여 겨우 열에 하나만 남겨 두었고, 이번에 또 절의 노비를 모두 없앴으니, 비



사진 2. 묘향산 보현사.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록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원망이 없겠는가. 이들이 이미 희망을 잃었고, 또 명나라 황제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반드시 도망하여 중국에 들어가 말을 꾸며서 참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 하였다.

— 『세종실록』 1년(1419) 12월 10일.

두 임금의 염려에 대해 변계량은 사찰의 남자 종[奴子]을 돌려주는 한편 동북면과 서북면 양계에 엄히 명령을 내려 승려의 월경을 막고, 또 이

미 도망쳐 들어간 승려를 돌려보내도록 요청하자고 하였다. 반면에 허조는 불교의 신앙을 인정하고 양반 자제가 출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사찰에 남자 종을 돌려주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노비 모두를 돌려주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결국 이튿날 여러 의견을 들은 상왕(태종)은 ‘승록사에 남자 종을 이속시켜 태조가 창건한 홍천사·홍덕사·홍복사에 보내고, 예조에서는 승려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세종실록』 1년(1419) 12월 11일] 그런데 1421년에 두 임금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승려 적휴適休·신연信然·신희信休·홍적洪適·혜선惠禪·신담信淡·홍혜洪惠·신운信雲·해비海丕 등 9명이 요동에 들어가 요동도사에게 글을 올렸다.

“저희들은 본국의 금강산·오대산·묘향산 등 여러 산에서 살다가 … 3월 14일에 비로소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먼 공중에서 떨어졌다가 신령한 학을 탄 것과 같고, 큰 바다에 빠졌다가 배를 만난 것과 같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리까. 저희들은 돈은 한 푼도 없고, 다만 법보인 정광여래 사리 두 개와 본국의 왕사 나옹화상의 사리 한 개를 모셔 와서 바치나이다. 삼가 원하옵건대, 대인께서는 우리들의 뜻을 살펴서 황제가 계시는 곳에 아뢰어 부처님 법을 널리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바라나이다.”

－ 『세종실록』 3년(1421) 5월 19일.

요동도사가 그 9명을 북경에 보냈는데, 그들의 본래 목적은 조선이 부처님 법을 높이지 않음을 호소하고, 명나라에 의지하여 조선의 불교를 부흥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적휴의 사촌형인 승려 상강을

비롯하여 스승인 처우處愚와 그 제자 신행信行·신기信琦 등을 의금부에 가두고 심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휴 등이 명나라로 간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명나라에 9명의 승려를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세종실록』 3년(1421) 6월 17일]하는 한편, 상강·처우 등을 풀어주었다.[『세종실록』 3년(1421) 6월 18일] 이후 이 9명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의 주동자는 경상도 합천 출신 적휴였다. 그는 요역을 피해 출가했으나 발각되자 도망하여 평안도 묘향산 내원사에 은거하다가 1421년 1월 16일에 8명의 승려를 꺾어서 요동으로 갔다.[『세종실록』 3년(1421) 7월 2일]



사진 3. 함경도전도(18세기, 보물). 사진: 국가유산청.

이들은 황제의 명으로 남경 천계사天界寺에 거주하였다.『세종실록』 3년(1421) 8월 9일] 천계사는 남경의 취보문聚寶門 밖 선세교善世橋 남쪽에 위치한 사찰이다. 원나라 시기에는 용상집경사龍翔集慶寺라 불렸던 곳이다. 신운의 속가 형인 유철은 그들이 명나라로 가는 것을 알고도 놓아주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받았다.『세종실록』 3년(1421) 8월 27일] 이러한 사건이 빌미가 되어 양계의 많은 사찰들은 강제로 폐사되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와 함길도는 땅이 다른 나라의 경계와 연하여, 무식한 승려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는 자가 간혹 있으니, 평안도의 의주·삭주·강계·여연·벽동·창성·이산·인산·정녕과 함길도의 경원·경성·갑산 등 각 고을의 신구新舊 사사寺社를 모두 헐어 없애고, 승려들은 모두 남도의 각 고을로 옮겨 그 왕래를 금하되, 만일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에게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여 환속시켜 군역에 충당하고, 위에서 언급한 군의 이남에 있는 각 고을 사사는 한 고을마다 하나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며, 살고 있는 승려는 그 수를 정하여 본관과 연령 등을 장부에 명백히 기록해 두고, 정해진 수 외에 떠돌이 승려들은 거주를 허락하지 말며,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15년(1433) 1월 21일.

양계의 사찰을 헐어도 좋다는 조정의 명령이 실행되었다. 게다가 그 이후 새로 설치한 회령·종성·온성·경흥·부거의 지역도 위와 같이 승려들이 사찰을 짓고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세종실록』 28년(1446) 2월

12일] 이후로는 승려가 국경을 넘어간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1471년에 국경을 넘어 요동으로 갔다가 붙잡혀 온 승려 지청志淸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성종실록』 2년 4월 21일 ; 6월 2일 ; 6월 22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승려 지청이 요동에 잠입한 죄는 법률상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은 모두 2천 리 밖으로 유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청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 천변天變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이니, 사람을 죽이지 않고자 한다. 그에게 특별히 사형을 면하고 변방 고을의 종[奴]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실록』 2년(1471) 12월 12일.

지청의 형벌은, 사형을 집행할 때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참부대시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자연 재앙을 이유로 사형을 면해 주었다. 위 기록을 통해 국경을 넘어간 자는 그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까지도 2천 리 밖으로 유배 보냈음을 알 수 있다. 古鏡

- **이종수**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 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 교수와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운봉선사심성론』, 『월봉집』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복각」, 「16-18세기 유학자의 지리산 유람과 승려 교류」 등 다수가 있다.

기후미식의 원형 사찰음식



박성희_ 한국전통음식연구가

사찰음식은 불교의 자비와 절제,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음식 문화입니다. 인공조미료나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철 채소와 산나물,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맛’, 즉 ‘자연의 본래맛[本味]’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식문화는 탐욕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지 않으며, 음식의 생명과 순환에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 줍니다.

사찰음식과 기후미식의 만남

‘기후미식(Climate Gastronomy)’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문화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 식재료의 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저탄소 조리 방식 등을 통해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맛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즉,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



사진 1. 김치속재료(김치페스타).



사진 2. 백김치(김치페스타).

나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의 과정으로서 ‘먹는 행위의 윤리’를 되돌아보는 미식 운동입니다.

사찰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미식의 철학을 실천해 온 전통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료를 다시 활용하고, 제철과 지역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조리법은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사찰음식은 기후위기 시대의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plant-based food)’와 일맥상통합니다.

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발효와 절임 등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조리법은 에너지 절약과 생태적 순환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감사히 먹는 ‘발우공양鉢盂供養’의 정신은 소비 중심 사회에 던지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전통요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철학이자 기후미식의 원형原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음식 한 그릇을 통해 생명과 지구의 순환을 느끼게 하는 사찰음식은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미식 가치를 제시합니다. 즉, “먹는 일은 수행이며,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찰음식의 가르침은 기후미식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사진 3. 단호박물김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진 4. 가을버섯묵.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남 목포에서는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행사기간 동안 사찰음식을 주제로 지속가능미식주간의 장엄을 담당하였고, 사찰음식과 기후미식을 주제로 남도미식국제컨퍼런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찰음식장인 지견스님과 경운스님, 그리고 소리명상 전문가 선정스님과 구례 화엄사 마하연 보살님께서 사찰음식의 진면목을 선보

였으며, 전통음식연구가 홍성란 선생님의 유밀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효음식에서는 기순도 명인님께서 전통 장을 기반으로 건강 한 먹거리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달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에서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 소개된 경운스님의 가을버섯묵과 도토리 채소밀쌈을 소개해 봅니다. 

- **박성희** 궁중음식문화재단이 지정한 한식예술장인 제28호 사찰음식 찬품장이다. 경기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사찰음식전문지도사, 한식진흥원 교강사이다. 국가유산 조선헌조궁중음식연구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식물기반음식과 발효음식을 연구하는 살림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논문으로 「사찰음식의 지혜」가 있고, 현재 대학에서 사찰음식과 궁중음식을 강의하며, 해원정사 사찰음식 전수관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가을버섯묵

【 재료 】

모듬버섯(목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 한천 가루(물 100리터+한천 10그램), 들기름, 간장, 청홍고추, 양념장(간장, 채수, 참기름, 깨가루), 초장(고추장, 현미식초, 유기농원당, 참기름, 통깨).

【 만드는 법 】

1. 버섯은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행궤 사용합니다.
2. 물기를 털고 버섯을 손질합니다.
 - 목이버섯은 손으로 찢어서 준비합니다.
 - 표고버섯 밑동은 찢어서 준비하고 갓은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 느타리는 얇게 찢어 주고, 새송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 썰어 줍니다.
3. 청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채썰어 준비합니다.
4. 팬에 목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버섯을 먼저 넣고 중간불에서 볶은 후 팽이버섯은 가장 늦게 넣고 볶아 줍니다.
5. 버섯을 볶은 후 버섯이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붓고 끓이면서 간장과 들기름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6. 물 100리터+한천 가루 10그램을 녹인 후 5에 넣어 줍니다.
7.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들기름으로 코팅된 틀에 넣어 굳힙니다.
8. 굳은 묵은 먹기 좋게 썰어서 양념장에 찍어 먹습니다.



사진 5. 경운스님의 버섯묵.

도토리 채소 밀쌈

【 재료 】

반죽(도토리 가루 3T, 밀가루 1 Cup, 간장 또는 소금), 속재료(애호박, 당근, 오이, 버섯, 새싹 채소), 소금, 포도씨유.

【 만드는 법 】

1.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를 섞고 간을 하여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2. 애호박과 당근, 오이, 버섯 등은 채 썰어 준비합니다.
3.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채소를 하나씩 볶아 내서 식힙니다.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길쭉하게 부쳐 냅니다. 폭 3cm, 길이 10cm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5. 밀전병을 아래 놓고 그 위에 볶은 채소들을 올려서 돌돌 말아 줍니다.
6. 연겨자 소스를 만들어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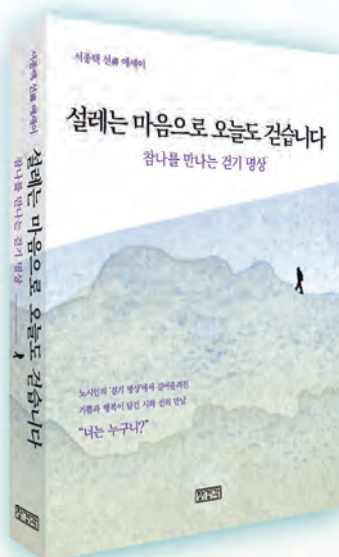
사진 6. 도토리 채소 밀쌈.



서종택 선禪 에세이 | 참나를 만나는 걷기 명상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자연 속 한 걸음, 내면을 향한 깊은 사유의 여정
걷기 명상 속에서 만나는 삶의 본질



서종택 지음
국판 변형(148×200) | 352쪽
초판 발행 2025년 9월 10일
값 18,000원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온 교육자이자 원로 시인인 서종택 선생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을 ‘천천히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육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온으로 이끄는 길로 삼고 있다. 종교적 신심을 강요하지 않으며, 담백하면서도 깊은 선적禪의 사유로 울려퍼지는 글들은 소네트처럼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선 어록과 선시를 빌려 자연 속에서 얻은 통찰을 간결한 문체로 풀어낸 이 책은, 독자의 내면에 고요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오랜만에 마주하는 ‘사색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 1부 — 나는 숨긴 게 없습니다
- 2부 — 나는 즐겁게 바위 속에 앉아 있네
- 3부 — 말로 하고자 하나 이미 말을 잊었네
- 4부 — 나는 차 달이며 평상에 앉았다네

※이 책에 실린 41편의 글들은 월간 『고경』에 ‘선과 시 시와 선’이라는 제목으로 3년 6개월 동안 연재한 것들로, 매회 가장 많은 독자를 끌어모으며 꾸준한 호응을 받았던 글들이다.



서종택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1976년), 전 대구시인협회 회장, 전 대구대학교 사범대 겸임교수, 전 영신중학교 교장, 대구시인협회상 수상(2000년), 저서로 『보물찾기』(시와시학사, 2000), 『납작바위』(시와반사, 2012), 『글쓰기노트』(집현전, 2018) 등이 있다.

향수해 위에 핀 연꽃 속 우주



보일스님_ AI 부디증연구소장

우리는 언제나 ‘사이’를 살아간다. 가족과 동료 사이, 모니터와 눈동자 사이, 생각과 말 사이, 말과 실천 사이, 매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으며 산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절대 쉽지 않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간극은 물론, 마음의 벽과 차원의 경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 그 단절과 고립 속에서 현대인은 유례없는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수단과 미얀마, 예멘과 시리아에서는 폭격이 계속되고, 국경과 종교의 이름으로 증오가 대물림되고 있다. 심지어 기후위기 앞에서도 각국이 자국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실과 겹치며 우리의 ‘사이’를 더 멀리 갈라놓는다. SNS로 수천 수만 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깊은 고독을 느끼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갇혀 산다. 세대 간 언어는 통하지 않고, 진영 간 대화는 평행선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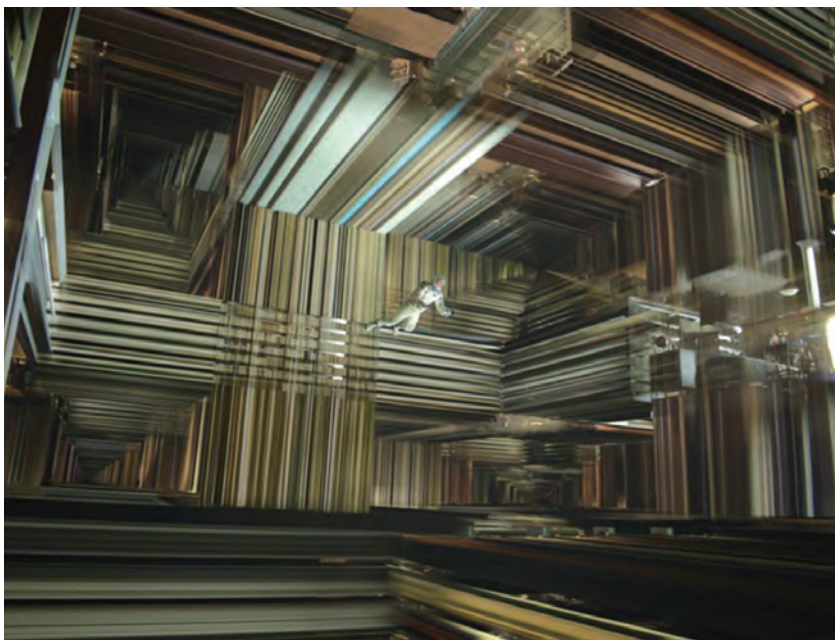


사진 1.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테서렉트에 들어간 장면. 사진: 인터스텔라 필름.

으며, 가족조차 서로를 낯선 타인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렇다면 이토록 파편화된 세계를 이어줄 실마리는 정녕 없는 것일까?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터스텔라>(2014)는 이 물음에 매우 흥미로운 답을 제시한다. 영화 제목이 뜻하는 ‘별과 별 사이(Interstellar)’의 광막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 현재와 미래 사이, 절망과 희망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랑의 여정이다.

지구가 죽어가는 근미래, 주인공 쿠퍼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성간星間 여행이라는 극한의 모험을 감행한다. 우여곡절 끝에 블랙홀 가르강튀아에서 이른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쿠퍼가 마주한 것은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곳은 ‘테서렉트(Tesseract)’라 불리는 5차원 공간이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만, 이 5차원 공간에서는 시간조차 물리적 차원이 되어 있었다. 마치 도서관의 책장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무한히 펼쳐진 격자 구조 속에서 시간은 공간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딸 머피의 방이 무수히 반복되어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머피, 책장 앞에서 유령을 찾던 머피, 아버지를 원망하며 떠나보내던 머피,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인류를 구할 방정식을 풀려 애쓰는 머피까지,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했다. 책장 너머로 어린 머피가 떨어지는 책들을 보며 “유령이야!”라고 외치는 순간, 쿠퍼는 전율했다. 그 유령은 다름 아닌 지금의 자신이었다.

딸이 어릴 적부터 믿어 왔던 수호천사, 책을 떨어뜨리고 먼지로 신호를 보내던 존재가 바로 미래에서 온 아버지 자신이었다. 이 ‘테서랙트’에서 과거의 쿠퍼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딸이 아버지의 신호를 받아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이 불가사의한 순환 구조를 보여준



사진 2.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선이 블랙홀 가르강튀어를 탐사하는 장면. 사진: 인터스텔라 필름.

다. 책장 뒤에서 필사적으로 책을 밀어내고, 먼지로 모스 부호를 만들며, 마침내 시계 초침으로 블랙홀의 양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모든 행위가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연결고리였다.

‘테서랙트’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시공간을 관통할 수 있게 만든 통로였다.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브랜드 박사의 말이 ‘테서랙트’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쿠퍼가 그의 딸에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라는 약속은 결국 가장 오래된 진리, ‘사랑’이라는 답으로 귀결되었다.

보현보살이 삼매 속에서 본 우주의 참 모습

「화장세계품」은 바로 그 ‘사이’를 화엄의 시선에서 우주의 질서로 확장해 보여주는 경이로운 우주의 청사진이다. 연꽃 위에 펼쳐진 세계, 향기로운 바다와 바람의 바퀴, 무수한 세계의 씨앗이 서로를 비추며 피어나는 질서가 곧 우리의 일상적 ‘사이’의 본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장면이다.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은 80『화엄경』의 전체 구성 7처 9회 39품 중에서 첫 번째 법보리도량 법회의 제5품에 해당한다.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의 원래 명칭은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이다. 즉 보살의 무수한 실천이라는 꽃[華]이 부처의 과덕을 창고처럼 간직[藏]하여 세계를 장엄莊嚴하고, 그 세계가 바다처럼 광대무변함[世界海]을 선언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장엄한 화장세계의 모습을 누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화장세계품」의 설주는 바로 보현보살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현보살이 깊은 삼매 속에서 직접 목격한 우



사진 3. 『대방광불화엄경』 「화장세계품」 변상도.

주의 실상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는 마치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에서 본 푸른 지구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듯,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라는 깊은 선정 속에서 법계 전체를 조망하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우리와 공유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설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보리도량, 부처님께서 막 깨달음을 얻으신 그 성스러운 자리라는 점이다.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무명의 어둠이 지혜의 빛으로 전환되는 우주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며, 따라서 화장세계의 진실이 드러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문수보살이 지혜의 관점에서 법을 설한다면, 행원(行願)의 보살인 보현보살은 그 지혜가 만들어낸 장엄한 세계를 실제로 보여주는데, 이는 이론이 아닌 체험의 공유이며, 관념이 아닌 실상의 증언이다.

“묘한 보석으로 된 연꽃이 성곽이 되어, 온갖 빛깔 마니로 장엄하였고, 진주구름 그림자가 사방에 퍼져서, 이와 같이 향수해를 장엄하였네.” - 「화장세계품」, 무비스님 역 중에서,

보현보살은 깊은 삼매 속에서 '풍륜風輪'이라는 바람의 바퀴 위에 떠 있는 화장세계華藏世界를 본다. 풍륜은 우주를 지탱하는 평등의 힘이며, 끝없이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다. 그 위로 향기로운 물의 바다, 향수해香水海가 펼쳐져 있다. 이 바다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며,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자비의 모태이다. 그 향수해 한가운데 피어난 거대한 연꽃[大蓮華] 속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난다. 번뇌와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도 본성은 청정하며, 언제든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상징이다. 이 연꽃 속에는 다시 무수한 세계중世界種, 즉 세계의 씨앗들이 떠 있다. 하나의 씨앗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무수한 세계가 겹겹이 들어 있다. 『화엄경』은 이를 이십중二十重 화장세

사진 4. 챗GPT SORA로 생성한 화장세계의 이미지.



계, 즉 스무 겹의 중층세계로 묘사한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그 스무 겹 가운데 13번째 층에 위치하며, 무한한 세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거대한 세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엄경』은 중앙의 세계를 둘러싼 다른 세계의 수를 ‘십불찰미진수+佛刹微塵數’, 즉 부처님의 세계를 갈아 만든 티끌의 수만큼이라 한다. 이는 곧 무한대를 뜻하며, 그만큼 부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나타낸다. 무수한 세계가 각기 다른 빛깔로 존재하지만, 그 모든 세계는 결국 하나의 법계法界, 하나의 진리 위에서 서로를 비춘다. 어떤 세계는 연꽃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보배 그물, 어떤 세계는 수미산처럼 우뚝하다. 다양성 속에서도 모두가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으로 장엄해 있다는 점에서 통일된다.

화장세계의 절정은 ‘일일세계 일일불——世界——佛’, 즉 “하나의 세계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선언이다. 이는 수많은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분의 비로자나불이 모든 세계에 동시에 현전한다는 의미이다. 진리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법당에서만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장세계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우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 속에서 비로자나불의 빛이 끊임없이 반사되어, 무수한 인연이 서로를 비추며 장엄의 조화를 이룬다. 화엄의 우주는 거대한 연꽃 위의 우주이며, 그 연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도 매 순간 피어나고 있다. 따라서 「화장세계품」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열쇠는 ‘사이’를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경전은 ‘향수해’를 연꽃과 인드라망이 어우러진 바다로 그리지만, 우리의 일상에

서는 그것이 곧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의견과 의견 사이로 나타난다. 서로의 눈빛이 오가는 그 사이가 곧 ‘인터스텔라’이며, 그 공간을 자비와 지혜로 장엄하는 일이 바로 화엄 행자의 창조 행위이다.

화엄의 인터스텔라, 향수해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에서 아버지 쿠퍼가 딸 머피에게 전하는 명대사,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말은 단순한 낙관론을

사진 5. 「화장세계품」의 향수해. GROK 생성 이미지.



넘어선다. 이 대사는 인류가 지혜와 탐험 정신을 통해 숭한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매년 길을 찾아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이는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가 차가운 물리 법칙의 결과가 아니라 보살의 서원[願力]과 중생의 업력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통찰과 맞닿아 있다.

인류가 답을 찾는 능력은 곧 세계를 창조하는 세주世主의 내재한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영화에서 쿠파와 머피를 최종적으로 연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힘은 과학 기술이나 물리력이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중력마저 뛰어넘어 우주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차원을 초월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화엄경』 「화장세계품」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즉 향수해香水海가 인드라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하는 가르침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 공간을 자비와 공덕의 바다로 채우는 것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서원의 진동이다.

결국, 〈인터스텔라〉가 말하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말은 현실을 개탄하는 대신, 마음이 곧 세계를 창조한다는 화엄의 지혜를 현대적인 서사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세주가 되어, 서로의 ‘사이’를 채우는 향수해를 희망의 서원으로 장엄할 때,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보일** 해인사로 출가하여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박사를 졸업했다. 해인사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AI 부디즘연구소장으로 있다. 인공지능 시대 속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연구와 법문을 하고 있다. 저서로 『AI 부디즘』, 『붓다, 포스트 휴먼에 답하다』가 있으며, 논문으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禪문답 알고리즘의 데이터 연구」, 「디지털 휴먼에 대한 불교적 관점」, 「몸속으로 들어온 기계, 몸을 확장하는 기계」 등이 있다.

물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능파각



정종섭_ 한국국학진흥원장

다시 태안사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혜철 화상은 귀국 후에 오늘날 화순 和順인 무주武州의 쌍봉사雙峰寺에 머물다가 842년에 무주지방 동리산桐裏山으로 들어와 대안사大安寺에 머물면서 선문을 개창하였다. 이 난야는 원래 경덕왕景德王(김현영金憲英, 재위 742~765) 원년인 742년에 3인의 승려가 지은 것이었는데, 혜철선사가 주석하면서 선문으로 점점 이름이 알려졌다.

조선시대에 붙여진 사명 태안사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908?) 선생의 문집인 『고운집孤雲集』에 실려 있는 봉암사의 <지증화상비명智證和尚碑銘>을 보면, 최치원 선생은 혜철 화상이 주석한 절을 ‘태안사太安寺’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동리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옛날 이곳에는 뽕나무가 많았던 것 같다. 동리산을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봉두산鳳頭山으로도 불렀으니, 이곳은 봉황이 내려와 사는 산이라는 말이다.

봉황이 살려면 뽕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뽕나무가 많아서 봉황을 생각했는지 봉황이 먹고 사는데 뽕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산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산이 먼저냐 봉황이 먼저냐? 잘 모르겠다. 지금의 태안사泰安寺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태안사泰安寺’로 기재되어 있다. ‘太태’자와 ‘泰태’자는 같은 글자이니 굳이 개명이라 할 것도 없다. 어쩌면 최치원 선생이 살았던 신라시대에도 두 글자를 같은 뜻으로 혼용했을지도 모른다.

혜철선사는 왕경인 경주 귀족 박차씨 가문의 출신으로 유학儒學과 노장학老莊學 등을 공부하다가 15세에 화엄종의 본찰인 부석사浮石寺에 출가하여 화엄학을 공부하고 22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그는 부석사의 여러 승려들의 권유로 당나라로 건너가 공공산龔公山의 지장선사 문하에서 수행하고 선법을 전수받아 왔다. 당시 신라에서 지장선사에게서 법을 받은 이로는 도의선사 이외에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828년에 남악南嶽에 실상사實相寺를 창건하고 실상산문을 개창한 홍척선사가 있었다. 도의선사나 홍척선사가 신라로 귀국한 시절에 혜철선사는 당나라에 있었다.

혜철선사는 불법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총명하여 그를 만난 지장선사가 바로 인가를 할 정도였다. 지장선사는 그에게 외국 사람으로서 중국 땅을 멀다 하지 않고 와서 법화法化를 청하니, 훗날에 설하는 바 없는 설[無說之說]과 법이 없는 가운데 있는 법[無法之法]이 해동에 전해지면 더 없이 복 받을 것이리라고 했다. 사찰의 건물 가운데 오늘날에도 무설전無說殿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있는데, 이는 이 무설지설에서 유래된 것이다.

지장선사의 선법을 받은 혜철선사

지장선사가 입적하자 그는 공공산을 떠나 천태산天台山 국청사國淸寺 등 중국의 여러 사찰을 순례하다가 서주西州 부사사浮沙寺에 자리를 잡고 3년 동안 대장경을 읽고 그 종지를 터득한 다음 839년(문성왕 1)에 귀국하였다. 비문으로 보면,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그의 귀국을 반기며 나라가 보물을 얻었고, 붓다의 지혜와 달마의 선법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혜철선사는 이곳 태안사에 주석하며 법과 교화를 펼쳤다. 문성왕은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법을 청하기도 했다.

861년에 입적하자 제자들이 송봉松峰에 사리탑을 모셨다. 경문왕은 868년(경문왕 8)에 선사에게 ‘적인寂忍’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탑명을 ‘조륜청정照輪淸淨’으로 내렸다. 탑비는 872년(경문왕 12)에 세워졌다. 탑비의 비문은 당나라에서 숙위宿衛를 한 신라 한림대翰林臺의 영수인 한림랑翰林郎 최하崔賀 선생이 지었는데, 비문에서 혜철선사가 선법을 펼친 동리산문을 도가道家의 진인眞인들이 살았다는 나부산羅浮山과 육조혜능慧能 대사가 법을 펼친 보



사진 1. 보제루와 응향각 사이 적인선사탑으로 가는 길.

림사寶林寺가 있는 조계산曹溪山에 비유하면서 그 높은 경지를 찬양하였다.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자 구양순체歐陽詢體로 이름을 떨친 동궁東宮 소속의 중사인中舍人 요극일姚克一(?~?)이 썼는데, 그는 경문왕대에 시중侍中 겸 시서학사侍書學士를 지냈으며, 구양순체를 습득하여 글씨로도 김생金生(?~?)에 버금가는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태안사는 이러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옛날에는 송광사松廣寺, 선암사仙巖寺, 화엄사華嚴寺, 쌍계사雙溪寺 등이 모두 태안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60년에 걸친 최씨 무단정치

혜철선사는 쌍봉사에도 주석하였다. 그 이후 마조선사의 제자 남전보원南泉普願(748~834)에게서 법을 받은 도운 화상이 금강산에 있다가 855년에 이곳 쌍봉사로 와 주석하였고, 그 제자 징효대사澄曉大師 절중折中(826~900) 화상이 사자산문獅子山門을 개창하면서 사세가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 최씨 무신정권 때 집권자였던 최항崔沆(?~1257, 제3대 교정별감: 1249~1257)이 승려 시절에 쌍봉사의 주지를 지냈던 사실을 보면, 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 쌍봉사의 사세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최우崔瑀(1166~1249)와 기생 사이에 태어나 최만전崔萬全으로 불린 그가 오늘날 송광사인 수선사修禪社의 승려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절 생활도 무의미했던 것이 그가 환속하여 권력을 쥔 후에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을 뿐 아니라 계모 대대씨를 독살하고 조정의 수많은 중신들도 유배를 보내거나 죽이는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중에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崔寔 1178~1234) 화상의 행장을 짓게 되는 정안鄭晏(?~1251)도 모반 혐의로 백령도에 귀양을 가서 죽임을 당하였다.

정안은 최우의 처남으로 최항의 외삼촌이기도 했다. 정안은 최씨 정권의 버팀목이 되었던 4대 가문 즉 경주김씨, 정안임씨, 하동정씨, 철원 최씨 가문에 속하여 집권자 최우의 천거로 국자궐주國子祭酒가 되어 권세를 누리기도 했지만, 날로 난폭해지는 최우 정권을 피하여 육지의 끝자락인 남해南海로 내려가 사재로 정림사定林寺까지 세우고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고려대장경 일부를 간행하기도 하며 살았다. 이때 새긴 재조대장경再彫大藏經의 경판이 현재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다. <백련암>편에서 이야기하였다. 정안은 피세避世를 끝내고 최항의 집권기에 벼슬길로 나서 참지정사參知政事까지 올랐지만 결국 비극적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최항도 권력을 잡은 지 8년 만에 독살되어 황천길로 떠났다. 후사後嗣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최항이 승려로 있을 때 송서宋瑒의 여종과 정을 통해 낳은 최의崔堧(1233~1258, 제4대 교정별감: 1257~1258)가 졸지에 권력을 차지하였다. 최의 역시 혼란스런 국정을 운영하다가 1258년 대사성 유경柳璥(1211~1289), 최충헌崔忠獻(1149~1219)의 노비 아들로 낭장이 된 김인준金仁俊(=金俊, ?~1268), 별장 차송우車松祐(?~1268) 등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60년의 최씨 무단정치의 막이 내렸고, 고려는 몽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뒷날 이야기인데, 혜철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주석했던 쌍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태안사 2대조사 윤다 화상

다시 태안사 이야기로 돌아간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로 들어오면서 태안사 2대 조사인 광자廣慈대사 윤다允多(864~945) 화상이 주석하면서 절을 대

가람으로 만들었다. 윤다 화상은 신라 말 경문왕 4년에 경주 귀족가문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출가의 원을 세우고 전국을 행각하다가 동리산으로 가서 상방上方 화상인 여如선사의 문하로 들어가 시봉하였다. 그는 혜철선사와 여선사로 이어지는 선법을 유지하였지만 혜철선사도 그랬듯이 수행자로서 경전을 중시하고 계율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

마조도일의 선에서도 유식唯識에서의 법상法相을 기반으로 하여 계율과 선 수행을 중시하였는데, 윤다 화상의 선풍도 이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나말여초의 시대를 살았는데, 선사들을 우대하던 효공왕孝恭王(재위 897~912)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미륵보살임을 내세우고 나선 궁예弓裔(857?~918, 태동 국왕 재위: 901~918)와 견훤이 난립하던 난세를 관통하며 살다가 왕건王建(재위 918~943)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왕건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지냈다.

왕건이 윤다 화상의 명성을 듣고 만나기를 청하였다. 화상은 출가한 이후 한 번도 권세가를 만나러 절문을 나선 적이 없었지만, 이때에는 처음으로 걸어서 수도 개성까지 갔다. 왕건은 화상과 문답을 주고받은 후에 화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개성 흥왕사興王寺 황주원黃州院에 모시도록 하였다. 윤다 화상은 왕경에서 지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태안사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청한 결과 만년에 태안사로 다시 돌아왔다.

왕은 전라도의 수령에게 명하여 전결田結과 노비, 향적香積을 적극 제공하게 하고 사찰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윤다 화상도 태조를 돕기에 이르렀고, 태조의 지원으로 태안사는 132칸에 달하는 당우를 중창할 수 있었다. 태안사는 이 시절에 사세가 크게 번창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945년(혜종 2년)에 82세로 태안사에서 입적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1396~1486)의 수복강녕壽福康寧을 비는 원찰願刹이 되어 효령대군으로부터 전답, 시지, 노비, 청동 바라 등 많은 재산을 시주받았다. 그리하여 태안사에는 대공덕주大功德主인 효령대군의 영정을 모신 영당影堂이 세워졌고, 종친부宗親府로부터 각종의 잡역雜役과 사역使役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다. 대군의 발원으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큰 바라는 현존하는 바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인근 강진의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도 효령대군이 지원하여 중창을 하였고, 많은 시주를 한 그의 원당이 있었다.

전강·송담선사와 근현대의 태안사

태안사 계곡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동리산문}棟裡山門」이라고 쓴 현액이 걸려 있는 문을 만난다. 사역이 시작하는 곳에 세운 것인데, 여기서 한참이나 들어가야 일주문이 있기에 근래에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리고자 문을 세웠다. 문의 현액과 양쪽 기둥에 걸린 주련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선장인 송담정은松潭正隱(1927~) 선사의 글씨이다. ‘裏리’

사진 2. 동리산 태안사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동리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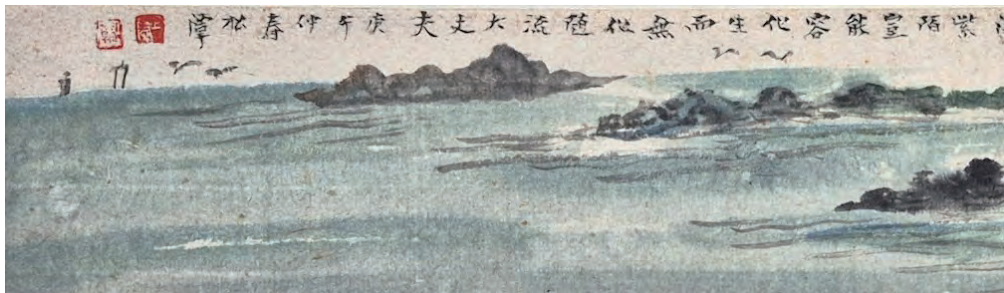


와 ‘裡’는 같은 글자다. 송담선사는 전강영신田岡永信(1898~1975) 선사의 적전제자로 ‘북송담 남진제’라고 칭할 때, 그 송담선사이다. 스승이 오도 송을 읊고 한 시절 머물렀던 태안사이기에 송담선사의 감회는 특별했으리라 생각된다.

전강선사는 절에서 유가儒家의 책을 읽고 있는 총명한 청년이 한눈에 들어 점지하고는 출가하도록 하였다. 송담선사는 그 길로 스승을 따라 나섰고, 스승은 제자에게 평생 병어리로 살라는 명을 내리고는 자신은 밥하고 빨래하는 등 온갖 궂은일을 다 하며 제자를 위해 뒷바라지를 하였다. 제자는 그날로 입을 다물고 10년 세월을 병어리로 살며 수행하였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스승이 이제는 말문을 열어도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설법을 하였으니, 우리가 그간에 들어온 논리적이면 서도 청산유수 같은 법문이다.

전강선사는 발길이 닿는 대로 운수행각을 하던 시절 어느 날 호서지방 태안사로 향했다. 사람 잡아먹은 호랑이 이야기가 전하는 고개를 한 밤중에 넘어오다가 문득 화두가 터지면서 오도悟道를 체험했다. 선사의 말대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한문 실력이지만 태안사에서 오도의 순간을 적은 송頌은 이리했다.

사진 3. 송담선사 그림.



지난 밤 삼경에 누각에는 달이 가득 찼고,
 옛집 창밖에는 갈대꽃 핀 가을이로다.
 붓다와 조사도 여기에서 목숨을 다하니,
 바위에서 떨어진 물이 다리 밑을 지나가도다.

작아삼경월만루 昨夜三更月滿樓

고가창외노화추 古家窓外蘆花秋

불조도차상신명 佛祖到此喪身命

암하유수과교래 岩下流水過橋來

선사는 그랬다. ‘이렇게 적어 보았지만 이를 누구와 함께 말할 것이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으며, 이 경계를 알겠는가’라고. 그리고는 법당 앞 마당에 오줌을 밟다 깔졌다. 절에서는 낫선 중이 와서 이런 무례를 범한다며 난리가 났다. 선사는 말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오줌을 누면 되는지 일러 봐라! 온 천지가 비로자나의 몸인데 어디에 오줌을 누라는 말이냐!” 그때 태안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강선사는 경허성우 鏡虛惺牛(1849~1912)－만공월면 滿空月面(1871~1946)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선사이다.

불교산수



내가 처음 송담선사를 뵈는 것은 전강선사의 진영이 걸려 있는 인천 용화사龍華寺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먼발치로 보았을 때였다. 꼬박 10년의 묵언수행을 하고 난 후 송담선사에게서 나온 오도송은 이랬다.

황매산 암자 뜰에 봄눈이 내렸는데
찬 하늘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울며 간다.
무슨 일로 십 년 세월 헛되이 버렸는가
달빛 아래 섬진강만 길이 길이 흘러간다.

황매산정춘설하 黃梅山庭春雪下
한안누천향북비 寒雁淚天向北飛
하사십년왕비력 何事十年枉費力
월하섬진대강류 月下蟾津大江流

훗날 송담선사는 당시를 회고하며 10년 묵언수행을 해도 한 소식을 얻지 못하면 다시 10년간 눈도 감아버리려 했다고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치열했다. 나는 송담선사의 현판 글씨를 보며 한참이나 서 있었다. 눈은 글씨에 머문 것 같은데, 머리에는 다른 생각만 가득 했다. 송담선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는 해남 대흥사大興寺 성보박물관에 있다.

능파각을 지나 청량한 가람 속으로

이 문을 지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다. 찾길을 따라

걷는 것보다 계곡 숲을 따라 난 길을 걷는 것이 훨씬 운치가 있고 산사를 찾아가는 맛이 있다. 여전히 소나무와 산죽山竹들이 우거지고 나무 사이로는 햇살이 비친다. 계곡의 물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듯이 맑고 깨끗하다. 물빛도 그렇지만 그 소리도 그렇다는 말이다. 단풍철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기도 하지만, 인적이 뜸해진 시간에 이 골짜기를 찾아들면 홀로 사유의 시간을 가지고 고독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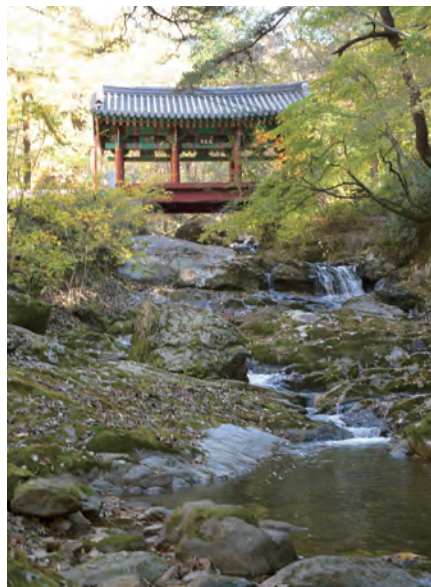


사진 4. 태안사 능파각.

길을 따라 계류를 사이에 두고 걷다 보면 석교로 된 반야교般若橋와 해탈교解脫橋를 건너게 된다. 붓다를 만나러 가는 길이 길게 나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걷다 보면 한껏 낮아진 자신이 어느덧 절에 다다른 것을 발견한다. 물소리 들으며 걸어 온 숲길이 끝나는 지점의 계곡에는 반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다. 솟아 나온 작은 바위들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고 여기저기 작은 폭포도 만들고 있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눈을 들어보면 개울을 건너는 다리 위에 누각 하나가 멋있게 서 있다. 언뜻 보면 계곡을 가로질러 세운 공중누각 같다. 이름하여 능파각凌波閣이다. 능파는 물 위를 가뿐히 걷는다는 말인데, 정말 다리 누각이 계류를 건너고 있었다. 단층이라서 더 경쾌하다. 이 다리는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건너가는 다리이고, 붓다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이다. ‘건너가세 건너가세(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수없이 되뇌는 것은 바로 이렇게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염원하는 것이리라. 죽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



사진 5. 송광사 우화각. 사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다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것은 문루門樓를 겸한 공간을 연출한 것인데, 동리산문이 없었을 때에는 이 능파각이 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혜철선사가 절을 지었을 때에도 다리를 놓았다고 되어 있고, 광자대사가 이 다리를 개축했을 때에 누교樓橋로 불렀던 것을 보면 그 시절에도 다리에 누각을 얹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천복루薦福樓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그 이후 조선 시대 1737년(영조 13)에 본격적으로 누각을 중창하였고,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능파각은 계곡의 양쪽에 석축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통나무보를 걸쳐 그 위에 누각을 지었다. 사찰에 따라서는 돌로 무지개다리를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세우기도 하는데, 무지개다리에 누각을 세운 것으로는 인근 송광사의 우화각羽化閣이 그 한 예이다.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이 풍경은 실로 일품이다. 나는 이 풍경을 보려고 개울 쪽으로 내려가 한참이나 위를 바라보며 풍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절로 가는 것도 잊고 말이다. 도대체 누가 저런 다리를 지었을까? 그리고 이름은 어째서 그렇게 지었을까? 능파라는 말은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굳이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비천飛天이 계류 위로 내려와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과한 상상이라.



사진 6. 능파각에서 일주문 가는 길.

능파각을 건너면 양쪽으로 하늘을 가리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숲길로 들어선 것과 같은 느낌이다. 산사의 공기가 소쇄瀟灑하다. 이른 아침나절에 절을 한 바퀴 돌아 이 길을 걸어보면 청량淸涼하다는 말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

일주문에 걸린 동리산태안사

길 끝 지점에 쌓아놓은 돌계단을 밟아 올라서면, 앞으로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 있는 늘씬한 자태를 하고 있는 일주문一柱門을 만난다.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일주문은 양쪽으로 구하기 힘든 굽은 나무 기둥을 일주一柱라는 말 그대로 하나씩 세우고 작은 보조기




사진 7. 태안사 일주문.

등을 세워 5층의 다포多包를 쌓아 올려 화려하게 만들어 세운 것이다. 찬란하면서도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간략하게 느껴지고 맑고 기품이 있는 기운이 감도는 문이다.

조선시대인 1683년(숙종 9)에 학현學玄대사가 증건한 이래 보수를 거치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문화유산이다. 현판의 글씨는 구한말에 당대 조선을 대표한 서예가인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1937) 선생이 썼다. 성당 선생

의 자유로운 예서풍이 진하게 배어 있는 필법으로 해서로 쓴 것이다. 글씨를 새기는 사람이 성당 선생의 원래의 필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 문의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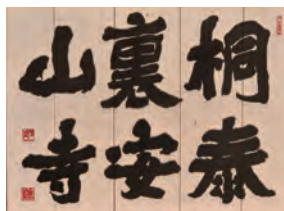


사진 8. 김돈희 글씨 동리산태안사 현판.



사진 9. 봉황문 현판.

○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헌법학 원론』 등 논저 다수.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불서

■ 성철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

선을 묻는 이에게(산방야화) | 14,000원

선에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동어서화) | 14,000원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 14,000원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선림보훈) | 15,000원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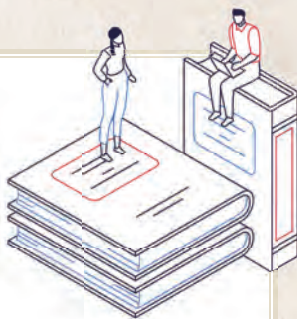
송나라 선사들의 수행이야기(임간록) | 25,000원

어록의 왕, 임제록(임제록) | 18,000원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①(나호야록, 운와기담, 총림성사) | 22,000원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②(인천보감, 고애만록, 산암잡록) | 20,000원

※ 각 도서는 e-book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장경각의 불서

명추회요(e-book)

회당조심 | 24,000원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

박태원 | 30,000원

불교와 유교의 대화

김도일 외 | 30,000원

조론연구·조론오가해(전6집)

조병환 역주 | 300,000원

조론

조병환 역주 | 18,000원

밝은지혜 맑은마음

보광성주 | 10,000원

나는 사람이 좋더라

연등국제선원 | 15,000원

역주 선림승보전(상, 하)

원철 역주 | 각 18,000원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

김용정 저, 윤용택 역음 | 30,000원

한국 불교학의 개척자들

김용태 | 28,000원

바람의 노래가 된 순례자

다정 김규현 | 27,000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걸읍니다

서종택 | 18,000원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허암 김명우 | 30,000원

Echoes from Mt. Kaya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문판)

Edited by ven. Won-taek | 25,000원

‘마음 돈오’를 열어주는 두 문②

- 간화선 화두 참구문



박태원_ 인제대 석좌교수·인제화쟁인문학연구소 소장

혜능이 설한 ‘무념의 돈오견성’을 계승하면서 조사선의 특징까지 추가하면서 전개해 가던 선종은, 송대宋代의 대혜종고大慧宗杲(1089~1163)에 이르러 돈오견성 방법론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화두 의심과 돈오견성을 결합한 간화선看話禪의 등장’이 그것이다.

돈오견성 방법론의 새로운 전개: 화두 의심

혜능 이래 조사선까지의 선문에서는, 말 끝나자마자[言下] ‘바로 그때 그 자리[卽處]’에서 돈오견성하는 대화와 사례만 전할 뿐, 돈오견성을 위한 별도의 수행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대중 집회에서는 법문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선종의 관점을 설하여 돈오견성으로 이끌고,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는 몸짓 언어와 시각 언어까지 채택한 독특한 대화법을 펼쳐 ‘무념의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卽處]’에서 일깨워 주는 창발적 언어방식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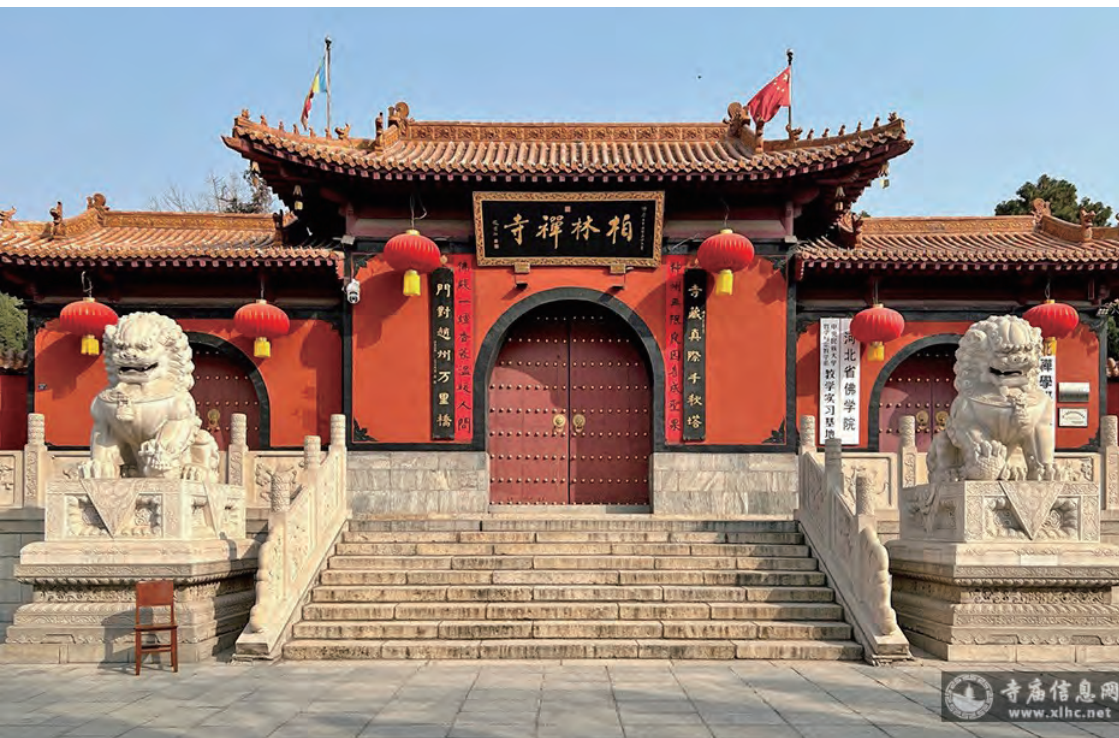


사진 1. 백림선원柏林禪院. 중국 헤베이성 소재 사찰로 조주스님이 40년 동안 주석했다. 사진: 寺庙信息网.

‘화두 의심을 통한 돈오견성’을 설하는 간화선의 등장은 돈오견성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 전환이다. 스승으로부터 설법을 듣거나 일대일 대화를 통해 그 자리에서 돈오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선사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일화나 연구[機緣]들을 표준[公案]으로 삼아 그 공안에서 의심/의정疑情을 일으켜 돈오견성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공안에서 일으킨 의심을 ‘화두 의심’이라 하고, 화두 의심을 간직해 가는 것을 <화두를 간看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간화선看話禪이다. <화두

의심/의정을 오롯하게 챙겨 가다가, 마침내 더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통로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인 ‘의심 덩어리[疑團]’가 되었을 때, 어떤 계기를 만나 홀연 이 의심 덩어리를 깨뜨리면 돈오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간화선이 수립한 돈오견성 방법론의 요점이다.

간화선 맥락의 화두 법문은 당대唐代 조주종님趙州從念(778~897)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황벽희운黃檗希運(?~850)의 『황벽단제선사완릉록黃檗斷際禪師宛陵錄』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라는 무자無字 화두 법문¹⁾으로 이미 등장한다. 그러나 황벽이 조주보다 근 50년 앞서 입적하였다는 점, 『완릉록』의 이 내용이 판본에 따라 없는 곳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실이라 해도 이때까지 의심/의정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임제의현臨濟義玄(?~867)까지만 해도, 〈화두에서 의심/의정을 일으켜 ‘의심 덩어리[疑團]’로 만들고 그 의심 덩어리를 깨뜨려 마침내 돈오견성하는 방법〉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조법연五祖法演(?~1104)에 이르러 무자無字 화두를 통한 화두 참구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마침내 대혜선사가 〈오직 공안公案 화두에서 의심/의정을



사진 2. 간화선을 체계화한 대혜종고大慧宗杲(1089~1163) 선사.

1) 『신수대장경』 48권, p.387중.

일으켜 그 화두 의심을 타파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의심/의정을 통한 화두 참구법’을 확립시킨다.

선종 전개의 어느 시점부터 선종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돈오견성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법이나 대화를 통해, 말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그 자리[卽處]에서 돈오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희소한 경우였다. 따라서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돈오견성 방법론’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화두 의심을 방법론으로 주목하는 통찰들’로 방향을 잡았고, 이러한 흐름을 계승·종합하여 집대성한 인물이 대혜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두 의심을 주목하게 된 시대적 배경도 있다. 송대의 선종에서는 활발한 어록 편찬 등 이른바 문자선文字禪, 선구禪句의 뜻을 사변 능력으로 헤아려 그럴듯하게 풀어내는 의리선義理禪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인 사대부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문文의 부흥’이라는 시대적 풍조와 선종이 결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련된 문文 교양의 연장선에서 다분히 지적 관심의 대상으로 선에 접근했던 사대부들은, 의리선 풍조에 편승하여 선사들의 돈오견성 법문을 사변의 총명으로 해석하기를 즐겼다. 그 결과 선을 지식과 이해의 범주에서 다루는 경향을 고조시켰다. 문자선과 의리선 풍조에 따르는 부작용의 극복. 이것이 송대 선종의 과업이었다. ‘조작하는 분별로 해석하는 사유를 끊고 막는 방법’을 모색하던 선종 구도자의 집단 지성은 마침내 화두 의심을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두 의심에서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자, 대혜는 이 일련의 흐름을 집대성하여 ‘화두 의심을 돈오견성의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간화선’을 확립한다.

간화선에 대한 불교적 질문

구도자적 확인이라면, 간화선의 길에 들기 전에, 〈화두 의심은 돈오 견성의 문門이다〉라는 명제 자체의 의미와 타당성을 먼저 성찰해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돈오견성의 길이기애, ‘화두 의심을 통한 돈오견성’이라는 방법론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 전망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간화선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성찰적 신뢰를 먼저 마련해야 간화문에 용맹 발심할 수 있다.

〈화두 의심만 해결하면 도인이 된다〉라는 기대에만 부풀어 일으킨 수행 의지라면 자칫 맹목적이다. ‘결과에만 설레어 일으킨 발심’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에 맞는 이해와 관점의 수립[正見]’이 팔정도 해탈 수행의 첫 행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간화선 수행을 〈그 어떤 이해나 지적 전망도 필요 없이 그저 화두 의심에만 몰입하다 보면 견성하게 되는 특별한 수행법〉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으로는 간화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수행 테크닉’에만 관심이 있는 기능주의 수행관은 진리 탐구에 장애물이다. ‘맹목의 신념’일수록 기세등등하기 마련이어서 구도 학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종 구성원들이나 선 사상에 관한 탐구들은, 〈화두 의심을 참구하면 돈오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질문이 불필요한 진리 명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질문하면 할수록 분별 허물만 키운다는 관점까지 일반화되어 있다. 게다가 이런 관점은 ‘분별심의 가공적 전개’를 막아주는 선문의 이런저런 연구들을 논거로 삼기 때문에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의 의미는 ‘조건을 지닌 특수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임을 간과하면 안 된다. ‘조건적 의미’를 간과하는 비非연기



사진 3. 가부좌를 틀고 화두 삼매에 든 스님들. 사진: 현대불교.

적 사유는, <화두 의심만을 간절히 챙겨 가면 어느 순간 돈오견성의 장
場이 활짝 열려 무애도인이 된다>라는 말을 ‘질문할 필요가 없는 절대 명
제’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무조건적 사유에 따른 절대 신념’은 간화선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간화선의 토대를 허무는 자해 행위다.

이런 신념은 간화선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질문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불교적 성찰’은 곧 ‘연기적 사유에 의한 성찰’이다. 그리고 연기적
사유는 ‘모든 현상을 그 발생 조건들과 관련하여 탐구하고 이해하는 사
유’다. 따라서 불교적 성찰과 질문은 곧 ‘연기적 사유로 던지는 질문’이다.

간화선에 대한 불교적 질문은 이렇다. 〈화두 의심은 왜 돈오견성으로 이어지는가? 화두 의심이 돈오견성의 발생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간화선 행보의 내용과 성패가 결정된다.

한국 불교는 세계적으로 간화선이 살아 숨 쉬는 유일한 경우다. ‘간화선은 최고의 선 수행법’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보존된다. 그러나 간화선의 현실적 지위와 평가는 근저에서부터 균열의 징후가 표면화되고 있다. 간화선에 대한 이해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선 사상과 수행 현장에서 누리던 간화선의 위상과 역할은 위태롭다. 간화선 위기론은 사상과 현실 양면에서 날로 심화하고 있다. 간화선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대안 제시도 속출한다. 〈이대로 가면 간화선은 한국 불교에서도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위기의식과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간화선이 부활할까?

간화선에 대한 불교적 질문과 대답이 활발해져야 활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돈오견성’ ‘화두 의심’ 등을 비롯한 간화선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불교적 질문과 대답이 거둬거둬 이루어져야 한다. 선종의 핵심 개념과 명제들에 대해, 그 내용을 발생시키는 조건들과 의미를 탐구하는 질문과 응답들이 살아나야 한다. 〈화두 의심은 왜 돈오견성으로 이어지는가? 화두 의심이 돈오견성의 발생 조건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화두 의심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핵심부에 놓여 있다.

또한 〈간화선과 니까야의 사띠 수행은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현재 유행하는 사띠 명상은 붓다의 사띠 설법에 얼마나 상응하는가? 화두 의심과 돈오견성은 니까야가 전하는 붓다의 선 법설에 상응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대답도 핵심부에 놓인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개방된

태도'와 '관행에 매이지 않는 탐구적 응답'에 따라, 선종과 간화선의 명운이 같리고 붓다 선禪의 전망도 결정된다고 본다. 필자도 꾸준히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제기하고 나름대로 대답해 왔다. 그 과정에서 확보한 관점은 기존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는 선 담론의 역동적 진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질문이 막힌 이유

‘화두 의심과 돈오견성의 인과관계’를 질문하고 대답하려는 성찰 의지가 마비된 것에는, ‘화두 의심과 언어·사유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큰 역할을 한다. ‘화두 의심과 돈오견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성찰과 해명은 ‘사유와 언어의 길’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두 의심은 모든 언어와 사유의 길을 끊는다고 하는데, 언어와 사유의 성찰을 통해 간화선의 본령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간화선 화두 의심은 언어와 사유의 행로를 끊는다>라는 것과 <언어와 사유로 성찰하여 간화선 수행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충돌하는 양립 불가능 명제가 아니다. ‘간화선 화두 의심’과 ‘이해·판단·평가하는 사유와 언어’의 관계는 조건적 맥락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된다. 이들의 긍정 관계와 부정 관계는 ‘내용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에 따라 생겨나는 연기적 현상’이지, ‘일의적—義的으로 결정되는 무조건적 현상’이 아니다.

<변화·관계·차이의 현상세계와 접속한 채, 현상세계가 지닌 변화·관계·차이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yathābhūta, 如實)’ 이해하여 관계 맺는 길, 그리하여 변화·관계·차이를 ‘불안과 고통’이 아닌 ‘풍요와 안

락'의 근거로 누리게 하는 길>이 붓다의 중도中道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사유·감정·욕구·행위는 변화·관계·차이 현상을 조건 삼아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중도는 <변화·관계·차이의 현상세계와 접촉하면서도 현상세계가 지닌 변화·관계·차이의 속성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yathābhūta, 如實)' 이해하여 관계 맺는 언어·사유·감정·욕구·행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따라서 붓다의 길에서는, 언어·사유·감정·욕구·행위의 중도적 주인공이 되는데 필요한 맥락과 조건에 따라, 언어·사유·감정·욕구·행위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효나 선종도 이러한 태도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혜능과 이후의 조사선 거장들, 대혜와 후대의 간화선 거장들, 성철은 모두 언어의 긍정·부정을 자유롭게 구사한 언어의 중도적 주인공이었다. 언어·사유·감정·욕구·행위와 깨달음을 상호 부정적 관계로만 취급하는 것은 신비주의의 시선이니 선종이나 불교의 시선이 아니다. 吉鏡

※ 이번 글로 2년간의 집필 기한이 끝난다. 귀한 지면을 제공해 주신 『고경』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불교 잡지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영문판도 기대해 본다. 재미있는 필자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 박태원 고려대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취득. 울산대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거쳐 현재 인재대 석좌교수로 인제한국학연구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울산대에서 불교, 노자, 장자 강의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원효전서 번역』, 『대승기신론사상연구』,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돈집 진리담론』, 『원효의 화쟁철학』, 『원효의 통섭철학』, 『선禪 수행이란 무엇인가?-이해수행과 마음수행』 등이 있다.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김방룡의 한국선 이야기

김진무의 중국선 이야기

원영상의 일본선 이야기

禪



태고보우에 의한 임제종의 법맥 계승 ②



김방룡_충남대학교 교수

태고보우는 가지산문 출신의 선승이지만 화엄선華嚴選에 급제하였고, 무자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원나라로 들어가 임제종의 명안 종사인 석옥청공으로부터 인가를 받고서 귀국하였는데, 그 시기는 1348년(충목왕 4)으로 그의 나이 48세 때이다. 이때부터 그가 열반에 든 1382년(우왕 8년)까지 34년 간의 시기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입전수수기入塵垂手期라 할 수 있다. ‘선사禪師’로서의 태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기이다.

귀국 후 입전수수 과정

태고가 귀국한 1348년은 충목왕 4년이었는데, 이듬해인 1349년에 충정왕이 즉위하여 1351년까지 3년을 재위하게 된다. 두 왕 모두 어린 국왕이었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은 원 조정과 외척 세력이었다. 권문 세속에 의하여 토지 점병이 심화되었고 빈농층은 확산되었으며 민생은 파탄되었다. 사찰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고 불교 교단은 세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태고가 지향한 삶은 현실 정치를 떠나 청빈낙도淸貧樂道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임제종의 대표적 승려였던 석옥청공이나 고봉원묘의 삶의 태도와도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남송대 대혜종고가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데, 원대 한족 漢族이 처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태고는 삼각산 중흥사에 머물다가 용문산 북쪽 기슭에 소설암小雪庵을 짓고서 은거하게 된다. 이때 지은 「산중자락가山中自樂歌」를 보면 태고의 선禪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다.



사진 1. 태고보우 선사가 선법을 받은 임제종의 명안종사 석옥청공.

원나라 천자는 성인 중의 성인이라
이 바위 골에 살며 세월을 보내게 하니
산중의 이 즐거움 함께할 이 아무도 없네
내 홀로 나의 성글고 졸렬함 좋아하니
물과 바위와 함께 스스로 길이 즐길지언정
세상 사람과 이 즐거움 나누지 않으리라.

대원천자성중성 大元天子聖中聖
사거암곡소일월 賜居岩谷消日月
무인공아산중락 無人共我山中樂
오독련오소전줄 吾獨憐吾跡轉拙



사진 2. 봉은사 일주문. 사진: 서재영.

영동수석장자락 寧同水石長自樂

불여세인지차락 不與世人知此樂

(중략)

그대 보게나. 태고암의 이 즐거움

두타가 취해 춤추매 광풍이 온 골짜기에 일어나니

스스로 즐거워 계절이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바위 꽃 피고 지는 것 볼 뿐이네¹⁾

군간태고차중락 君看太古此中樂

두타취무광풍생만학 頭陀醉舞狂風生萬壑

1) 『태고화상어록』, 한국불교전서 6책, 684a-b.

자락부지시서천 自樂不知時序遷

단간암화개우락 但看崑花開又落

1352년에 드디어 공민왕이 즉위하게 된다. 태자 시절 연경에서 “내가 장차 고려로 돌아가 정치를 맡게 되면 스님(태고)을 스승으로 모시리라.”라고 한 약속을 공민왕은 잊지 않았다. 즉위하자마자 공민왕은 태고에게 설법을 청하고 경룡사敬龍寺에 머물게 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에는 봉은사에서 개당설법을 하게 하고서 태고를 왕사로 삼는다. 이어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고 이의 주관을 태고에게 맡긴다.

왕사에 책봉된 다음 공민왕이 ‘위국爲國의 방도’를 물었을 때, 태고는 “다만 그 거룩하고 인자한 마음이 모든 교화의 근본이요 다스림의 근원이니,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당부하였다. 여기에 이어 몇 가지 정책들을 논하는 가운데 태고는 불교의 구산선문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과 백장청규의 도입 및 오교를 흥포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것도 건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하여 태고가 크게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고가 원융부의 일에 관여한 것은 1년 남짓이다. 이후 1363년에는 양산사陽山寺(희양산 봉암사)의 주지가 되어 절을 중창하기도 하고, 가지사迦智寺(장흥 보림사)의 주지가 되어 선풍을 크게 떨쳤다.

신돈의 등장과 태고의 말년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그리고 1365년(공민왕 14)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으로



사진 3. 문경 봉암사 석종형 승탑.

인해 공민왕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신돈辛頓(1323~1371)이다. 신돈은 공민왕의 사부師傅가 되어 1365년(공민왕 15)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와 감찰사판사監察司判事 및 서운관판사書雲觀判事를 겸직하였다. 또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를 농민에게 보급하고 양인良人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석방시켰으며, 성균관을 중건重建하고 공자를 국사國師로 격상시키는 개혁 정책을 전개하였다.

태고는 공민왕에게 신돈을 멀리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태고는 1366년 왕사를 사직하고 도술산으로 들어갔다. 1368년(공민왕 18)에는 전주 보광사普光寺에 주석하면서 원나라로 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신돈의 모함으로 금고형을 받고 속리산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듬해 금고형에서 풀려나 소설암으로 돌아오게 된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처형되고 나서야 태고는 국사에 봉해지게 된다. 1374년 공민왕 또한 4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어 우왕이 즉위하게 된다. 말년에 태고는 양산사(희양 봉암사)와 밀양의 영원사瑩原寺 그리고 소설암 등에 머물렀다.

1382년(우왕 8년) 12월 24일, 소설암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이때 남긴 임종게는 다음과 같다.

| | |
|----------------------------|---------|
| 인생의 목숨은 물거품처럼 공허한 것 | 人生命若水泡空 |
| 팔십여 년을 꿈속에서 지나갔네 | 八十餘年春夢中 |
| 임종의 오늘에 이 몸을 버리니 | 臨終如今放皮袋 |
| 둥근 해가 서봉에 지네 ²⁾ | 一輪紅日下西峰 |

이듬해 1월에 다비를 하였는데, 사리가 수없이 출현하였다고 전한다. 우왕은 시호를 ‘원증圓證’이라 하였다. 태고에게는 수많은 문도가 있다. 태고암비의 음기에는 국사·대선사·선사를 위시하여 출가 사문의 문도



사진 4. 밀양 영원사지 전경.

2) 『태고화상어록』, 한국불교전서 6책, 699c.

가 천여 명이라 하였고, 최영·이성계를 비롯한 관계官界의 사람들도 문도로 기재되어 있다.

태고 선사상의 특징과 의의

종범스님은 「태고보우의 선풍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태고에 대한 관심이 법통설·종조설로 계속된다면, 태고에 대한 이해를 태고 자체 속에서 하지 않고 태고의 외적인 데에서만 찾는 모순이 있다.”³⁾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벌써 30년 전에 한 말씀이지만 다시금 무겁게 다가온다.

“선사로서의 태고의 진면목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그에 대한 해답은 「태고암가太古庵歌」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태고가 석옥을 찾아가 인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것이 바로 ‘태고암가’이고, 자신의 호가 ‘태고’란 점에서 그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태고암가」를 다시금 읽어보라, 거기에는 영가현각의 『증도가證道歌』와도 같이 초불월조超佛越祖의 본분사의 경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일부를 음미하여 보자.

그대는 보는가

군불견 君不見

태고암 중의 태고 일을

태고암중태고사 太古庵中太古事

지금까지 분명하고 역력하여

지저여금명력력 只這如今明歷歷

백천삼매 그 속에 있어

백천삼매재기중 百千三昧在其中

때로는 중생을 이끌되 항상 적적하네 이물응록상적적 利物應緣常寂寂

3) 종범(서정문), 「太古普愚의 禪風에 관한 연구」, 『논문집』 3, 중앙승가대학, 1994, 7.

이 암자는 노승만 머물지 않고
 무수한 불조가 같은 풍격일세
 그대는 의심마라! 이 결정성을
 지혜와 상식으로 알기 어려워
 회광반조해도 오히려 망망하고
 바로 알아도 자취에 걸리네.
 뭐라고 물어도 크게 어긋났고
 여여부동해도 돌과 다를 바 없네.⁴⁾

차암비단노승거 此菴非但老僧居
 진사불조동풍격 塵沙佛祖同風格
 결정설혜군막의 決定說君兮莫疑
 지역난지식막측 智亦難知識莫測
 회광반조상망망 回光返照尙茫茫
 직하승당유체적 直下承當猶滯跡
 진문여하환대착 進問如何還大錯
 여여부동여완석 如如不動如頑石



사진 5. 양평 용문산 사나사 원증국사 탑비.

4) 『태고화상어록』, 한국불교전서 6책, 682c.

태고의 법맥에 대해 ‘고려 가지산문의 법맥을 계승하였다는 입장과 임제와 석옥의 법맥을 계승하였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 태고가 분명 석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오긴 하였지만 귀국 이후 34년 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임제·석옥의 선풍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태고의 독자적인 선풍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고의 선사상은 본분의 조사선풍과 간화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염불선과 화엄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범은 태고의 선사상의 특징에 대해 ‘① 초불월조의 본분선, ② 성성역력의 간화선, ③ 자성미타의 염불선, ④ 잡화삼매의 화엄선, ⑤ 호법교화의 원력선, ⑥ 보은우세의 동사선’ 등 여섯 가지로 밝힌 바 있다. 그의 시호가 ‘원증圓證’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태고는 선과 교 그리고 염불을 원융을 이념적으로 제시하였고 또 그 이념을 현실화하고자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태고보우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이자, 한국불교태고종의 종조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의 선사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古鏡

○ **김방룡**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북대 철학과 학부, 석사 졸업, 원광대 박사졸업. 중국 북경대, 절강대, 연변대 방문학자. 한국선학회장과 보조사상연구원장 역임.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언어, 진실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공제)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법안문익의 오도송과 계송



김진무_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선에서는 선사들의 계송偈頌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본래 불교는 십이분교十二分教¹⁾로 나누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운문韻文에 해당하는 것은 ‘응송應頌(祇夜, geya)’과 ‘풍송諷頌(伽陀, gatha)’이다. 그렇지만 중국불교에서는 ‘응송’의 용례는 그다지 보이지 않으며, ‘풍송’이 ‘계송’으로 운용되었다고 하겠다. 북송北宋 시기에 목암선경睦庵善卿이 편찬한 선종의 사전字典인 『조정사원祖庭事苑』 가운데 ‘계송’ 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운문雲門 선사가 지은 계송들은 모두 제목을 달지 않았으며, 종지宗旨를 거량舉揚하거나 혹은 후손들을 일깨우려는 것으로, 시인詩人들이 제목을 짓고 난 후에 짓는 것과는 다르다.²⁾

- 1) [唐]玄奘譯, 『大般若波羅蜜多經』卷127(大正藏5, 699a), “若有如來、應、正等覺住三示導, 為諸有情宣說正法, 所謂契經、應頌、記別、諷頌、自說、因緣、本事、本生、方廣、希法、譬喻、論義, …… 若三示導, 若所宣說十二分教, 皆依般若波羅蜜多而出生故.” 이로부터 ‘십이분교’는 “契經, 應頌, 記別, 諷頌, 自說, 因緣, 本事, 本生, 方廣, 希法, 譬喻, 論義”임을 알 수 있다.
- 2) [宋]睦庵善卿編正, 『祖庭事苑』卷1(卍續藏64, 318a), “雲門所著偈頌, 皆不立題目, 或舉揚宗旨, 或激勸後昆, 非同詩人俟題而後有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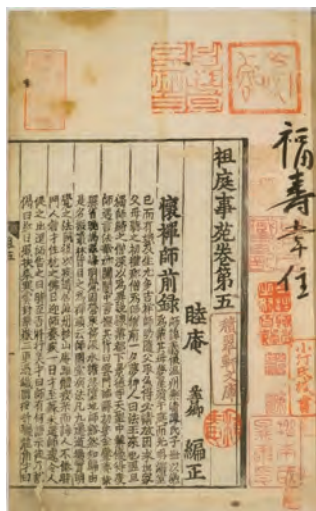


사진 1. 목암선경이 찬술한 『조정사원』.

『조정사원』은 운문문언雲門文偈과 설
두중현雪竇重顯의 어록 등으로부터 2천
4백여 항목을 채택해 그 연원 등을 밝힌
책이므로 당연히 문언의 예로 ‘계송’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선종의 계송
은 제목을 붙이는 일반적인 시詩와는 분
명히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조사선에서는 특히 오도송悟道頌을
중시하는데, 이는 돈오頓悟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돈오의 견지에서는 교학에서
의 차제와 단계를 제시할 수 없는 까닭
에 직접적인 선리禪理를 체득한 경계를 내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삼계유심의 계송

『문익선사어록』에는 여러 가지 계송이 보인다. 그 가운데 ‘송화엄육상
의頌華嚴六相義’는 앞에서 소개하였지만 그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계송
이 실려 있다.

송삼계유심頌三界唯心

삼계는 오직 마음[心]일 뿐이요,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네.
오직 식과 마음이니, 눈은 소리를 보고 귀는 빛을 듣는다.
빛이 귀에 이르지 않는데, 소리가 어찌 눈에 닿겠는가?
눈과 빛, 귀와 소리, 만법이 이로써 이루어진다.

만법이 연緣이 아니라면, 어찌 환幻이라 관觀할 수 있겠는가?
 산하와 대지, 누가 견고하고 누가 변하는가?³⁾

여기에서 언급하는 ‘삼계유심’은 『화엄경』과 『입능가경』 등의 경전으로부터 『성유식론』, 『섭대승론』, 『십지경론』 등 다양한 논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 경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만법유식’은 직접적으로 설하는 경전은 없지만, 다양한 경소經疏와 특히 조사선 선사들의 어록에 자주 언급된다.



사진 2. 화엄종의 3조 현수법장.

특히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함께 사용하는 용례는 선종의 많은 문헌에서 보이고, 심지어 법안종의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별을 보이는 임제의 『임제어록臨濟語錄』⁴⁾에도 언급하는 부분이다. 그에 따라 이 문구를 반드시 화엄학과 관련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문익은 명확하게 화엄학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겠다. 특히 문익의 법손法孫인 영명연수永明延壽가 찬술한 『종경록宗鏡錄』에서는 이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최소한 30차례 이상 대량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明]語風圓信, 郭凝之編集, 『金陵清凉院文益禪師語錄』(大正藏47, 591a), “頌三界唯心云: 三界唯心, 萬法唯識. 唯識唯心, 眼聲耳色. 色不到耳, 聲何觸眼. 眼色耳聲, 萬法成辦. 萬法匪緣, 豈觀如幻. 山河大地, 誰堅誰變.”
- 4) [唐]慧然集, 『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0a), “나는 제법의 공상을 보았으니, 변하면 곧 있음이요, 변하면 곧 없음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고,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과 허공의 꽃 같은 것들을 어찌서 애써 붙잡으려 하는가? [我見諸法空相, 變即有, 變即無. 三界唯心, 萬法唯識, 所以夢幻空花, 何勞把捉?]”

위의 계송에서 문익은 심체心體로서의 심心和 만법을 일으키는 ‘용用’으로서 유식唯識의 관계를 논하고 있고, 비록 연기緣起로부터 발생한 만법은 ‘환幻’이지만, 이른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관계로 논리를 세워서 깨달음의 경계를 ‘묘유’의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오직 식과 마음이니, 눈은 소리를 보고 귀는 빛을 듣는다.”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송에는 이른바 『중론中論』의 유명한 “공의空義가 있는 까닭에 일체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의가 없다면 일체법은 이루어질 수 없다.”⁵⁾라는 문구를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문익은 법장法藏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에서 『중론』의 문구를 인용한 것을 보고서 착안한 것으로 추정된다.⁶⁾ 앞에서도 논술한 바와 같이 문익은 법장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익의 오도송

그런데 문익은 나한계침羅漢桂琛으로부터 ‘일체현성’을 듣고서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오도송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익선사어록』에는 그의 오도송悟道頌이라고 추정할 다음과 같은 계송이 실려 있다.

이극理極에서는 정을 잊음[忘情]으로, 어찌 비유를 갖추겠는가?

서리 내린 밤의 달빛 아래, 저절로 앞 시내로 떨어지리라.

5) 龍樹菩薩造, 青目釋, [姚秦]鳩摩羅什譯, 『中論』(大正藏30, 33a), “以有空義故, 一切法得成; 若無空義者, 一切則不成.”

6) [唐]法藏述,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4(大正藏45, 499b), “中論云: 以有空義故, 一切法得成者. 此則由無性故即明緣生也.”

열매가 익어 원숭이도 또한 살찌우고, 산에 길게 뻗어 길이 아득하
구나.

고개 들어보니 남은 햇살이 아직 남아 있는데, 원래 서쪽에 머물렀
을 뿐이네.⁷⁾

이 계송은 문익의 ‘일체현성’에 대한 취지가 가득 담겨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극’은 궁극적인 경지로 세간의 모든 것을 잊어야 함[忘情]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장자莊子』에서는 ‘도’와 어그러지는 원인을 물질에 대한 욕심인 물욕物欲과 인정에 이끌리는 정루情累,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되는 자기己에 대한 집착으로 보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망물忘物·망정·망기忘己, 이른바 삼망三忘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소중한 가치조차 잊는 것을 ‘성망誠忘’이라 칭하고, 그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문익이 여기에서 ‘망정’의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절



사진 3. 법안문익이 개당한 승수선원崇壽禪院.

7) [明]語風圓信, 郭凝之編集, 『金陵清涼院文益禪師語錄』(大正藏47, 591a), “理極忘情謂, 如何有喻齊. 到頭霜夜月, 任運落前谿. 果熟猿兼重, 山長似路迷. 舉頭殘照在, 元是住居西.”



사진 4. 남경의 청량사.

대적인 떠남[離]이나 소멸[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理와 정情, 즉 이 사理事의 원융적인 견지를 보이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어찌 비유를 갖추겠는가?”라는 말은 이 경계는 결코 형식적인 문자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문익이 중시하는 승조僧肇의 어법으로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⁸⁾의 경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그대로 임운자재任運自在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는데, 바로 “서리 내린 밤의 달빛 아래, 저절로[任運] 앞 시내로 떨어지리라.”라는 문구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열매가 익어 원숭이도 또한 살 찌우고, 산에 길게 뻗어 길이 아득하구나.”라는 문구는 자신이 후학들에 대한 교계敎誡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익 자신의 경계가 더욱 원숙해지면서 학인을 끊임없이 제접提接하여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여전히 학인들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선사의 정서를 깊게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後秦]僧肇作, 『肇論』(大正藏45, 157c), “涅槃非有, 亦復非無. 言語道斷, 心行處滅.”

이러한 까닭에 “고개 들어보니 남은 햇살이 아직 남아 있음”을 논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래 서쪽에 머물렀을 뿐이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쪽[西]’은 인도나 서역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진리의 당체當體의 소재를 의미하니, 결국은 ‘일체현성’의 도리를 드러내며 계송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익선사어록』이나 다른 전적에서 이를 문익의 오도송으로 칭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계송은 문익이 계침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찬술한 오도송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 다만 원오극근圓悟克勤이 찬술한 『벽암록』에는 문익의 이 계송을 두 차례나 “법안원성실성송法眼圓成實性頌”⁹⁾으로 칭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도 이 계송이 원성실성圓成實性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 계송이 문익의 오도송이 틀림없을 것이라 본다.

남당 황제를 깨우친 계송

『문익선사어록』에는 문익이 남당南唐의 황제 이경李璟에게 법을 강의한 이후 함께 활짝 핀 모란꽃을 감상하였는데, 황제가 문익에게 계송을 청하였고, 문익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사진 5. 남당 2대 황제 이경.


9) [宋]重顯頌古, 克勤評唱, 『佛果圓悟禪師碧巖錄』卷4(大正藏48, 173b), “法眼圓成實性頌云: 理極忘情謂, 如何有喻齊。到頭霜夜月, 任運落前谿。果熟猿兼重, 山長似路迷。舉頭殘照在, 元是住居西.”, 앞의 책, 卷9(大正藏48, 215b)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다.

승복을 입고 꽃 무더기 앞에 마주하니, 예로부터 그 뜻이 같지 않구나.

머리털은 오늘로부터 하얘지는데, 꽃은 작년의 붉은빛 그대로이다.
화려한 빛은 아침 이슬 따라 사라지고, 그 향기는 저녁 바람을 따라 흩어지네.

어찌 반드시 다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공소함을 알겠는가!¹⁰⁾

이 계송을 분석하자면,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승복을 걸침[擁毳]과 꽃 무더기[芳叢], 백발과 붉은빛 등의 비교를 통하여 황제에게 ‘공’을 깨우치는 의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송에서 언급하는 ‘공’은 착공鑿空(著空)이나 필경공畢竟空의 의미가 아닌 앞에서 언급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입장으로 문익의 핵심적인 선리인 ‘일체현성’에 이르는 ‘공’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계송을 듣고 황제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이상으로 『문익선사어록』에 나타난 계송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문익이 제창하는 ‘일체현성’의 취지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이어서 문익이 찬술한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을 고찰하고자 한다. 

10) [明]語風圓信, 郭凝之編集, 『金陵清涼院文益禪師語錄』(大正藏47, 590c), “擁毳對芳叢, 由來趣不同。髮從今日白, 花是去年紅。艷冶隨朝露, 馨香逐晚風。何須待零落, 然後始知空!”

○ 김진무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南京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교수. 저서로 『중국불교 거사들』, 『중국불교사상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분등선』, 『조사선』 등이 있다.

일본 황벽종의 조사 은원옹기



원영상_원광대 교수

선종의 일본화는 중국선을 도입한 12세기 중세부터 약 300년간에 걸쳐 이뤄진다. 무사들의 발흥과 더불어 선종은 황금기를 이루기도 했지만, 몇몇 전통을 빼고는 쇠락해 갔다. 특히 임제선은 시문·계송 같은 문자 구사를 중시하는 바람에 참선은 형식에 그쳐 버렸다.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할 스승을 구하기가 힘들어 무사독오無師獨悟했다. 쇄국정책으로 중국으로 유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진 1. 은원옹기 화상. 사진: 만복사 홈페이지.

전국戰國시대를 거치고 정세가 안정된 근세의 에도막부에 이르러 중국 전통성을 그대로 일본에 이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명말청초의 국수주의 움직임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

벽종을 세운 은원옹기隱元隆琦(1592~1673)다. 한류가 세계를 풍미하는 것처럼 중국풍의 문물 또한 그를 통해 근세 일본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황벽종의 탄생

북건성 출신인 은원은 29세에 고향인 북청福淸에 있는 황벽희운이 주석했던 황벽산 만복사 감원흥수鑑源興壽의 문하에 입참했다. 35세에 비은통옹費隱通容의 인가를 받고, 법을 계승했다. 이후 줄곧 황벽산의 주지로 있던 중 일본 나가사키의 숭복사崇福寺 주지로 초빙을 받았다. 그 사



사진 2. 나가사키의 숭복사 산문. 사진: 나가사키 여행넷.

찰은 국가의 혼란으로 건너간 중국인들이 세운 사찰이었다. 4번에 걸친 초청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3년 간의 예정으로 1654년 20여 명의 제자를 이끌고 도일했다. 당시 명나라의 선풍과 은원의 고덕을 숭경하는 승려들과 학자들 천여 명이 모여들었다.

그의 명성이 확산되면서 다음 해에는 교토 묘심사 수좌 류케이 쇼센 龍溪性潛(1602~1670)의 간청에 따라 오사카의 보문사에 주지로 오게 되었다. 류케이는 후에 은원에게 감복하여 제자가 되었다. 은원은 중국의 첩자라는 오해를 받아 에도막부는 사찰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류케이의 노력으로 당시 막부 4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즈나와 대면하게 되



사진 3. 만복사 대응보전. 사진: 만복사 홈페이지.

었다. 그리고 현재의 우지시에 1663년 새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

산호와 사찰을 모국에서와 같이 황벽산 만복사萬福寺로 이름지었다. 일본 내에 중국 사찰을 건립한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은원의 선은 엄밀히 말해 양기방회, 원오극근, 무준사범, 그리고 설암조흠을 잇는 임제선이었다. 하여 그는 임제선의 정통을 전한다는 의미의 임제정종臨濟正宗 또는 임제선종 황벽파로 자칭했다. 은원은 자신을 임제의 32세손이라고 자부했다. 세월이 흘러 1874년 메이지 신정부는 선종을 임제종과 조동종의 2종으로 정했다가 1876년에 황벽종의 독립을 허용했다. 그만큼 앞의 2종과는 차별화된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원이 중국에서 행했던 『황벽청규』를 시행하자 종통 부흥을 외치며 사법嗣法·규구規矩 쇄신에 노력하던 조동종의 만잔 도하쿠卍山道白(1636~1715)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당시 조동종에는 스승과 제자의 법통을 잇는 인법人法과 사찰의 주지직에 의해 가람의 법통을 잇는 가람법伽藍法의 전통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만잔은 전자로써 종조인 도젠을 일사一師로 한 면수사법面授嗣法을 정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부는 대본산인 영평사와 총지사의 법도法度 제정을 통해 만잔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덴케이 덴손天桂伝尊 등은 황벽종의 청규를 가져와 실재의 깨달음보다 사법 규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형식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쟁은 종학 연구, 종전宗典 출판 등을 활발하게 하여 교단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만잔이 활동하던 대승사는 도젠의 89권본의 『정법안장』을 출판했다. 이를 만잔본으로 부른다.

활발발한 선풍

그렇다면 은원의 선풍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며, 특히 명조풍이었던 선정쌍수禪淨雙修의 염불선, 선밀쌍수禪密雙修의 다라니선을 도입했다. 또한 수행자로서 지계를 강조했다. 창건 당시 설립된 계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계회를 열어 에도시대의 계율부흥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중이 되어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무애라고 할 수 있는가. 업이 차면 그 사람에게 떨어진다. 사람의 책임은 언젠가 저야 하니 명심해야 하리.”(『은원전집隱元全集』, 이하 동일)라는 정책의 싹을 지었다. 그리고 “중이 되어 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종족이다. 승으로서의 위덕은 날로 사라져 신神은 웃고 귀신은 염마장闇魔帳에 기록하리라.”고 하며 수행자를 경책한다.

은원의 선풍은 스승 비은의 가르침을 계승한 방할선棒喝禪으로 보고 있다. 임제의 방할은 살활자재의 선이었다. ‘부처가 와도 또한 한 방, 마귀가 와도 또한 한 방’이라고 한 것처럼 엄격했다. 선사가 내려치는 봉 끝에 눈이 있는 듯이 추호秋毫(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즉시 한방에 나가떨어진다.

그는 “단전직지單傳直指의 길에 따로 언설은 없다. 단지 자기 자신 및 일체의 진로塵勞를 도방하여 직하에 본래 면목을 반조하여 무위無位의 진인眞人을 갈파할 때, 외물로부터 침입하는 것은 없다. 거울이 거울을 대하듯이 요요분明了分明하여 애초에 일물의 오염은 없으며, 또한 한 점의 장애도 없다. 원타타圓陀陀, 활발발活潑潑, 적쇄쇄赤洒洒, 전록록轉轆轤, 이름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얇도 어찌 얇이겠는가. 오직 자철자오자료自徹自悟自了를 얻는 것뿐.

이미 확철대오하여 명료하면, 생사거래에 자유하며, 부귀에 처해 부귀에 농락당하지 않고, 인천에 처해 인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마땅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사생의 부모가 되어 천하를 일가로 삼고, 만류를 자식으로 삼는다.”고 설파했다.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불성을 회복하면 대자유인이 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여 어떤 번뇌도 용납하지 않는 확철돈오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임제의 가풍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철한 수행자의 자세

하여 은원은 참선은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설파한다. 그는 “참선은 생사를 초월하는 것, 일직선의 해가 닿는 곳으로 돌진한다. 본래인本來人을 간파하는 것은 혼신으로 생신生身의 철鐵을 주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참선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가 있다. 잘 보면 허세 부리는 자와 같다. 웅크리며 앉은 모습에 사람은 놀라지만, 바람이 불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뻣(허망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리라.”라며 참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마침내 “참선은 시절이 없으니 깨달음이 투철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수많은 생사를 반복했으니, 한 칼로 내리쳐 피를 보듯 명백해야 하리.”라고 한다.

그는 무사들을 의식하여 전투적인 선풍을 설하기도 했다. “참선은 한 사람이 만인을 적으로 삼는 마음가짐을 행하는 것이다. 적진에 들어가 대장의 목을 잡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다.” 자신의 번뇌, 특히 탐진치의 대번뇌를 잡는 것임은 무사들은 깨달았을까. 때로 무사들을 깨우치기까지 했다. 그의 신변 조사를 행한 무사가 그에게 물었다. “선사는 중국 황



사진 4. 구도 토쇼쿠. 사진: 대선사大仙寺.

벽산에서 때때로 움직이는 바위인 사자암 위에서 참선을 할 때, 그 바위가 가루로 부서졌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중국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당신은 모른다. 나 또한 당신이 일본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른다. 이러한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존재의 절대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당시에는 묘심사를 중심으로 정법선 수립이 회자되고 있었다. 정등

성正燈禪을 주장하는 묘심사의 구도 토쇼쿠愚堂東寔(1577~1661)가 대표적이다. 그는 마조의 ‘평상심’, 임제의 ‘평상무사平常無事’의 가르침에 기반, 시비선악의 대립을 넘는 무분별의 경지를 구현하는 일상다반사를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순수선의 입장에서 은원의 계율선이나 염불선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계율은 선수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선도량에서 불던 계율 중시의 움직임에 큰 힘이 되었다.

항벽종 연구자인 양경경楊慶慶은 은원의 계율사상의 특색에 대해 대승보살계와 소승성문계를 중시하는 점, 제악막작諸惡莫作은 견지금계堅持禁戒로써 사미 10계, 비구 250계, 보살 10중 48경계 등의 계상戒相을 엄격하게 지키고 위범하면 참회할 것, 중행봉선은 행위마다 타인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계덕戒德을 촉진한다는 점, 그리고 효를 중시하는

점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유활달한 선풍과 지계주의 사상이 은원의 개방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은원과 류케이 쇼센(隱元と龍溪性潛)) 실제로 수행과 제도에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량한 제도 방안

은원은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고향의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아 있는 물고기나 새를 사서 풀어주기도 했다. 창건된 만복사 앞에는 방생지放生池를 만들었다. 법요 후에는 반드시 방생을 하도록 했다. 무사들이 정권을 잡아 살생이 그칠 날이 없는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방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읊는다. “백세는 긴 꿈과 같지만 윤회를 거듭하니 얼마나 무상한가. 사생의 모든 생명은 한 가지이니, 상처



사진 5. 만복사의 방생지.

를 주어 좋을 것이 무엇인가. 덕을 베풀되 물고기와 새에게도 미쳐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량함에 이르러야 하리. 이러한 노력이 중생제도의 길이며, 물아物我의 기쁨이 더할 나위 없으리라.” 불도의 자비에 깊이 사무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원이 제자들과 함께 일본에 가져온 중국풍의 문화는 매우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불상, 건축, 서화, 회화, 의복, 의학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문화의 봄을 일으켰다. 특히 흔히 정진요리로 부르는 보차요리普茶料理는 전차煎茶의 의한 다례와 함께 전해졌다. 보차의 보는 대중에게 차를 베푼다는 뜻이다. 법요가 끝나고 승려들과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양받은 계절 야채, 건어물이나 콩을 요리해서 평등한 식탁에서 전차나 말차를 즐기는 식사다. 현대에는 보차요리 전문점이 있을 정도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은원의 법손인 데츠겐 도코鐵眼道光에 의해 『데츠겐판 일체경』이 판각, 인쇄되었다는 점이다. 황벽판 대장경으



사진 6. 만복사 보차요리. 사진: 만복사 홈페이지.



사진 7. 데츠겐판 일체경. 황벽산 보장원 소장.

로도 부르는데, 원판은 은원이 가져온 명판 대장경이다. 인쇄 기술은 물론 인쇄본을 열람하도록 하기 위해 권학원勸學院을 전국에 세워 도서관의 선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은원은 서예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황벽삼필黃壁三筆로서 은원은 덕행, 제자인 모쿠안 쇼토木庵性瑠는 도행道行, 소쿠이 노이치即非如一는 선행禪行에 뛰어난 인물로 본다. 이들에 의해 근세의 중국 서도가 대중 속에 확산되었다.

1673년 은원은 열반 3일 전에 제자를 불러 엄명했다. “선법은 중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명리를 구하며 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의 죽음 이후, 나의 법을 등지면 나의 일문一門은 아니다.” 그리고 역대의 주지는 중국인으로 할 것을 정했다.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다가 14대 때부터 일본인이 주지가 되었다. 불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의 가교역할을 한다. 그리고 폐부 깊숙이 진리를 전달한다. 은원은 무경계의 불법을 자신의 주인공으로 삼고 허공에 족적을 찍었던 것이다. 古鏡

- **원영상** 원불교 교무, 범명 익선. 일본 교토 불교대학 석사, 문학박사. 한국불교학회 전무회장, 일본불교문화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일본어교육과 부교수. 저서로 『아시아불교 전통의 계승과 전환』(공제), 『佛敎大學國際學術研究叢書: 仏敎と社会』(공제)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일본불교의 내서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교훈」 등이 있다. 현재 일본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성철 대중사 열반 32주기 추모법회 봉행

성철대중사문도회에서는 퇴옹당 성철 대중사의 열반 32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범보종찰 해인사와 성철 대중사께서 주석하셨던 백련암 일원에서 추모법회와 3천배 기도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추모 행사의 주요 내용은 4일4야 4만 8천배 참회법회, 사리탑전 3천배 기도, 7일7야 참선법회 등이 봉행되었습니다.



사진 1. 노란 국화로 곱게 장엄된 해인사 운양대 성철스님 사리탑.



사진 2. 해인사 대적광전에 차려진 성철스님 영단.



사진 4. 성철 대종사 사리탑전에서 3천배를 봉행하는 불자들.



사진 3.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제. 사진: 현대불교.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과 적광전 등에서 진행된 4일4야 4만 8천배 참회 기도는 지난 11월 5일에 입재하여 11월 9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해인사 운양대 성철 대종사 사리탑전에서는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3천배 기도가 봉행되었습니다.

큰스님의 기일인 11월 9일에는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다례재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스님과 범어사 수좌 수불스님, 원택스님과 원타스님 등 여러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추모 다례재는 거불의식을 시작으로 해인사 주지 혜일스님의 헌향, 문도대표를 대표하여 만수·원해·원행·원타스님의 헌다에 이어 종사영반, 성철 대종사 법어 합송, 추모 입정, 육성 법어, 대중 헌화, 행장 소개, 원타스님의 문도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장소개에 나선 수불스님은 “퇴옹당 성철 대종사께서는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서 돈오돈수의 선풍을 분명히 세우고, 봉암사 결사를 통해 정법의 기틀을 확립하신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라며 한국 현대불교사에 남긴 성철 대종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 문도를 대표하여 인사말에 나선 원타스님은 “가야산의 청정도량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수행 가풍을 이어 정법과 자비의 실천으로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며 큰스님의 가풍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추모법회 기간 동안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7일7야 참선법회도 함께 진행하며 참선 잘하라는 유훈을 남긴 큰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팔식구구통설』·『백법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직 마음뿐이며, 마음을 떠나서
일체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암 김명우 지음
신국판 | 520쪽 | 값 30,000원

-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참선 수행자이자 교학의 일인자였던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에 담긴 유식사상을 팔식과 51심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 제1장은 유식의 용어와 세친보살에 대하여, 제2장은 성철스님이 강설한 유식의 핵심 사상인 사분설·팔식설·6위 51심소·전식특지·삼성설 등에 대한 세밀한 비교 분석, 제3장은 팔식과 언제나 함께 작용하는 6위 51심소 마음 현상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들어 있다.
- 이 책은 유식의 체계와 깊이를 알고자 하는 불교 연구자뿐 아니라 참선과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허암 김명우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과 동아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유식사상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성심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면서 불교 관련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불교 포교 현장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다. 제2회 반야학술상 지역상 및 제2회 퇴옹학술상(교리 부문)을 수상했다.



【 10월 고경 후원 명단 】

- 1만원 강갑순 강길영 강나연 강선희 강은선 강철례 고분자 고은영 권경연
권봉숙 김기봉 김명숙 김미옥 김사청 김삼용 김상호 김상훈 김성동
김숙희 김순옥(부산) 김순옥(진주) 김연기 김영숙 김영화 김용제 김정희
김종배 김지수 김창식 김청원 김현미 김현숙 나영규 남상태 남정숙
노상울 노영희 도순자 도은숙 박경희 박동실 박문규 박복희 박성훈
박은영 박정섭 박정숙 박춘화 박향순 배상한 백숙자 백정윤 사공순옥
서영숙 서임숙 서재영 서정일 선전이 손유정 신동규 신현장 심재형
안국스님 안승희 양복여 엄철순 오판석 우위숙 유숙희 유옥례 윤경자
윤성빈 윤재옥 이귀형 이명숙 이민준 이석락 이승옥 이윤기 이은서
이인순 이재혁 이지수 이지훈 이한선 이화자 이효정 이희숙 임말순
장춘자 전경숙 전보영 정백기 정유진 정은숙 정주원 정태선 정휘태
조기린 조난희 조미화 조성하 조증기 조한나 진고스님 차재욱 최남미
최재실 하홍준 한복려 함지애 허보금 홍세미 홍현주 황성자
- 2만원 강차선 석문숙 안순균 이우병 한창우 황미향
- 3만원 고심정사불교대학제6기 고심정사불교대학제11기 무주상 박소는 불과선원
성덕혜 신장교 안혜련 양윤정 이을순 이창우 이채윤 조형춘 천경덕
청봉
- 5만원 강귀석 김경희 김점순 이수영 정경희 정두식
- 10만원 고심정사불교대학총동문회 김영신 도안스님 문선이 아비라카페 이철선
임세기 조병숙 진주하 채정열
- 25만원 장금선원
- 30만원 법륜사 삼정사 월륜사 청량사 최영자
- 50만원 고심정사신도회 길상선사 백련거사림 정심사 정인사 정혜사
- 100만원 고심정사 해인사백련암

【 10월 성철스님 법어집 법보시 동참자 】

- 2,500원 무주상
- 1만원 김중구 무주상 박기용
- 17,360원 송예나
- 2만원 도은숙
- 5만원 박삼철
- 10만원 김명옥

『고경』 구독 및 후원 안내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고경』을 후원해 주십시오.

◎ 본인 구독 또는 지정 기부

여러분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고경』을 직접 구독하시거나 군부대 등 불교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고경』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 및 방법

월납 : 매달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 : 매년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 본 페이지 뒷면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www.songchol.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경』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농 협 301-0126-9946-11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문의 : 『고경』 편집부 02-2198-5375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우리 곁에 왔던 붓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고경』을 군법당 등 포교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고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고경』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월간 『고경』 후원 신청서

신청방법2 _ 전화 02-2198-5375로 문의

이름 | | **법명** | 신청일 20 . . . (남 ☐ 여 ☐)

주소 |

연락처 | 집전화 () - | 휴대폰 () - |
| 이메일

약정일 매월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연간 | 약정일 매년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CMS 신청시 년 1회 출금됩니다.

※동참회원 구분 ☐ 계좌이체 회원님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 **CMS신청** 아래 자동이체(CMS) 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고경』 사무실에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운영회원 자동이체(CMS) 동의서

이 행 | 계좌번호

출금일 ☐ 10일 ☐ 25일

예금주 | 예금주 생년월일 | 년 월 일

예금주와의 관계 | 예금주 휴대전화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일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성명,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신청계좌 거래은행명, 예금주 생년월일, 출금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효성에프엠에스(주), 신청 금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자동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효성에프에스(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효성에프에스(주)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로 통지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앞표지

갠지스강의 일출.
사진 | 하지권.

뒤표지

자현금강 紫賢金剛.
견본채색, 90cm×55cm.
작가 | 장혜경(2023).

KOKYUNG 152

古 지혜를 전하는 말씀
鏡 마음을 밝히는 수행



을사년乙巳年_ 불기佛紀 2569년_ 단기檀紀 4358년
Monthly Magazine_ December 2025_ Volume 152
www.sungchol.org
First published in May 2013_ First 2013
Buddhist Institute of Sungchol Thought (BIST)

